○○의 섬

강화도

2025 결과보고집



목차

2025 ○○의 섬_강화도 / 2025 The island of ○○_Ganghwado

프로젝트 소개 / About the Project 4

예술가 교류 리서치 / Artists Exchange Research 9

시민 교류 리서치 / Citizen Exchange Research 11

참여자 & 단체 소개 / Participants & Organization

프로듀서그룹 도트 (박지선, 송미선) / Producer Group DOT (Park Jisun, Song Miseon) 13

앤드씨어터 (강윤민지, 권근영, 민재원, 전윤환, 조냇물) / A.N.D.Theatre (KangYun Minji, Kwon Keunyoung, Min Jaewon, Jeon Yunhwan, Jo Naetmul) 17

테아트린게스타치오네 (안나, 지오바니) / Teatringestazione (Anna, Giovanni) 21

드라마박스 (헝루운) / Drama Box (Heng Leun) 25

츄 쇼 엔 / Chew Shaw En 30

희와래 (김나래, 이건희) / Heewarae (Kim Narae, Lee Gunhee) 33

연리목 / Yonrimog 36

리서치 내용 / About the Research

리서치 일정 / Schedule of Research 40

리서치 진행 기록들 / Records of Research 42

1. 고진현(윤슬) 홈콘서트 44

2. 금풍양조장 46

3. 왈순아지매 51

4. 난정 평화학교 56

5. 난정 교회 김용헌 목사 62

6. 산마을고등학교 69

7. 진동 파머컬쳐 76

8. 바람언덕 공동체 자람도서관 79

9. 산들 갯들 '갯벌 탐방' 81

10. 주문도 - 갯벌체험 82

참여 예술가 리서치 내용 / Content of Participating Artists' Research

앤드씨어터 (전윤환) / A.N.D.Theatre (Jeon Yunhwan) 84

테아트린게스타치오네 (안나, 지오바니) / Teatringestazione (Anna, Giovanni) 88

드라마박스 (형루운) 111

츄 쇼 엔 / Chew Shaw En 123

희와래 (김나래, 이건희) / Heewarae (Kim Narae, Lee Gunhee) 128

연리목 / Yonrimog 133

우리가 나눈 대화들 / The dialogues between us 141

시민 교류 리서치 참여자 & 단체 소개 / Participants & Organizations in Citizen Exchange Research 173

리서치 내용 / About the Research 176

프로젝트 소개

ABOUT



프로젝트 소개

⬡⬡의 섬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예술가와 기획자, 시민들이 함께 '소멸'을 응시하고 그 자리에 시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이다.

2025-2026 ⬡⬡의 섬은 강화도이다. 2025년은 리서치 단계로 한국, 싱가포르, 이탈리아의 예술가, 기획자가 강화도에 모였다. 강화도의 길을 걷고, 역사적, 문화적 장소를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그 과정에서 강화의 시간과 자연이 몸에 스며들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여기서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가'를 감각하기 시작했다.

⬡⬡의 섬의 두 개의 육각형은 프로젝트의 상징이다. 육각형은 서로 맞물리면서 새로운 공간과 구조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이는 개개인의 섬이 서로 연결되어 새로운 공동의 세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각각의 육각형은 '나의 섬'이자 '우리의 섬'이며, 이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간은 예술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확장하는 장이 된다.

'소멸'은 기후위기와 함께 '멸종'이라는 단어와 연결된다. 국가의 존속, 경제 성장과 연결해서는 '지역 소멸'로 연결된다. 生과 연결한다면 '소멸'은 '자연스러움'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의 섬이 바라보는 '소멸'은 두려움이 아닌, 다시 관계 맺기 위한 시작의 순간으로 바라본다. 사라지는 것들의 자취를 따라가며, 그 속에서 새로 태어나는 감각과 언어를 예술의 시각과 감각으로 포획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며, 사라짐의 공간에 예술적, 시적 상상의 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2026년 ⬡⬡의 섬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된다. 2025년에 발견한 질문들을 가지고 강화도에 다시 모여, 사라짐의 자리에 시적 장소를 만들고, 그 상상의 공간이 섬 위에 천천히 쌓여가기를 바란다.

About the Project

The ⬡⬡Island project starts with questions about things that are disappearing.

Artists, producers, and citizens come together to face disappearance and create poetic spaces within everyday life.

For 2025–2026, the island of ⬡⬡Island is Ganghwado.

The project began with a research phase in 2025, bringing together artists and producers from South Korea, Singapore, and Italy.

Walking Ganghwa's paths, visiting historical and cultural sites, and meeting its people, we found the island's time and nature slowly permeating our bodies and each of us began to sense, in our own way, what has been disappearing here.

The two hexagons in the title ⬡⬡Island symbolize the project. Hexagons interlock to create new spaces and structures; this represents the process by which each individual's island connects with others to form a new, shared world. Each hexagon is both "my island" and "our island," and the space they create together becomes a place where, through art, we recognize and expand one another's existence.

"Disappearing" carries different meanings depending on where we stand.

Alongside the climate crisis, it connects to extinction.

In the context of national continuity and economic growth, it becomes regional disappea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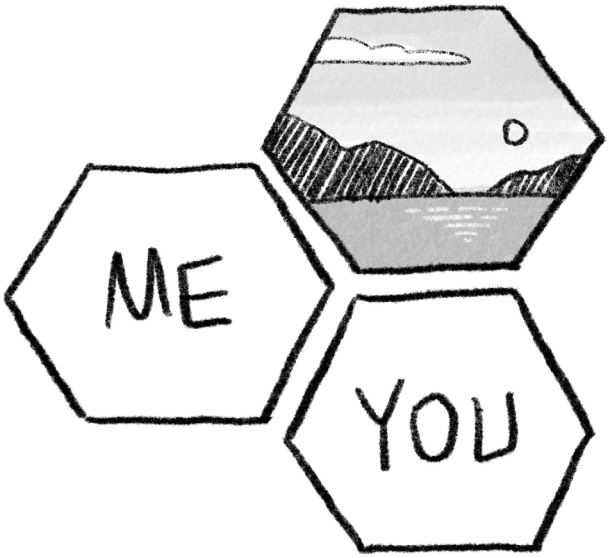
And when linked to 生, life itself, disappearing becomes something natural.

Yet ⬡⬡Island does not view disappearing with fear. Instead, it sees it as a moment to begin reconnecting.

By tracing the traces of what is fading, the project seeks to capture,

record, and share the new sensations and languages that emerge from within, and to create a space of artistic and poetic imagination where things once stood.

⬡⬡Island returns in 2026. Carrying the questions discovered in 2025, we gather again on Ganghwado to build poetic places where things have disappeared, and to let that imagined space slowly accumulate on the island.



활동들 OUR STORY



예술가 교류 리서치 (2025.9.15~9.28)

소멸에 대하여

‘소멸’은 단순히 사라짐이 아니라, 변화의 한 형태이자 다시 태어남의 가능성을 품은 개념으로, 강화도의 시간과 사람, 그리고 자연을 통해 탐구하고자 했다.

강화 안팎의 예술가, 기획자, 연구자, 그리고 강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여 ‘소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강화에서 우리는 소멸과 관련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2주 동안 강화도의 여러 지역을 걸으며, 강화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일상과 기억, 그리고 땅의 변화를 몸으로 체험했다.

이 과정에서 ‘소멸’은 단순한 부정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의 또 다른 방식, 관계의 재구성, 그리고 기억의 전승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확장되었다.

이 짧은 여정은 하나의 시작점이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올해의 시간을 되새기며,

내년에 다시 강화에서 모여 보다 확장된 관점으로 ‘소멸’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때, 우리는 예술이라는 언어를 통해 무엇을 더 깊이 바라보고,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할 것이다.

On Disappearing

"Disappearing" isn't merely vanishing—it is a form of change, a concept that holds the possibility of rebirth. The aim was to explore this theme through Ganghwa's time, people, and nature.

Artists, curators/producers, and researchers from within and beyond Ganghwa, along with Ganghwa residents, came together to explore questions like: "How do we interpret disappearing?" and "What can we discover in Ganghwa in relation to disappearing?"

For two weeks, we walked through different parts of Ganghwa, meeting its people and sensing, with our own bodies, the rhythms of their everyday life, their memories, and how the land is changing.

In the course of this process, "disappearing" expanded beyond a merely negative concept into new meanings: another way of being, the reconfiguration of relationships, and the transmission of memory.

This brief journey marks a beginning. Returning to their own lives, the participants reflect on the year that has passed, and they plan to reconvene in Ganghwa next year to discuss "disappearing" from a more expansive viewpoint.

Then, using art as our language, we will explore together what we can look into more deeply, and how we can share it.

시민 교류 리서치 (2025.11.1~11.3)

지금 우리는 소멸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의 해체는 점점 더 많은 곳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사라지는 것을 붙잡는 일이 아니라, 다시 연결되는 경험,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진행되는 시민교류는 단체 간의 교류가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그리고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이 닿는 지점을 중심에 두었다.

언어나 국적이 달라도,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이 닿는 지점에서 사람들은 진심으로 만남을 이어 나가는 장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은 단순한 방문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서로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관계의 시작이 될 것이다.

누구는 일본에 있지만 강화의 친구를 떠올리고 함께 하고 싶고, 그 반대도 가능해지는 상태. 우리는 그런 지속 가능한 연결의 장면을 상상해 본다.

지금 시대는 연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 알고리즘이 관계를 걸러내고, 경쟁이 일상을 지배하며, 낯선 시선을 환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시민교류는 다른 삶을 마주할 수 있는 우연성을 만들어내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어디에 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남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 교류는 충분한 의미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Citizen Exchange Research (1–3 Nov 2025)

We're living in an era of disappearance. Population decline and the breakdown of local communities are becoming reality in more and more places. What we need now isn't grabbing onto what's disappearing, but reconnecting—and trying to form new relationships.

This project's citizen exchange isn't an institutional exchange between groups. It centers on person-to-person connection, and on the points where people's life directions and values meet.

We created a space where people could have sincere encounters through shared values and life orientations, despite differences in language and nationality.

And these encounters won't just be a visit or a one-off event—they can become the start of relationships that naturally weave into each other's lives.

Someone in Japan, still thinking of their Ganghwa friend, wanting to be together—and the other way around, too. We try imagining that kind of connection that can keep going.

The time that we live in makes connection more difficult: algorithms filter relationships, competition governs daily life, and it's becoming harder to welcome unfamiliar perspectives.

In that environment, citizen exchange created serendipity, a way to come face-to-face with other ways of living.

And those encounters made us ask questions not so much about where we are, but about who we are with.

And if those encounters are not just passing moments but become relationships that stay with us, then that in itself already makes this exchange meaningful enough.

참여자/단체 소개

프로듀서그룹 도트 (박지선, 송미선)

프로듀서그룹 도트는 공연예술 프로듀서 콜렉티브이다.
'창의성(Creativity)', '독립성(Independence)', '수평성(Horizontality)'을 핵심 가치로, 각자의 방식으로, 또는 함께, 다양한 협업과 창작을 이어가고 있다.
도트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안에 머물기보다, 하나의 점(dot)으로서 독립적으로 서 있기를 선택한다.

도트의 프로듀서들은 각각이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점으로 존재하며, 이 점들이 서로를 연결하고 세상과 연결되며 새로운 공간과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2014년에 결성된 프로듀서그룹 도트는 4명의 여성 프로듀서로 구성되어 있다.
연극, 무용, 다원예술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력하며 국내 창작, 국제공동제작, 국제 투어 등을 기획·조직하고 있다. 공연 제작뿐 아니라 주제 중심의 리서치, 레지던시, 네트워크 구축 등 과정 중심의 예술 활동 역시 도트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2014년에는 아시아 프로듀서 플랫폼(Asia Producers' Platform, APP)을 공동 창립(박지선)하였으며, 이후 매년 APP의 공동 기획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예술 프로젝트로는 〈커넥티드 시티(Connected City, 2017–2021)〉가 있다. 2017년 한·영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해 진행된 프로젝트로, 한국과 영국의 예술가들이 서울의 구도심에 머물며 도시를 새롭게 사유하는 예술적 리서치를 진행했다. "예술은 도시를 어떻게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가?", "도시 안의 경제적·문화적 간극을 예술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도시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록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 아래 2년간 이어진 프로젝트다.
코로나 시기에는 한국·홍콩·말레이시아·싱가포르의 예술가들과 함께 기술의 도입과 스마트 도시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마찰 없는 도시를 탐구하며, 오히려 예술을 통해 창의적 마찰(creative friction)을 회복하는 리서치를 이어갔다.

다음은 〈DMZ 리서치〉이다. 도트는 한반도의 DMZ를 동시대 경계와 갈등의 상징으로 삼아 국내외 예술가들과 함께 현대 사회의 다양한 경계와 균열을 탐구했다. 이 리서치는 남북의 정치적·지리적 경계뿐 아니라 노사, 세대, 젠더 등 사회 곳곳의 보이지 않는 벽들을 다루며, 공동체 의식이 점점 약화되는 시대 속에서 '경계'와 '마찰'이 가진 의미를 새롭게 사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0년부터 화천의 '예술텃밭'과 공동으로'예술가 레지던시-기후변화'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이 레지던시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담론을 실제 삶의 차원으로 끌어내리고, 기후정의적 관점에서 예술적 상상력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씨어터게임 : 움직이는 숲〉(김보람, 2022), 〈에너지_보이지 않는 언어〉(김지연·전윤환, 2023) 두 작품이 창작되어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에서 발표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강화 프로젝트는 도트의 이전 리서치들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경계, 마찰, 연결, 기후위기, 그리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를 이어가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과 예술,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과의 관계를 새로운 예술적 언어로 확장해나가는 과정이다.

Participants/Organizations

Producer Group DOT (Park Jisun, Song Miseon)

Producer Group DOT is a collective of producers working in the performing arts.
With "creativity," "independence," and "horizontality" at the core, the members of Producer Group DOT continue diverse collaborations and creative practices, each in their own way as well as collectively.
Rather than staying within one big system, DOT chooses to stand independently—as a single dot. Each DOT producer is a creative, independent "dot," and together those dots connect—to each other and to the wider world—opening up new spaces and possibilities.

Formed in 2014, Producer Group DOT is made up of four women producers.
Working with artists in theatre, dance, and multidisciplinary arts, they develop and organize domestic productions, international co-productions, and international tours. In addition to producing performances, they place a strong emphasis on process-focused work, including theme-based research, residencies, and network-building.

In 2014, DOT (Jisun Park) co-founded the Asia Producers' Platform (APP), and DOT has since participated in APP each year as a co-programming partner.

<Connected City> (2017–2021) is one of their prominent research-

based projects. The project was a part of Korea/UK 2017–18, which celebrated exchange between the United Kingdom and Korea. Participating artists from both sides stayed in Seoul's old city center and carried out artistic research to re-imagine the city. It ran for two years around questions including: "How can art help us perceive the city anew?", "How can art close economic and cultural gaps within the city?", and "How should we witness and document what is disappearing in the city?"

During COVID, DOT worked with artists from Korea, Hong Kong, Malaysia, and Singapore to examine how cities are becoming "frictionless" as they adopt new technologies and get smarter. This research explored how art can restore creative friction.

Next came ⟨DMZ Research⟩.
Taking the DMZ as a symbol of contemporary borders and conflict, DOT explored different kinds of boundaries and fractures in today's society with artists from Korea and abroad. This research addressed not only the geopolitical border between North and South, but also invisible walls within society—between labor and management, generations, and genders—while providing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what "borders" and "friction" mean at a time when the sense of community is weakening.

Since 2020, DOT has worked with Arts Farm Tutbat to curate and run the <Artists' Residency – Climate Change> in Hwacheon. The residency aims to bring the grand discourse of the climate crisis into the realm of everyday life, while expanding artistic imagination from a climate-justice perspective. In that process, two works—⟨Moving a Forest:Board

Game〉(Kim Borham, 2022) and 〈Energy_Invisible Words〉(Kim Jeeyeon & Jeon Yoonhwan, 2023)—were created and presented at the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SPAF).

The Ganghwa project currently underway extends DOT's earlier research—continuing their exploration of borders, friction, connection, the climate crisis, and what is disappearing. It is a process of expanding relationships between regions and art, as well as between humans and non-human beings, through a new artistic language.

앤드씨어터 (강윤민지, 권근영, 민재원, 전윤환, 조냇물)

앤드씨어터는 강화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 단체이다.
2018년 강화도로 이주한 이후, 동료 예술가들과 함께 '없는극장'과 '없는극장 레지던시'를 만들어가며 지역과 예술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없는극장은 '소멸'과 '지속', 그리고 '공존'에 대한 예술적 질문을 중심으로, 사라져가는 것들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감각을 찾아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첫 번째 주요 작업인 <극장을 팝니다>(앤드씨어터, 2020)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제작된 장소 특정형 공연이다.

인천 부평아트센터의 10주년 기념 프로젝트로 의뢰되어, "극장이 멈춘 시대에 예술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관객 수 5명 제한이라는 제약 속에서, 공연은 관객이 홀로 극장 안을 걸으며 태블릿 PC 속 배우와 기술진, 관객의 이야기를 만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극장은 멈춰 있지만, 예술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팬데믹 시대의 연결과 회복을 상상하는 작품이다.

두 번째 작업인 <강화도산책: 평화도큐먼트>(앤드씨어터, 2023)는 강화도와 교동도의 실향민들의 삶을 기록하는 이동형 공연이다.
교동도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의 역사와 실향민 할머니들의 기억을 리서치하

며, 평화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탐구한다. 관객은 배우들과 함께 철책선을 걷고 버스를 타며 강화도의 지형과 역사를 몸으로 체험한다. 공연 전에는 실향민 할머니에게 전수받은 떡 레시피로 배우들이 직접 떡을 만들어 관객과 나누며, 일상의 온기 속에서 평화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강화도에서 <잠시섬 연극제>(앤드씨어터, 2021) 를 개최한다.
이 축제는 6명의 초대 작가가 강화도에 머물며, 다시 자신의 동료 예술가를 초대하는 방식으로 확장된다. 약 18명의 예술가가 일주일에서 2주 동안 강화도에 머물며, 지역의 풍경과 감각을 공유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연과 전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잠시섬 연극제>는 강화도의 시간성과 공간성 안에서 예술이 머무는 의미를 새롭게 사유하는 축제이다.

기후 변화와 생태적 감수성을 주제로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아르코예술극장 앞에서 진행한 '극장 앞 텃밭' 프로젝트는 극장의 전면 공간을 생명의 터전으로 전환하며, 극장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역할을 제시한다.
사라져가는 할로겐 램프처럼 기술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예술의 지속 가능성과 존재의 아름다움을 탐색한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극장의 그리드 위에 무수한 별빛을 띄워,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와 소멸의 아름다움을 은유적으로 그려냈다.
앤드씨어터는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는 감각,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연결, 그 가능성을 믿으며 오늘도 강화도에서 예술의 새로운 형태를 실험하고 있다.

A.N.D.Theatre (KangYun Minji, Kwon Keunyoung, Min Jaewon, Jeon Yunhwan, Jo Naetmul)

A.N.D.Theatre is an arts company based in Ganghwa Island.
Since moving to Ganghwa Island in 2018, the company has created "Void Theatre" and the <Void Theatre Residency> with fellow artists, exploring new relationships between the region and art.

Void Theatre has focused on “disappearing,” “continuing,” and “coexistence” as key themes in its artistic exploration, while seeking sensations that persist within what is fading away.

One of their major works, <Theatre on Sale> (A.N.D Theatre, 2020), is a site-specific work created during the COVID pandemic. Commissioned for Bupyeong Arts Center’s 10th anniversary, the piece began with the question: “How can art exist in a time when the theatre has stopped?”
With the audience restricted to five people, the performance invited each audience member to walk alone through the theatre, meeting the stories of an actor, a crew member, and another audience member on a tablet.
Carrying the message “The theatre has stopped, but art is still alive,” the piece explores connection and recovery in the pandemic era.

Another major piece, <Ganghwa Island Walks: Peace Document> (A.N.D Theatre, 2023), is a walking tour performance that documents the lives of displaced people from Ganghwa and Gyodong Islands.
It explores the meaning of peace through artistic research into the history of civilian massacres on Gyodong Island and the memories of displaced grandmothers. Walking the barbed-wire fence and riding a bus with the performers, the audience experiences the landscape and history of Ganghwa Island firsthand. At the beginning, the performers create a casual, warm and inviting atmosphere by sharing rice cakes that they made using recipes handed down by displaced grandmothers, and start a dialogue about peace.

They also hold <Momentary Island Festival> (A.N.D Theatre, 2021) on Ganghwa Island.

The festival invites six featured artists to stay on Ganghwa Island, and those artists extend the circle by inviting their colleagues.Around 18 artists stay in Ganghwa Island for up to two weeks, sharing their experience and sensations on local landscapes, and presenting work in various forms of performances, exhibitions, and more.
<Momentary Island Festival> explores the meaning of artistic presence within the temporality and spatiality of Ganghwado in new perspectives.

The company also continues to create works centered on climate change and ecological sensibility.
The <Theatre Garden Farm> project, held outside the Arko Arts Theatre in Seoul, transforms the theatre's front plaza into a space for life, proposing a new role for what a theatre should aspire to be.

Through stories about things fading away amidst shifts in technology and the environment—much like the disappearing halogen lamp—the work explores the sustainability of art and the beauty of existence.
In the final scene, countless starlights were cast across the theatre's grid, metaphorically portraying worlds we have yet to see and the beauty of disappearance.
AND Theatre believes in the senses that remain alive amid disappearing things, as well as in the unseen yet existing connections. Driven by this belief, it continues to experiment with new forms of art on Ganghwa Island.

테아트린게스타치오네 (안나, 지오바니)

테아트린제스타치오네는 2006년 나폴리를 기반으로 게수알디|트로노(Gesualdi|Trono)가 설립한 다학제 공연 예술 단체이다. 2007년부터는 드라마투르그 로레타 메시티(Loretta Mesiti)가 지속적인 협력자로 함께하고 있다. 단체는 다양한 예술가와 퍼포머들과 함께 작품 및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독립적·제도적 맥락을 넘나들며 국내외에서 활동한다. 예술 작품, 참여형 다형식 장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며 과정의 공유에 집중한다. 또한 교도소, 치료감호소, 이민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인 대상들과도 함께 작업한다. 단체의 예술적 실험은 일상의 좌표를 전복하여 위기의 공간, 즉 함께 관습에 질문을 던지고 경이로움을 훈련하는 집단적 성찰의 장을 여는 데 있다.

단체는 15년 이상 기존 공연 예술 형식을 넘어선 혼종적 예술 장치를 만들어왔다. 장소에 머무는 것, 과정을 함께 나누는 것, 예술 창작의 모든 단계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시민과의 관계, 학제 간 협업과 공동 저작, 서로 다른 지식 영역 간의 대화, 형식의 혼종화, 프로젝트의 생성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작업의 조건을 만들어왔다. 창작의 시간과 공간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곧 서로 배우고, 기술이 섞이며, 시야의 경계가 확장되고, 감수성이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예술과 커뮤니티의 관계를 탐구하는 예술 실험의 하나로 알토 페스타를 기획하고 있다. 공동체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예술이 사람과 공간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시민은 자신의 집을 예술가에게 열고, 15일 동안 예술가를 '호스트'한다. 예술가는 그 집에서 머물며, 사적인 공간인 '집'을 공적인 예술 공간으로 전환한다. 모든 프로젝트는 '기프트(Gift, 선물)'의 개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민이 자신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관객이 그 공간을 방문해 예술을 경험하는 과정이 하나의 '연결 체인'을 형성한다. 이 선물은 교환이나 거래가 아닌, 나눔과 순환의 원리를 상징한다. 선물은 수량화될 수 없으며, 받은 선물에 대한 자연스러운 '되돌려주기'의 마음을 통해 공동체적 에너지가 생성된다.

알토 페스타는 '공간의 경계를 확장한다'는 철학을 실천한다. 하나의 가정에서

시작된 개방이 점점 확장되며, 개인과 공동체, 예술과 일상이 경계 없이 이어지는 중립적 공간이 된다. 이 공간에서는 새로운 언어와 환경이 창조되고, 시민은 '시적 시민권(poetic citizenship)'을 통해 예술과 시를 자신의 일상 안에 받아들인다. 커뮤니티는 이 프로젝트 안에서 '고정되지 않은 개념'으로 존재한다. 시간에 따라, 관계에 따라, 참여자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한다. 작은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은 관객과 예술가가 서로의 존재를 가까이 마주하게 하며, 서로를 돌보고 연결하는 감각을 회복시킨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외부인의 시선을 통해 커뮤니티가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타인의 시선은 지역 정체성을 새롭게 이해하고, 기존의 자아를 벗어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위험을 감수한 만남'으로 작동한다. 예술가와 시민, 지역민과 외부인은 서로를 돌보며 함께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새로이 써 내려간다. 관광이 도시를 소비 대상으로 만드는 시대에, 알토 페스타는 '돌봄의 관광'을 제안한다. 빈 공간을 단순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음이 새로운 환대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확장된다. 사람이 떠나 생긴 빈자리는 또 다른 만남을 위한 여백이 되며, 그 과정에서 공동체는 끊임없이 재생된다.

'소멸'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탈리아 내 인구 감소와 소멸의 위기에 처한 산악 지역에서 "공중선 거리(Air Line Distance)"를 의미하는 일리냐 다리야(Ilinea d'Aria)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짧은 직선 거리에도 불구하고 산악 지형으로 인해 실제 이동 거리가 매우 길기 때문에 발생하는 물리적 단절은 사회적 단절로 이어졌고, 공동체의 연결은 점차 약화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예술을 통해 단절을 회복하고자 했다. 예술가들은 지역 주민과 교류하며 공연과 라디오 방송을 결합한 형태의 작품을 제작하였고, 라디오는 서로 떨어진 마을들을 하나의 청각적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매개체로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공동체가 서로의 존재를 듣고, 알게 되며, 다시 연결되는 경험을 공유하였다.

단체는 예술을 통해 공동체를 다시 상상하는 실험을 하며, 예술은 단지 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타인과 공간을 다시 연결하는 사회적 행위이며, '나'와 '우리', '안'과 '밖'을 새롭게 정의하는 살아 있는 언어로 바라본다.

TeatrInGestAzione (Anna, Giovanni)

Teatringestazione is a multidisciplinary performing art company based in Naples, founded in 2006 by Gesualdi | Trono; joined in 2007, in an ongoing collaboration, by Loretta Mesiti as dramaturg. The company involves various artists and performers who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s and cultural projects. It work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texts, both independent and institutional, creating works of art, participatory and multiform devices,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mes, focusing on sharing processes. It also works with fragile subjects in socially disadvantaged contexts, including prisons, criminal asylum, immigrants, the elderly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Their artistic action aims to subvert the everyday coordinates to inaugurate a space of crisis — a space of collective questioning, where together we can challenge convention and train ourselves to wonder.

We have been creating hybrid artistic devices beyond conventional performing art formats for more than fifteen years. We have been building the conditions to produce and develop projects based on permanence in places, on the sharing of processes, on the valorisation of every single phase of artistic creation, on the relationship with citizens, on interdisciplinarity and co-authorship, on the dialogue between different spheres of knowledge, on the hybridisation of formats, on the generativity of projects. Sharing the time and space of creation also means mutual learning, contamination of skills, an extension of the boundaries of vision, development of sensitivity.

As one of their artistic practice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community in Naples, Italy, they organise Altofest — a community-

based project that artists and citizens create together, redefining the meaning of community and centering on how art can link people and spaces. In the project, citizens open their homes to artists and "host" them for 15 days. The artists stay in the house and transform the private "home" into a public art space. All of their projects revolve around the concept of a "gift." The act of citizens providing their spaces for free and the process of the audience visiting those spaces to experience art form a "chain of connection." This gift is not an exchange or a transaction, but a symbol of the principles of sharing and circulation. Gifts cannot be quantified; instead, a natural desire to "give back" for what has been received generates communal energy.

Altofest practices the philosophy of "expanding the boundaries of space." What starts as openness within one home gradually expands, forming a neutral space where individuals and communities, art and daily life connect without boundaries. In this space, new languages and environments are created, and through "poetic citizenship," citizens welcome art and poetry into their daily lives. In this project, the concept of community is not fixed, but remains fluid, it keeps evolving over time, shaped by relationships and by those who take part. The performance held within a small home brings artists and audiences into close encounter, helping to restore a sense of care and connection between them.

The project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for the community to look at itself through the perspective of outsiders. The perspective of others becomes a "risk-taking encounter," allowing the community to understand its identity anew and move beyond the existing self toward new relationships. Artists and citizens, locals and outsiders, care for one another as they collectively rewrite the identity of the community. In an era where tourism turns cities into objects of consumption, Altofest

proposes “tourism of care.” The festival does not simply fill empty spaces, but expands emptiness into a new possibility of hospitality. The emptiness created by people’s departure becomes space for other encounters, and through that process the community is continually regenerated.

In connection with the theme of “disappearance,” the company carried out Ilinea d’Aria, meaning “Air Line Distance”, an art project in the mountainous regions of Italy facing depopulation and the danger of disappearance. In these regions, despite the short distance as the crow flies, the actual travel distance between places is extremely long due to the rugged mountain terrain. The physical isolation caused by the distance led to social disconnection, gradually weakening the bonds within the community. The project sought to restore that disconnection through art. Artists assigned to each village engaged with local residents and created works combining performance and radio broadcasting. Radio was used as a medium to connect the separated villages into a single auditory network. Through this process, different communities heard one another’s existence, came to know each other, and shared the experience of being reconnected.

The company sees art as an experiment in reimagining community, not merely a means of expression, but a social act that reconnects people and spaces, and a living language that redefines “I” and “we,” “inside” and “outside.”

드라마박스 (헝루운)

드라마박스는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회참여형 예술 단체이다. 헝 러운은 드라마박스 창립자이며, 30년 예술감독을 하고 이제 다른 동료들에게 그 자리를 넘겨 주었다. 현재는 큐레이터, 드라마터그, 예술감독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단체는 예술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최근 20여 년간은 '땅과 공간, 장소'를 주요 주제로 삼아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드라마박스의 예술적 접근은 프로젝트를 실천이자 연구로 간주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모든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진행되며, 참여와 관계 맺기를 중심에 둔다. 극장의 외부, 즉 도서관, 주택가, 거리 등 비정형적 공간에서 공연을 펼치며, '극장' 자체를 하나의 정치적 공간으로 재해석한다.

관객과 예술가, 커뮤니티가 같은 공간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며, 공연은 그 상호작용의 순간에 생성된다.

드라마박스의 공연은 다원적이고 다언어적이다.

싱가포르의 다문화적 환경을 반영하여 다양한 언어와 예술 형식이 교차하는 공연을 시도한다.

단체는 "예술은 변화의 실천이다"라는 철학 아래, 변화의 본질과 지속의 힘을 탐구하고 있다.

<프로젝트 12>는 플라우 우빈(Pulau Ubin)이라는 섬에서 진행되는 생태, 공동체, 자본, 그리고 시간의 문제를 탐구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플라우'는 섬을, '우빈'은 화강암을 의미한다. 싱가포르 본섬에서 12분 거리에 위치한 이 작은 섬은 과거 화강암 채석 산업으로 번성했지만, 산업 쇠퇴와 함께 인구가 3,000명에서 28명으로 줄었다. 이곳은 전기와 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채 발전기와 우물물에 의존하며, 최소한의 인프라 속에서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

프로젝트는 이 섬의 삶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을 넘어, 개발과 보존, 자본과 생태 사이의 균형에 대한 예술적 사유를 시도한다. 숲이 재생되고 야생동물이 인간의 거주지로 스며드는 변화의 현장에서, 예술가와 주민은 함께 '지속 가능한 삶'의 형태를 모색한다.

드라마박스는 이 섬을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고유한 시간성을 가진 생태적 존재

로 바라본다. 또한 기후 위기와 자본 중심 사회에서의 인간적 존엄, 그리고 회복력 있는 공동체에 대한 예술적 연구이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플라우 우빈 섬까지 배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12분의 시간에서 비롯되었다.

이 시간은 섬에 닿기 위한 물리적 거리이자,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사유하게 하는 상징적 간격이다.

싱가포르는 근대화와 자본의 상징이자, 해수면 상승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도시국가이다.

드라마박스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불편함(Discomfort)'을 예술적 접근법으로 채택하였다.

불편함은 인간 관계의 본질이며, 진정한 이해와 돌봄의 시작점이라는 인식 아래, 예술가는 공동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깊은 관계를 형성한다. 이를 '딥 행잉 아웃(Deep Hanging Out)'이라 부른다.

프로젝트는 기술, 예술, 유산이 교차하는 학제 간 협력 구조(interdisciplinary platform)로 운영된다. 한정된 자원을 재활용하고 순환시키는 생태적 책임을 실천하며, "더 많음이 곧 더 적음이다(Less is More)"라는 원칙을 따른다. 이 과정에서 예술은 단순한 표현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삶의 방법론이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 기능한다.

현재 프로젝트 12는 두 가지 주요 실험을 진행 중이다.

첫째, 섬의 원주민과 함께 긴꼬리원숭이와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둘째, 종교 활동이 약화된 절과 협력하여 축제를 통한 공동체의 재활성화를 시도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두 실험은 예술이 생태와 신앙,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엮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Drama Box (Heng Leun)

Drama Box is a socially engaged arts company based in Singapore. Heng Leun founded Drama Box and worked as its artistic director for 30 years before handing the position over to fellow artists. Currently, he works as a curator, dramaturg, and artistic director. The company seeks to bring about social change through art, and over the past two decades has focused its practice on the themes of 'land, space, and place.'

Drama Box's artistic approach begins from an attitude that regards each project as both a practice and a form of research. All projects are long-term, with participation and relationship-building at the core. The company stages performances in non-conventional spaces outside the theatre, such as libraries, residential areas, and streets, while reinterpreting 'theatre' as a political space. Audiences, artists, and communities build relationships in the shared space, and the performance is created in the moment of that interaction.

Drama Box's performances are multi-disciplinary and multilingual. Reflecting Singapore's multicultural context, they create performances where different languages and art forms cross over. Guided by the philosophy 'art is the practice of change,' the company explores the nature of change and the power of continuity.

<Project 12> is a long-term project carried out on the island called Pulau Ubin, exploring issues of ecology, community, capital, and time. 'Pulau' means island, and 'Ubin' means granite. Just 12 minutes from Singapore's main island, the island once prospered through granite

quarrying. With the industry's decline, its population shrank from 3,000 to 28. With no grid electricity or running water, the island depends on generators and well water, and the community lives on with only minimal infrastructure.

The project does more than merely document life here. Through artistic reflection, it explores how to balanc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capital and ecology. In changing landscapes where forests regenerate and wildlife moves into human settlements, artists and residents explore ways of 'living sustainably' together.

Drama Box sees the island as more than just a place, but as an ecological being with its own temporality. It is also artistic research on the climate crisis, human dignity in a capital-centered society, and resilient communities.

The project's name comes from the 12 minutes it takes to travel by boat to Pulau Ubin. Those 12 minutes are both physical distance and a symbolic gap that invites us to rethink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Singapore is a city-state that is a symbol of modernization and capital, while simultaneously experiencing the crisis of sea-level rise. Amid these realities, Drama Box chose 'Discomfort' as an artistic approach. With the idea that discomfort is fundamental to human relations and a starting point for genuine understanding and care, artists spend time with communities to form deep ties. They call this 'Deepening Out.'

The project operates as an interdisciplinary platform where technology, art, and heritage intersect. It practices ecological responsibility by recycling and circulating limited resources, and follows the principle that 'less is more'. In this process, art functions not merely as

expression, but as a methodology for sustainable living and as a tool for the recovery of community.

<Project 12> is currently conducting two main experiments. The first is a study, carried out together with the island's indigenous residents, that explores methods of coexisting with long-tailed macaques. The second is a project conducted in collaboration with temples where religious activities have weakened, attempting to reactivate the community through festivals. These two experiments are also processes in which art newly weaves together relationships between ecology and faith, and between humans and non-humans.

츄 쇼 엔

쇼는 공연 예술가이자 '몸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메이커(Maker)'로, 예술을 통해 사람과 공간, 그리고 커뮤니티를 잇는 작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는 또한 커뮤니티 기반 예술의 진행자(Facilitator)로서,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이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예술의 역할을 탐구한다.

쇼의 주요 협업 대상은 아이들, 특히 취약 계층 가정의 아동들이다. 그는 이들을 '숨겨진 아이들'이라 부르며,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목소리에 주목한다. 그에게 '보이지 않음'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소멸의 전조로, 예술을 통해 이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실천하고 있다.

그의 작업은 세 가지 축 위에 서 있다 — 장소, 실천, 사람의 내재됨이다. 먼저, 장소의 내재됨은 한 지역과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그 안에 스며드는 과정을 뜻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한 동네에서 2년 반 동안 매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커뮤니티 퍼포먼스 나이트'를 진행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와 관계를 쌓았다. 그는 "아이들이 오지 않아도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나의 진정한 작업이었다"고 말한다. 즉, 교육이 아닌 '장소 만들기', '문화 만들기'

를 예술의 본질로 본다.

두 번째, 실천의 내재됨은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삶과 맥락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는 "예술가는 들어가기 전에 그 장소가 누구의 것이며, 어떤 관계망이 작동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싱가포르의 한 저소득층 지역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프로젝트에서는, 그 지역의 공공공간이 이미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먼저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를 함께 만들어갔다. 이처럼 작업은 일방적인 개입이 아닌, 관계의 조율과 관찰을 통해 공동체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이다.

세 번째, 사람의 내재됨은 깊이 있는 관계 형성을 의미한다.

그는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먹고, 이야기하고, 생일을 함께 축하하며 관계를 지속한다. 이를 '지역적 친밀감(Local Intimacy)'이라 부르며, 예술가가 외부인이 아닌 공동체의 일부로서 존재하게 되는 과정을 중시한다. 그 과정에는 책임과 협상도 따른다. 아이들의 보호자, 지역 활동가,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협력하며 관계를 확장해 간다.

그의 예술은 때로는 무대 위에서, 때로는 골목과 놀이터에서 이루어진다. 예술은 그에게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즉, 예술은 목적이 아니라 관계와 변화의 매개이며, 사람을 향한 진정성 있는 실천이 그 핵심이다.

Chew Shaw En

Shaw is a performing artist and a maker who views the worl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ody. Through her art, she has consistently worked to connect people, spaces, and communities. She also serves as a facilitator of community-based art, exploring the role of art with a central focus on relationships with socially vulnerable or marginalized people.

Shaw's main collaborators are children, especially those from vulnerable or disadvantaged families. She calls them "hidden children" and pays attention to the voices of those who are socially "invisible." For her, "invisibility" is not simply absence but a precursor to disappearing, and through art she puts into practice the process of revealing their existence and restoring relationships.

Her work is built on three main pillars: the embeddedness of place, practice, and people. First, the embeddedness of place means spending a long time together with one particular locality and gradually permeating into it. For example, in one Singapore neighborhood, she ran "Community Performance Night" at the same time and place every week for two and a half years, steadily building trust and relationships with the local residents. She says, "Even if the children didn't come, simply showing up at that same time and place was my true work." In other words, she views art's essence not as education, but as "placemaking" and "culture-making."

Second, the embeddedness of practice refers to deeply understanding the identity of the community and maintaining an attitude that respects their lives and context. She says, "Before an artist enters, they must first know whose place it is and what relationship networks are operating there."

In a project with children in a low-income neighborhood in Singapore, she discovered that the public space in that area had already become a living space for the elderly residents. So, she first engaged in conversations with them and worked together to create a place where the children could safely stay. In this way, her work is not a one-sided intervention, but a practice of helping the community bring about its own change through the careful tuning and observation of relationships.

Third, the embeddedness of people means forming deep relationships. She spends time together with community members—eating, talking, celebrating birthdays—and sustains those relationships. She calls this "local intimacy" and places great importance on the process by which the artist ceases to be an outsider and becomes part of the community. This process also involves responsibility and negotiation. She expands relationships by collaborating with the children's guardians, local activists, social workers, and others.

Her art sometimes takes place on stage, and sometimes in alleys and playgrounds. For her, ar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yet at the same time the least important thing." In other words, art is not an end in itself but a medium for relationships and change, and genuine, sincere practice directed toward people is its core.

희와래 (김나래, 이건희)

희와래는 커뮤니티 아트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기획, 교육, 그리고 공간 운영을 실천하는 예술 단체이다. 시각예술 작가 김나래와 이건희가 함께 이끄는 공동 창작팀으로, 서울에서 강화로 이주한 이후 지역의 삶과 예술을 연결하는 다양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2020년도 부터 이주 여성, 아프리카 가나 지역의 사회복지사, 그리고 강화의 돈대(燉臺) 등 사회 속에서 보이지 않던 존재와 장소를 주목하며 예술적 리서치와 커뮤니티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들의 목표는 지역의 역사와 생태, 인물과 환경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예술의 언어로 다시 해석하여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희와래의 예술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돌봄'이다. 이 돌봄은 단순히 도움을 주거나 수혜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함께 머물 수 있는 '틈'을 만드는 예술적 행위로 확장된다. 희와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발달장애인, 그리고 노년층 주민 등 다양한 이들과 만나며,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문화예술 교육과 창작에 녹여내고 있다. 그들의 예술 교육은 특정 매체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예술'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2023년부터는 강화의 부속섬 아차도에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노령화된 섬의 여성 주민들과 산책과 명상을 나누고, 논밭에서 함께 노동하며, 채집한 작물로 비건 요리를 만들어 나누는 등 예술을 '생활의 리듬'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자연의 순환과 인간의 일상이 분리되지 않는 삶의 방식이며, 예술이 그 안에서 다시 생명력을 얻는 순간이다.

희와래는 소멸과 생성의 순환적 관점에서 예술을 바라본다. 강화 돈대의 돌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나무와 텃밭이 생겨나는 풍경은 그들에게 예술이자 철학이다. 그들은 사라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라짐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예술은 언제나 '영(0)'에서 출발한다. 비어 있으되 가득한 그 원형의 공간은 새로운 관계와 호흡을 위한 토대이다.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누구나 잠시 머물며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곧 희와래의 예술적 가치이자 삶의 태도이다. 희와래는 예술을 통해 지역과 사람, 그리고 자연이 서로를 돌보고 이어지는 방식의 공동체를 꿈꾼다.

Heewarae (Kim Narae, Lee Gunhee)

Heewarae is an art collective that practices cultural and artistic planning, education, and space operation based on community art. It is a co-creation team led jointly by visual artists Kim Narae and Lee Gunhee. Since relocating from Seoul to Ganghwa Island, they have continued various experiments connecting local life with art.

Since 2020, they have focused on previously invisible presences and

places within society—such as migrant women, social workers from Ghana (Africa), and Ganghwa's dondae (墩臺, coastal defense forts)—conducting artistic research and community activities. Their goal is to uncover stories hidden within the region's history, ecology, people, and environment, reinterpret them through the language of art, and thereby create new networks of relationships.

In Heewarae's artistic practice, the most important keyword is "care". This care is not merely an act of offering help or providing benefits to others; it extends into an artistic practice of closely observing and understanding one another's lives, and creating "gaps" where people can stay together. Heewarae engages with a diverse range of people in the region—children and youth,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lderly residents, and more—infusing life directions and values into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and creative work. Their approach to art education is not centered on particular media; it is a process of practicing "relationship-centered art."

Since 2023, they have been carrying out a community art project on Achado, one of Ganghwa's smaller islands. In this project, they share walks and meditation with the aging women residents of the island, work together in the farms, gather harvested crops to prepare and share vegan meals, and more—practicing art as the "rhythm of daily life." What they have discovered through this process is a way of living in which the cycles of nature and everyday human existence are inseparable, and the precise moments when art regains vitality within that.

Heewarae views art through the cyclical perspective of disappearance and emergence. For them, the scene in which the stones of Ganghwa's dondae crumble and trees and vegetable gardens arise in their place is both art and philosophy. They do not fear disappearing; rather, they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life that blossom within the very process of disappearance.

Art always begins from “zero(0)”. That circular space—empty yet profoundly full—serves as the foundation for new relationships and new ways of breathing. Creating a space where anyone—human or non-human—can stay for a while and breathe. That, precisely, is Heewarae’s artistic value and their fundamental attitude toward life. Heewarae dreams of a community in which region, people, and nature mutually care for and sustain one another through art.

연리목

연리목은 인디 락밴드 ‘눈뜨고 코베인’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한 예술가이다. 무대에서의 생생한 에너지와 관객과의 호흡 속에서 음악의 본질적 즐거움을 발견하며 지난 20여 년간 여러 앨범을 발표해왔다.

그는 강화도에서 10년째 두 아이를 키우며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온 사람이다. 인구가 적고 고령화된 지역에서의 삶은 그에게 예술과 일상이 분리되지 않은 채 맞닿아 있음을 깨닫게 했다. 연리목에게 예술은 생존의 방식이자 일상의 기록이며, 동시에 지역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존재를 확인하는 언어이다.

그는 국악기와 밴드를 결합한 ‘타니모션’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과 현대의 감정을 연결하고, 현대무용·연극·거리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 음악을 작곡해왔다. 또한 2012년부터 영화 음악 작업을 시작해 상업영화, 독립영화, 사회적 주제를 다룬 작품 등 여러 스펙트럼의 사운드를 만들어냈다. 그는 “공연의 음악은 사라져서 아름답고, 영화의 음악은 남아서 아름답다”고 말하며, 덧없음과 지속성 사이의 균형을 음악으로 탐구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자신의 이름으로 솔로 작업을 시작했다. 최근 전시작 「회상의 회상」은 전화기를 매개로 관객의 기억과 음악이 교차하는 사운드 설치 프로젝트이다. 전시 공간 곳곳에 설치된 전화기를 통해, 관객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

고 또 듣는 행위를 통해 '개인적 청취의 공간'을 체험하게 된다. 이는 연리목 음악을 단순히 듣는 예술이 아니라 '경험하는 예술'로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그는 가족과 함께 거리 음악극단 '음악당 달다'를 운영하며, 움직이는 오브제와 라이브 음악이 결합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무대에는 두 딸도 함께 오르며, 가족의 일상과 예술이 하나의 무대로 이어진다.

연리목에게 음악은 시간의 예술이자, 사라짐 속에 머무는 예술이다. 그는 "음악은 들리는 순간만 존재하지만, 그 순간이 오래 남도록 노력하는 것이 예술가의 일"이라 말한다. 사라지되, 기억되는 음악. 그것이 그가 추구하는 예술의 형태이다.

Yonrimog

Yonrimog is an artist who began her music career with the indie rock band "Open your eyes Cobain." She has released multiple albums over the past 20 years while finding the intrinsic joy in music through the vibrant energy of the stage and her connection with the crowd.

She has been raising two children on Ganghwa Island for the past ten years while maintaining her identity as an artist. Living in a sparsely populated, aging region has led her to realize that art and daily life are not separate but connected. For Yonrimog, art is a means of survival, a record of everyday life, and at the same time a language through which she confirms her own existence and that of others within the local community.
Through her "TanEmotion" project, which combines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with a band, she connects the emotions of tradition and modernity. She has also composed stage music for a wide range of genres, including contemporary dance, theatre, and street performances. Since 2012, she has worked on film scores, creating music across a broad spectrum—from commercial films and

independent cinema to works dealing with social issues. Through music she explores the balance between ephemerality and permanence, saying “The music of live performance is beautiful because it disappears; the music of film is beautiful because it remains.”

Since 2023, she has begun working under her own name as a solo artist. Her recent exhibition work <Reminiscence of Reminiscence> is a sound installation project in which audience members’ memories and music intersect through the medium of telephones. Placed throughout the exhibition space, the telephones allow visitors to tell and listen to their own personal stories, experiencing a “space of personal listening.” This is Yonrimog’s attempt to expand music beyond something you just listen to—into “something you experience.”
She also runs the street music theatre group “umdalda” together with her family, presenting performances that combine moving objects with live music. Her two daughters join her on stage, blending family daily life and art into a single performance.

For Yonrimog, music is an art of time and an art that lingers within disappearance. She says, “Music exists only in the moment it is heard, but it is the artist’s job to try so that the moment remains for a long time.” Music that disappears yet remains in memory—that is the form of art she pursues.

리서치 RESEARCH



리서치 내용

리서치 일정

날짜	시간	일정
9/15(월)	15:00-17:00	싱가포르 & 이탈리아 팀 한국 도착!
	19:00	웰컴 디너 - 다같이 식사 @잠시섬 빌리지
9/16(화)	10:00-12:00	**[회의]** 리서치 내용 및 방법론 공유 회의 @잠시섬 빌리지
	14:00-18:00	**[커뮤니티]** 고려궁지 앞 윤슬 홈콘서트 / 금풍 양조장 / 왈순아지매
9/17(수)	09:00-16:00	**[평화]** 난정 평화학교 탐방 / 대룡시장 / 난정교회 김용헌 목사님
	19:00-21:00	피드백 대화 @잠시섬빌리지
9/18(목)	08:30-11:00	**[커뮤니티+자연]** 산들 갯들 갯벌 탐방
	11:00-16:00	**[강화 지형+역사]** 정족산 (전등사) 트레킹
	18:00	저녁 초대 @ 공간 그리고 (윤환의 홈)
9/19(금)	08:40-12:00	**[커뮤니티]** 산마을 고등학교 / 진동 파머컬처 / 바람언덕 공동체
	14:00-17:00	1주차 피드백 회의 - 리서치를 통해 발견한 것들에 대한 공유 @잠시섬 빌리지
	18:00-20:00	다같이 요리 & 식사
9/22(월)	09:00-18:00	강화도에 사는 사람과 시간 보내기
9/23(화)	6:30-15:30	**[자연]** 주문도 - 갯벌 , 조개캐기, 섬에 사는 사람들
	16:00-17:30	**[회의]** 아고라 준비 회의@잠시섬 빌리지
	18:00- 21:00	**[대화]** ○○의 섬 + 잠시섬 연극제 /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 살고 있는가? 예술이 만들어 내는 목소리@없는극장
9/24(수)	오전	개별 아고라 발표 준비 및 휴식
	오후	개별 리서치

9/25(목)	10:00-13:00	**[아고라]** The island of ⬡⬡_소멸의 담론 @강화 유유기지
	13:00-15:00	**[리셉션]** 네트워킹 파티@강화유유기지
	15:00-17:00	인터뷰 영상 촬영
9/26(금)	10:00-13:00	**[회의]** 피드백 회의
	오후	개별 리서치 / 인터뷰 영상 촬영
9/27(토)	종일	잠시섬 연극제 참관
9/28(일)	종일	잠시섬 연극제 참관

점점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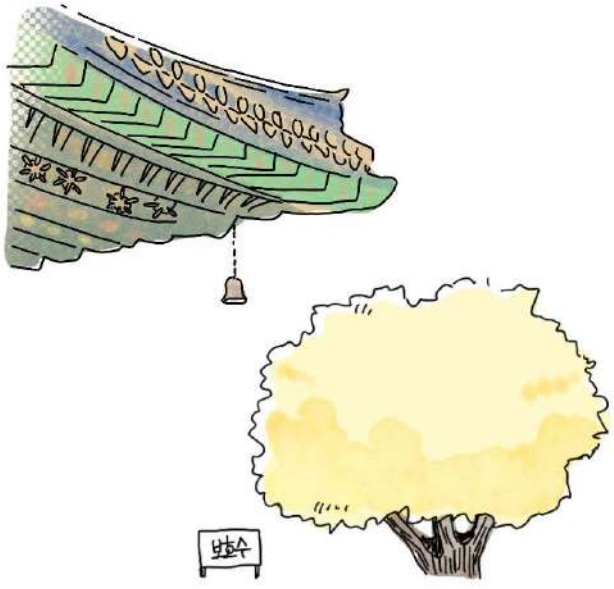


조용히 변하고,
사라져가는 것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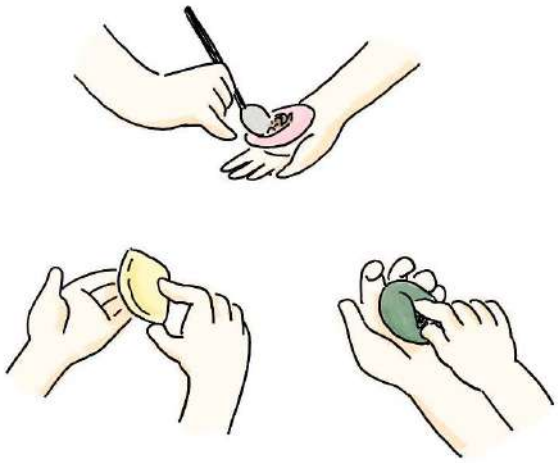




그것은 자연, 문화 유산 등
외부적인 것 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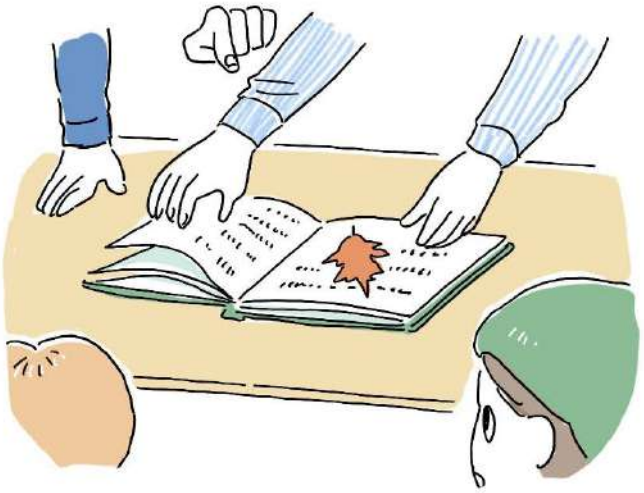
관계(커뮤니티)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사라지는 것들이 아쉬운 건,
그 안에 깃든 기억과 이야기도
소멸하기 때문이다.



여기, 소멸하는 것들에 굳이(?)
주목하기로 한 사람들이 있다.



나도 그 여정에
함께 해보기로 했다.



리서치 진행 기록들

이 기록들은 리서치의 여정 속에서 만난 분들과 나눈 대화, 방문한 장소, 그리고 체험의 순간들을 요약하거나 상세히 풀어낸 것이다.



고진현(윤슬) 홈콘서트

여행하며 음악을 만들고 현재는 강화도에 살며 노래 하는

싱어송 라이터

@gojin_go

갑작스레 쏟아진 비로 동네 산책 대신 조금 일찍 시작된 홈 콘서트는 강화읍 궁골길의 한 가정집에서 아늑하게 펼쳐졌다. 연주자 윤슬(고진현)은 자신이 머무는 집과 동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주한 생명들에 대한 이야기를 네 곡의 노래에

담아냈다.

첫 곡 '강화읍 궁골길'은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집과 지명을 그대로 담은 노래로 공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진 '688살 나무에게'는 마음이 힘든 날 몰래 담을 넘어가 위로를 얻곤 했던 수령 700년의 거대한 나무에 대한 고마움을 노래했다. 관객들이 던진 다섯 가지 단어(비, 햇살, 조용함, 순두부찌개, 친구)로 즉석에서 만든 '즉흥곡'과, 서로의 시야에 들어온 기쁨을 나누는 마지막 곡 '안녕(만녕)'을 다 함께 부르며 공연은 마무리되었다.

이어진 대화 시간에 윤슬은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공연을 여는 이유에 대해 "서로의 호흡이 느껴지는 연결감 때문"이라고 답했다. 무대 위에서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관객과 눈을 맞추며 편안한 에너지를 나누고 싶었다는 진심을 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자 마담과 파도는 단순히 아티스트와 관객의 관계를 넘어, 강화에 사는 친구를 소개해주고 연결해준다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가치를 덧붙였다.

강화에서의 삶과 '소멸'에 대한 깊이 있는 문답도 오갔다. 강화에 정착한 지 5년이 된 윤슬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없다면 강화는 그저 텅 빈 공간에 불과하다"며 곁을 지키는 동료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이 사라져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으나, 강화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비로소 나다운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최근 마을에 들어선 이질적인 아파트 단지나 좋아하던 나무가 잘려 나가는 풍경을 보며 소멸의 아픔을 느끼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다정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예쁜 노래'를 흔적으로 남기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공연을 마칠 즈음 윤슬은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히 풀어헤치고 널브러뜨릴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다정한 환대의 인사를 건넸다.





금풍 양조장

강화도에 있는 100년 양조장. 1931년도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건물로 근대 공장의 건축 양식이 보존되어 있음

instagram.com/on_sul/

베니스(금풍 양조장): 막걸리 소개 - 6.9도라는 막걸리는 1969년도에 인수를 해서 6.9도라는 도수의 막걸리를 만들었다. 원래 나오는 술은 15도 18도인데, 거기에 지하수를 타서 도수를 맞춰서 나오는데 여기 지역 이름이 온수리다. 따뜻할 온(溫)의 물 수(水) 자를 땄는데, 옛날에는 따뜻한 물이 흘렀고 깨끗한 물이었다라고 해서 지하수 물로 막걸리를 만들고 있다. 막걸리에서 쓰는 쌀은 강화쌀인데 무농약 쌀을 쓰고 있다.

이제 시음을 할 건데, 앞에 있는 잔은 24k 금잔으로 금풍의 금이어서 이제 금잔에 시음을 하고 있다. 우리 막걸리의 특징은 감미료가 안 들어 있다. 그래서 탄산이 없다. 다음은 9.6도, 13도가 있다. 막걸리는 따로 외부 판매를 하지 않는다. 마지막은 강화도에 인삼이 유명한데 6년 된 인삼 막걸리가 있다.

2층 양조실 소개

검은색 천 뒤에 큰 찜통이 있었다. 크기는 180이 넘는 나의 키만했다. 방금 올라온 2층 계단에 찐 쌀을 지게에 지고 올라와서 여기서 식히는 작업을 했다.

일제 강점기에는 쌀이 너무 귀해서 쌀 대신 밀가루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곳이 가장 빨리 식어서 바닥에 늘어놓고 식혔다. 식은 것을 밑으로 다시 내려 보냈고 항아리에 넣어 발효시켰다. 당시에는 효모를 키우는 곰팡이실도 있었다. 다 되면 다시 밀과 배합을 시켜 누룩을 만들었다. 그 뒤 3시간에 한번씩 관리를 했다. 그동안 관리자분들은 한 켠에서 의자만 놓고 쉬었다. 계속 관리를 해야 하니 왔다 갔다 하는데, 동선이 길어지니 바닥에 구멍을 내 사다리를 놓고 내려다니기도 했다. 재밌는 건 퇴근도 이런 식으로 동선을 짧게 해서 바로바로 했다고 한다.

그때 당시에는 막걸리를 병으로 구매했던 게 아니고 주전자를 들고와서 사갔다. 그때 썼던 바가지가 있다.



그때는 막걸리를 어른들이 사러 오지 않았다. 아이들이 심부름을 왔는데 그러면 꼭 막걸리를 한모금씩 먹여서 보냈다고 한다.

지금 막거리를 담던 항아리들은 다 전등사에 기증했다. 전등사에서 고추장, 된장을 보관한다고 한다. 하나가 돌아왔는데, 그 이유가 100년 동안 막걸리를 만들다

보니 항아리 입구쪽에 막걸리 균이 살짝 붙어 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곰팡이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못하게 막는다고 한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를 돌려받아서 막걸리를 다시 만들어서 판매해 보려고 한다. 그 당시에 곰팡이를 담아둔 병이 있는데, 이것도 한 50년 이상됐다. 잘 보면 안에 떠있는 곰팡이를 볼 수 있는데, 곰팡이를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겨서 복원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이 병을 우리나라에서 만들 장인이 없다. 왜냐하면 일본은 물려받아서 장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계화 사업을 하다보니 손으로 만드는 분이 없다. 그래서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

이거는 아마 5년 뒤에 나올 예정인데 그 이유는 여기가 100년이 넘었지만 건축물 재정상으로는 95년도밖에 안 됐다. 그러다보니 5년 뒤가 100주년이어서 그때 맞춰서 출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조장 중앙에 있는 기둥을 소개하려고 한다. 나무에 좋은 기운이 깃들어 있어서 만지면서 소원을 빈다.



Q&A

박지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 중이다.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지, 소멸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 중인데, 여기는 사실 사라진 것들을 다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 사라진 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어떠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 안에서 나눌 것 같다.

베니스: 우리 양조장은 막걸리를 많이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슈퍼마켓이라든지 마트에 파는 것보다 양조장에 사람들이 직접 와서 이 막걸리를 이 공간에서 어떠한 의미로 만드는지 보고 마셨을 때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기는 발효실인데 여기서 막걸리를 만들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오시는 분들한테 공간을 다 설명하고, 체험도 한다. 우리가 양조장만 하는 게 아니고 작년부터 '길상 워크'라고 해서 길상면에 있는 지역민들과 돌아다니면서 같이 밥도 먹고 활동하는 것을 같이 만들어 가고 있다.

처음에 대표가 이 동네에 왔을 때, 이 골목길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초등학생들도 맨날 버스 타고 학원으로 가고, 부모님도 맞벌이하느라 사람이 거의 안 보였다더라. 그랬는데 이제 양조장 생기면서 이 골목길이 조금 더 발달해 가는 모습들이 생겼고 이제 나들길처럼 길도 생기니까 지역 분들도 조금 더 좋아하시는 것 같다. 지금 커뮤니티센터도 생기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 지역분들도 뭔가 해보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 복합센터도 같이 얘기 나눠보고,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도 같이 생각하고 있다. 먹거리를 만들다보니,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도 생각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혼자선 못하니까 서울에 있는 가게들이랑 협업을 해서 개발하고 있다. 양조장을 찾아주는 분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재미있는 일을 많이 만들어 가고 싶다.

지오바니: 만약에 뭐든지 가능해지는 요술봉이 있어서 그걸 쓸 수 있다면, 하나 없애고 싶은 게 있는지?

베니스: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지금 요즘에 짓고 있는 아파트가 떠오른다.

박지선: 반대로 절대로 사라지지 말았으면 하는게 있다면? 이것만은 정말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었으면 하는 것.

베니스: 온수리를 좋아했던 이유가 여기 골목길이 좋아서였다. 옛날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점이 좋다. 예전에 청풍(강화 유니버스)에 있었을 때도 온수리를 조금 더 소개하고 싶었던 것도, 이곳은 골목길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골목길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주민들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헝루운: 강화의 인구가 더 증가하길 원하는지.

베니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인구가 느는 것보다는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그게 답인 것 같다. 사람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누군가 자본을 들고 와서 건물을 파괴하고 새로 짓는 게 청풍에서 일했을 때부터 봐왔던 것이다. 귀촌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지선: 강화를 타인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한국과 외국에서 처음 온 사람들이 있다. 강화를 어떻게 소개해주실 것인지.



베니스: 강화도에 살긴 하지만 서울도 가고, 인천도 자주 간다. 여행을 가는 느낌이다.
이제 서울에서는 못 살 것 같다. 도시에서 지하철을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이제 숨이 막힌다. 하지만 아직까지 강화도에 살러 오라고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인프라에서 스스로 먹고 사는 게 확실히 해결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농사짓는 분들도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여기서 자영업을 한다고 해도 매번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도에는 쉬러 오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내가 청풍을 그만두고 나갔을 때도 강화도에서 못 살 줄 알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도와줘서 양조장에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강화 안에서의 직업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



왈순아지매

왈순아지매는 역사의 고장, 청정 지역 강화도에서 깨끗한 물로 강화섬 콩나 물을 생산하고 지역 농민들이 키운 농산물로 각종 부각제품과 누룽지, 원물\수제차를 만들고 판매하고 있음.

https://walsun.kr/

갑작스러운 비로 마을 투어는 아쉽게 무산되었지만, 마을의 '막내'를 자처하는 최월숙 님의 환대로 따뜻한 실내 모임이 시작되었다. 70년대 신문의 활기찬 주

인공 이름을 딴 '왈순아지매'라는 별명처럼, 그녀는 특유의 에너지를 담아 강화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녀가 사는 마을은 북한과 불과 1.4km 떨어진 접경지역이다. 과거 뱃길이 열렸을 때는 서울 마포나루까지 30분이면 닿던, 새로운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오던 곳이었다. 외부인들은 남북 관계의 긴장을 묻곤 하지만, 정작 이곳 주민들에게 북녘 바다는 그저 일상의 풍경일 뿐이다. 그녀는 "정치적 적대감보다는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 같은 감각"이라며, 분단의 긴장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적막함'이라고 말한다.

농경 사회에서 비 오는 날은 쉬는 날이다. 기름이 귀하던 시절, 돼지비계 기름에 전을 부치면 그 냄새를 맡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곤 했다. 그녀는 김치전과 파전을 부치며 우리 농촌의 '함께 나누는 위로'를 소개했다.

마을의 평균 연령은 80대, 18년 전 그녀의 막내아들이 태어난 이후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마을에서 그녀는 새로운 고민을 시작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우울증과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약은 '일자리'와 '모임'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그녀는 50세가 넘으며 끊긴 고용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을 창업했다. 5천 원짜리 호박을 가공해 5만 원의 가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인건비, 그것이 바로 어르신들이 화장하지 않고 터벅터벅 걸어 나와 얻



을 수 있는 '삶으로서의 노동'이었다.

최근 그녀의 고민은 '자행화타(自行化他)', 즉 나를 돌보는 것과 남을 돌보는 것 사이의 균형이다. 사회적 미션을 수행하는 경영자의 삶이 늘 행복한 것은 아니기에, 그녀는 이제 돈을 버는 일보다 지역사회 안에서 소소하게 행복을 나누는 소모임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

특히 그녀는 모든 지원이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는 시스템에 의문을 던진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스스로 노는 법을 잊어버린 사회에서 '개인의 자율권'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국가의 예산이 프로그램이 아닌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길 바라는 마음도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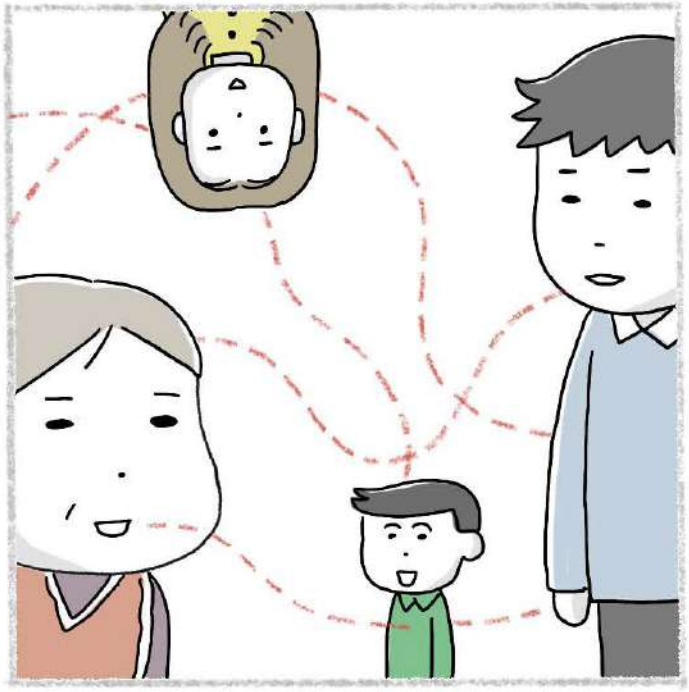
18세의 최월숙은 부모님의 기대대로 변호사가 되어 수직으로 성공하는 삶을 꿈꿨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앞뒤 안 보고 달리는 깍쟁이 대신, 주변을 살피며 걷는 분주한 사람이 되었다"고 웃어 보인다. 법대 대신 정치학과를 선택했고, 야망 대신 세상사에 대한 다정한 관심을 선택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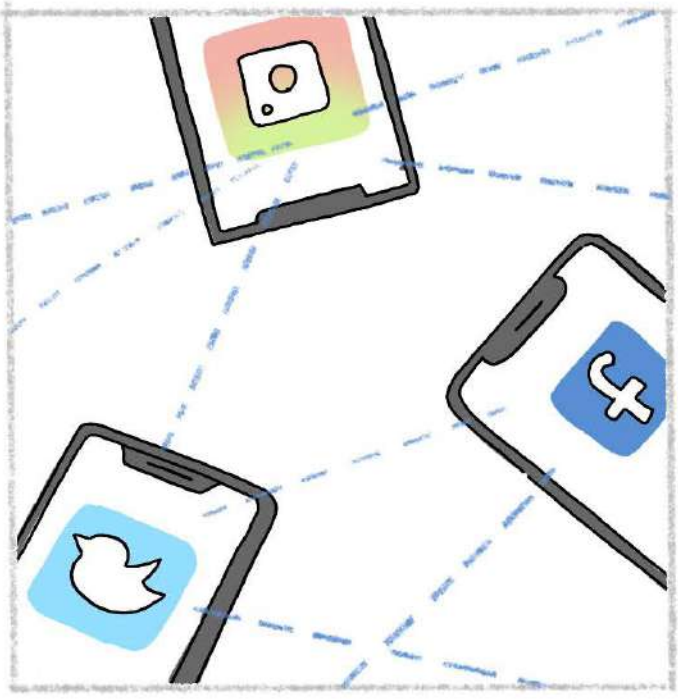
그녀는 콩나물이 서로 모여 있어야 체온을 유지하며 잘 자라듯, 사람도 옆 사람을 끌어안고 같이 가야 목적지에 닿을 수 있다는 지혜를 농사를 통해 배웠다. 전문직을 그만두고 농촌으로 내려온 25년 전의 용기가 지금의 자신을 성장시켰다고 믿는다. 이제 그녀는 마을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가며, 바른 마음(정심), 부지런한 움직임(정동), 좋은 음식(정식)을 챙기는 운동을 꿈꾼다. 언젠가 해안가를 핫팬츠 입고 달리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그녀의 삶은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향해 열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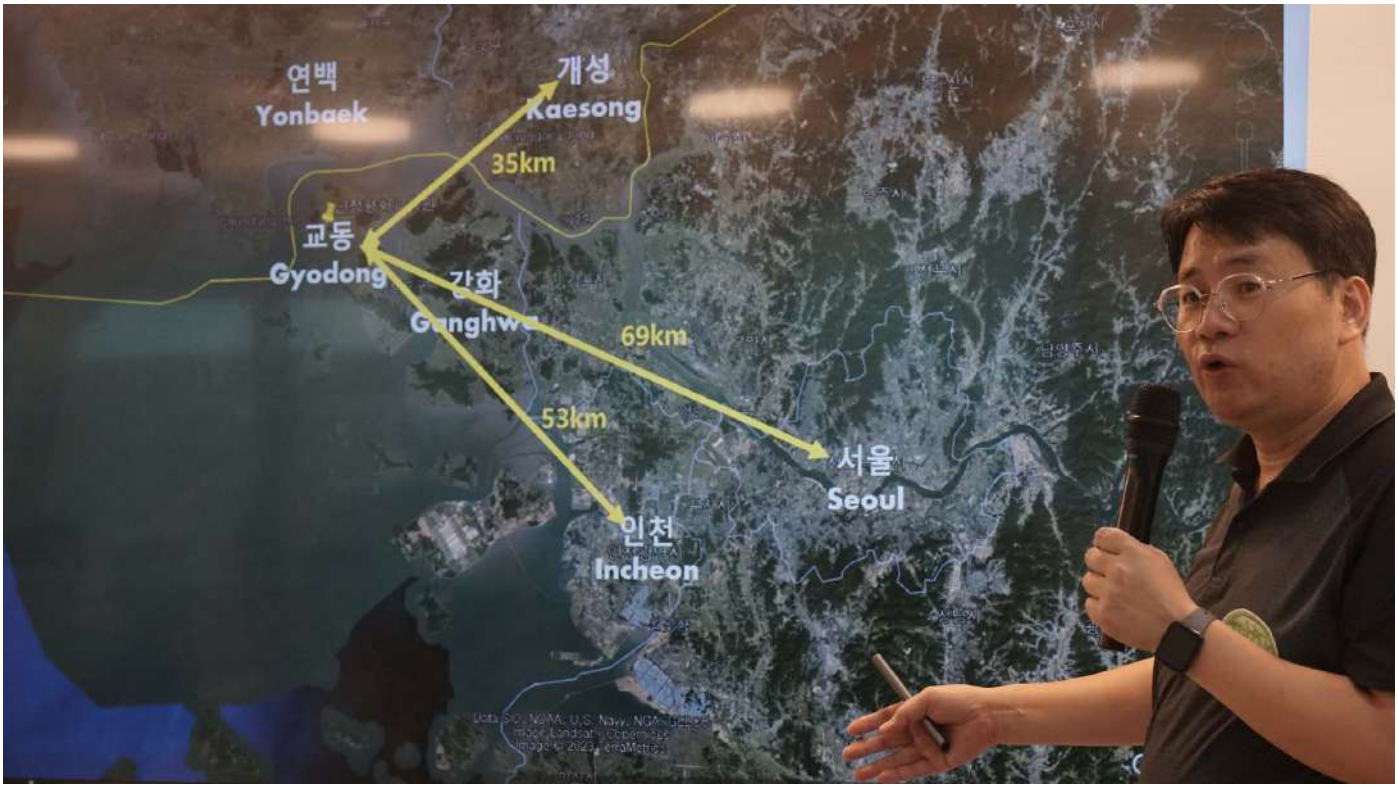

그때 그!
추억의 부침개전
배송
완료











난정 평화학교

난정 평화교육원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학생 교육과 시민 교육을 위해서 만든 평화 교육 전문 기관. 북한과 맞닿아 있는 최전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폐교된 초등학교를 이용해서 평화 교육을 하도록 만들어졌음. 이곳에서 다루는 평화는 분단과 통일이라는 이것에 국한하지 않고 나로부터 시작된 내면의 평화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내의 평화 비폭력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는 평화임.

https://ice.go.kr/peace

담당자: 참 귀한 분들이 오셨다. 정치적인 문제이든, 국제적인 이야기든 이것을 예술로 표현하면 훨씬 더 감동적이고 잘 와닿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평화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느끼고 깨달아가면서 깨우쳐가는 그런 과정의 평화 교육을 진행 중이다.

가르치지 않는 평화, 공감하는 평화, 느끼는 평화다. 우리는 평화 감수성, 내 주변에서부터 실천하는 그런 평화 시민을 만드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다. 아무쪼록 여기 아주 특별한 곳에 오셨으니 내면에 마음 챙김, 평화부터 한국이 가진 특수한 부분도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교동도라는 섬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교동도 소개를 지도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남한과 북한을 가르는 분단선이 있는데, 지도로 보면, 난정 평화교육원이 있는 교동도가 정말 북한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린 학생들은 진짜로 우리가 북한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깜짝 놀라기도 한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위치상 남한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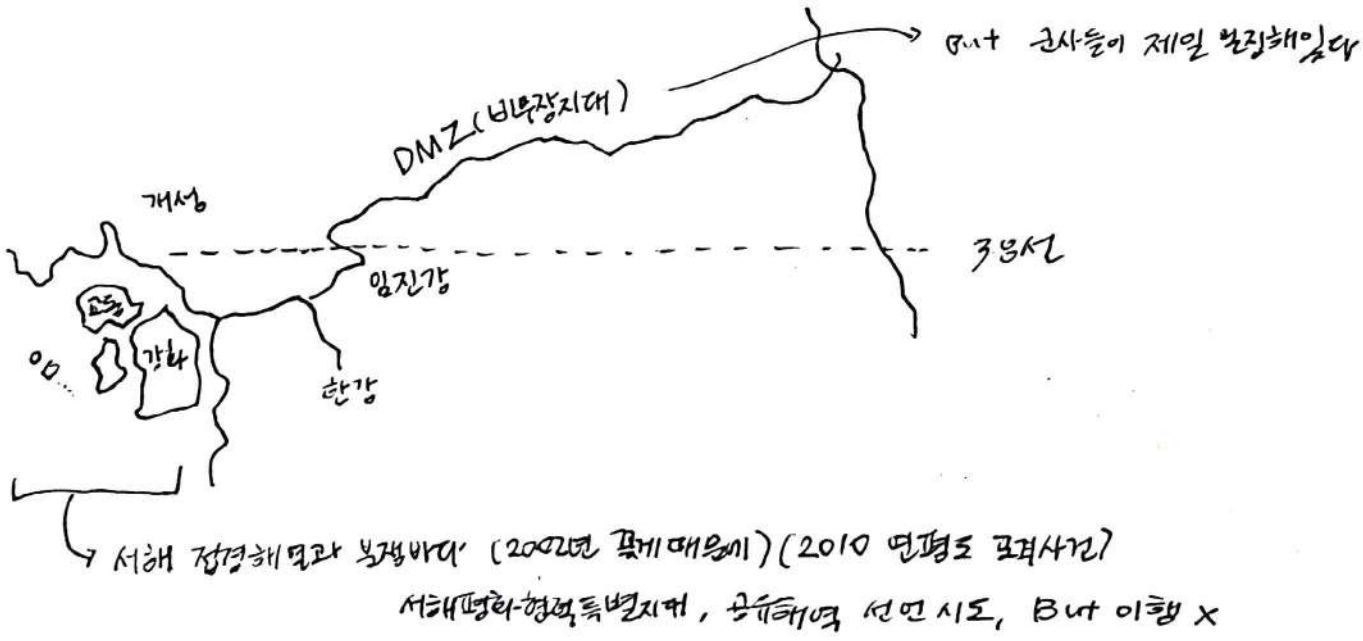
북한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마치 북한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거리를 한번 재어보면 서울에서 이곳 교동도까지는 69km다. 그리고 인천 시내부터는 53km다.

지금은 북한 땅인 고려시대 수도인 개성은 3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황해도 연백도가 교동도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 땅인데 과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 가장 가까운 곳은 2.6km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을 중심으로 거리를 비교하면, 황해도 연백은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북한 땅이다.

이렇게 교동도와 연백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치러진 한국전쟁 당시에 연백에 있던 3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교동으로 피난을 왔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다시 고향 땅 황해도 연백으로는 돌아가지 못했다.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이번에 한국에 머무르면서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내길 바라지만, 아직 한국에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 하나쯤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전시관 이동하며 해설)

이곳은 '나'로부터 시작된 우리 모두의 평화를 보여주고 있다. 나의 평화도 소중하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평화로 나아가길 바란다.

(남북 해안 경계 지도를 가리키며) 이 지도는 남한과 북한의 경계를 표시해 놓고 있다. 진한 청록색 선은 1953년에 그어진 휴전선이다. 휴전선에서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 전체가 비무장지대로 설정되어있다. 서쪽에서 동쪽까지 250km 정도가 되고 남쪽에서 북쪽까지 4km이다. 이 비무장지대의 면적은 서울의 1.5배가 되는 넓은 지역이다. 이곳은 남한도 북한도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름은 비무장지대라고 되어 있지만 전 세계에서 군대 시설이 가장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그 다음 이 파란색 지역에 대해서 말하자면 파란색 지역은 한강 하구 중립수역이라 부른다.

교동과 강화군은 북한 땅 개성으로 연결되는 예성강, 한국의 수도인 서울로 연결되는 한강, 남한과 북한을 가로지르는 임진강 세 강이 서해와 만나는 곳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분단되기 이전에는 교동과 강화도 근처에 수많은 배들이 북한 땅 개성으로, 서울로,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많은 배들이 교동과 강화를 지나다녔다. 실제로 서울에서 교동도까지 하루에 배가 한 번 다녔는데, 그 배는 서울에 있는 마포에서 출발해서 교동까지 왔었다고 한다. 그 배의 이름이 한강선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지역에는 그 어느 배도 다닐 수가 없다. 이름은 중립 수역이지만 남한도, 북한도 다닐 수 없는 막힌 공간이 되었다.

조금 전 교동도의 평화로운 일상을 담은 영상을 봤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교동과 강화의 진정한 평화는 다시 이 파란색 지역에 수많은 배가 다닐 수 있는 날에 올 것이다. 그 배를 타고 교동에 있는 사람들이 황해도 연백 고향에 가서 가족을 만나는 것이 교동과 강화의 진정한 평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남북은 휴전 협정을 체결하였지만 바다의 경계선은 합의하지 않았다. 한국은 이 파란색 선을 남북한 사이에 바다 경계선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파란색을 주장하는 근거는 서해에 있는 5개의 섬과 북한 사이에 선을 그은 것이다. 북한은 빨간색 선을 남북한의 바다상의 경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근거는 북한 땅 황해도와 한국땅인 경기도의 가운데 선을 긋고

그 사이에 한국이 갖고 있는 5개의 섬이 포함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해 주는 선이다.

한국이 주장하는 파란색 선과 북한이 주장하는 빨간색 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최근에 무수히 많은 전투가 벌어졌다.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희생되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희생을 막기 위해서 남북한이 노력을 하기도 했다. 서해상에서 남북이 더 이상 바다의 경계를 두고 싸우지 않고 그 공간을 남북이 공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했던 노력들이 있었다.

2007년과 2018년에 남북한 정상들이 만나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라고 하는 것을 합의했었다.

이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가 이행이 되었더라면 서해와 한강 하구는 많이 평화로워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합의가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강 하구와 서해는 평화가 완전히 실현되고 있지는 않다.

여기는 몇 가지 기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강 하구에서 평화적으로 남북이 협력한 사례를 알려드리겠다.



'1997년 유도 황소 뭍으로 구출'이라는 신문 기사다. 유도는 강화도와 북한 사이에 있는 작은 섬으로 무인도다. 그런데 1996년에 홍수가 나서 유도에 소가 한 마리 떠내려왔다. 그 섬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동물들이 살지 않았는데, 한국 해

병들이 지켜봤더니 뭔가 움직이는 물체가 있었다.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소가 있었던 것이다. 작은 섬에다 무인도이기 때문에 소가 굶어 죽을 위기였다. 한국 해병이 가서 구출하고 싶었는데 해병대가 가서 구출을 하려고 하다가는 북한에서 총을 쏴서 전투가 벌어져 군인들이 희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상하지 않고 저 소를 구출할 수 있을까 6개월을 고민했다고 한다.

결국에 우리 군이 북한에다 연락을 해서 유도에 소를 구출하러 가는 거니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고, 북한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6개월 만에 해병대가 와서 소를 구출하는 장면이 사진이 있다. 유도에 소를 구출하러 갔더니 황소였다. 소의 이름을 통일의 소로 지었는데, 이 소식을 저 멀리 제주도에서 듣고 암소 한 마리를 보내줬다. 그 암소의 이름을 평화의 소로 지었고 이 둘이 결혼해서 7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처음으로 태어난 새끼 소의 이름을 평화 통일의 소라고 지었다.

한강 하구와 서해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협력을 했던 재미있는 사례이다.



이곳은 인천과 강화, 교동이 지금은 북한 땅인 개성과 과거에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 살펴보면서, 다시 평화가 온다면 개성으로 여행을 가보자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과거 인천 학생들은 개성으로 수학여행을 가서 개성 박물관 앞에서 촬영한 기념 사진을 찍기도 했다. 반대로 개성에 있는 학생 40명이 강화도에 여행을 왔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도 볼 수 있다. 수많은 기사를 통해 인천 강화와 개성이 과거에는 많은 교류를 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예전에는 인천에서 개성으로 갈 때 기차를 타고 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인천에서 개성으로 기차를 타고 갈 때는 인천에서 서울을 들렀다가 서울에서 개성으로 가는 기차를 탔었다.

1954년도 개성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면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의 사진인데도 자세히 보면 기와가 그대로 남아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서울에 있는 북촌 서촌보다 기와가 잘 남아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한국전쟁 당시 서울과 평양은 대개 파괴되었지만 개성은 원래 모습을 거의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 전쟁을 끝내기 위한 회담을 개성에서 했기 때문. 회담을 개성에서 하면서 개성에서는 전투를 하지 말자라고 약속했다. 개성이 이렇게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곳에서 남북이 만나서 대화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얼마나 폭력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인지 느낀다.

전쟁을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에는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음은 한국과 교동의 자연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새 소리와 나무의 촉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나무 토막, 씨앗과 생명체의 모습이 담긴 그림을 전시해두었다.



난정 교회 김용헌 목사

강화도 교동도에 위치한 교회로 1949년 설립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표방하고 있음.

김용헌: 식민지 지배와 해방의 기쁨도 잠시 남북의 분단과 전쟁이라는 격랑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죽음과 파괴의 크나큰 고통을 받았다. 강화와 교동지역 역시 당시 격랑의 한복판에서 깊은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때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아파하고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민통선 안에 있는 교동도는 한국전쟁 시기 휴전선에 근접한 남과 북의 경계선에 놓여있었고(전쟁 전까지 개성을 포함한 3.8선 이남은 남한이었다), 제주도의 4.3이 그러하듯 고립된 섬이라고 하는 지리적 조건이 인구 대비 여느 지역보다 많은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진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민간인 학살은 남과 북, 좌우익 간의 극심한 이념 대립과 충돌이 빚은 참사다. 해방 이후 소련과 미군이 3.8선으로 남북을 가르고 신탁통치를 합의하자 이에 반대하는 반탁운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남한만의 총선거와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결국 남북 모두 정부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로 인해 해방 이후 좌우익 세력 간의 경쟁은 대립으로 이어졌고, 특히 미국을 등에 업고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 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삼으면서 이념 대립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이념 대립과 갈등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전쟁까지 불러왔다. 전쟁 기간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의한 민간인의 학살이 자행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냉전과 극심한 이념 대립에 의한 적대 감정 때문임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교동의 사례가 그것을 증명한다.

해방 후 양갑리를 '교동의 모스크바'라고 불릴 정도로 교동 안에도 사회주의 상을 갖고 좌익 활동을 했던 분들이 있었다. 분단 이후 좌우익 간 대립이 극심했던 시절에도 교동에는 별다른 출동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고 인민군이 남하했을 때, 김포, 강화까지 인민군이 들어왔고 강화도에서도 이내 떠났다고 한다. 그리고 교동에는 인민군이 아예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서 조사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교동에서만 183명, 강화 전체적으로 430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조사 됐다.(미신고 희생자를 포함하면 천명 이상으로 보고 있음) 군경에 의한 가해도 있었지만 군경의 묵인하에 북에서 피난 내려온 우익 세력에 의한 학살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조강(한강하구에서 교동과 연안 사이 바다)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교동과 연안 사람들은 분단 전까지만 해도 장날 물건을 팔거나 일하러 서로 왕래하며 가깝게 지냈다. 전쟁이 나고 나서 연백, 개성은 물론 황해도에서 피난 온 사람들 가운데 많은 피난민이 교동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서북청년단과 같은 북한 체제와 공산주의에 반대하여 피난(도망)온 우익 세력도 있었다. 문제는 이들이었다. 이들의 철저한 냉전 반공의식에 기반한 적대 감정은 스스로를 미치게 만들어 많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게 했다.

이 우익 세력이 교동과 강화로 들어와 처음에는 치안대라는 것을 만들어 해안 경계를 위한 보초를 서고, 왕래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일을 했다. 나중에는 군인들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아 '강화향토방위 특공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활동하면서 거의 경찰에 준하는 행세를 하였다. 이렇듯 군경이 이들의 활동을 묵인 방조하면서, 나아가서는 무기도 지원받으면서, 이들의 활동은 더욱 과감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했다. 좌익 활동(인민위원회, 농민동맹위원회)을 하다가 월북한 자와 이들에게 부역한 자들을 색출한다고 그 가족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심지어 강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렇게 일개 민간조직인 특공대는 부역자 색출을 명분으로 초법적인 권력 행사를 하다가 집단 학살이라는 만행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명백한 범죄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전에 '진실화해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동에서만 공식적으로 183명이 희생이 희생되었는데, 그중에 15세 미만 어린이가 61명, 노인과 여성이 80여 명으로 3분의 2가 노인과 여성, 어린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교동에는 모두 12개 리와 여러 마을이 있는데, 마을마다 민간인 학살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고구리에서는 향토방위 특공대원이 민가에 들어가 인민군이라며 도와달라고 속이고, 이에 협조적으로 나오자 부역자로 몰아 죽인 사건도 있었다. 당시 향토방위 특공대는 14살부터 16살 사이에 소년들을 모집하여 소년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경계와 거동 수상자를 신고하게 했다. 난정리에서 있었던 사건은 소년단 활동을 했던 분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다. 난정리 조00이라는 분과 황00, 황00 세 가족이 인민군에게 부역했다는 이유로 특공대는 세 사람과 그의 가족 18명을 난정리 해안가 갯벌로 끌고 가 총으로 다 쏴 죽였다. 주로 해안가 갯벌에서 죽이는 이유는 시신이 바닷물에 쓸려나가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중 한 소녀가 다행히 살아서 소년단이 경계서는 초소로 올라왔고, 겁에 질린 한 소년단원은 특공대에 알렸다. 특공대는 '재수가 없다.'라며 이 살아남은 여자아이의 목에 새끼줄을 감아서 다시 갯벌로 데리고 가서 죽였다고 한다.

이후 9월 29일, 인천 상륙 작전으로 국군이 들어오면서 인민군이 물러가고, 일사후퇴 때에는 다시 인민군이 들어오면서 교동과 강화는 더 많은 민간인 학살 피해가 있었다.

민재원: 교동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섬인 것 같은데 가해자와 피해자, 이후 세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김용헌: 그 후손들이 아직 같은 마을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자기 윗세대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나 사적인 자리에서도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념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정체 또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그 후손들은 좀 꺼려한다.
가해자들은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소년단 활동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강화군에서 발간한 게 있다. 그분들의 이야기, 향토방위 활동했고 소년단 활동하고 한국전쟁 시기에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여전히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를 위해서 잘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서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박지선: 올해 4.3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놀라웠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는 진상조사들을 이제 계속 해나가고 있다. 근데 특히 여성이거나 아이 희생자들은 피해자들 이름조차 몰라서 그냥 아무개의 아이, 아들 아니면 누구의 처 이런 식으로 불린다. 돌아가셔서도 이름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다 계시더라.
그래서 여기는 희생자들의 진상 조사나 아니면 그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희생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름이라도 알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다.

김용헌: '진실화해 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름들은 거의 다 확실하게 확인이 됐다. 그러나 이제 민간인 조사에서 확인된 것은 한 223명 정도, 그러니까 조금 더 많게 추정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행방불명된 자들이 많다. 미확인 행불자들까지 포함하면 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이제 월북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대로 조사하게 되면 희생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추측한다.

김보람: 교동도가 예전에는 강화보다 오히려 이북 쪽이랑 가깝다고 하셨는데, 내려 오신 분들은 여기에 와서 어떤 걸 주로 했는지 궁금하다.

김용헌: 어떤 교류를 했냐하면 장날 여기 있는 물건 가지고 연백 가서 연백장 가서 팔고 연백에서 또 가지고 내려와 여기서 와서 팔기도 했다. 여기 분들은 일하러 강화로 안 나갔다. 강화가 더 멀었기 때문.
여기서 배 타고 바로 한 2~3km 건너면 연백이다. 가서 일할 거리가 있으면 하고, 농사도 돕고 그랬다. 분단되기 전까지.

김보람: 주로 농사를 지었나.

김용헌: 맞다. 연백도 주로 벼농사를 하고 몇 퍼센트까지인지 모르지만 상당한 양의 쌀 생산지가 바로 이 연안, 평양 이쪽이다. 그리고 그 위에 큰 호수가 있다. 그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저수 시설인데, 그때부터 연안 쪽으로는 평야가 아주 넓어서 곡창지대로 유명했던 곳이다.
장인 어른의 이야기에 따르면 연백, 연안쪽이 농사가 아주 유명한 지역이라고, 일제시대 때 거기에 저수 시설을 크게 만들어 놓고 수리 관계, 농사짓도록 물을 대는 그 수리 시설도 일제시대 때 다 만들어 놨다고 한다. 그만큼 북쪽이 오히려 농사 짓기는 더 편했다고, 그 북의 수리 시설, 물을 강화까지 끌어오는 계획도 있었었다고 하는데, 이제 분단이 되면서 무산되었다고 한다.

박지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리서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소멸도 있고, 이 외에 어떤 환경적인 것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지 않나.

여러번 교동에 오며 대룡시장을 가봤는데 무언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남북한의 관계가 너무 소비되어 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의 평화를 생각하고, 실향민들에 대한 생각을 할까?라는 질문이 든다.

목사님도 교동이 많이 변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떤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지, 사라지는 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전히 어딘가에는 있다라는 게 있다면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김용헌: 한국전쟁 시기 실향민들의 삶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대룡시장이 유일할 텐데 이미 많이 변해버렸고, 생존해 계신 어르신들도 거의 안 계신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리고 그 이야기와 삶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구술 형식으로 자서전이라도 대필해서 쓰자고 주변 분들에게 제안을 했었다. 교인들 중에도 실향민 분들이 계시니까 길게는 아니더라도 짧은 자서전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좀 제안을 했는데 다들 힘들어하다 보니 접어버리고 말았다.

우리 교회에 계셨던,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 권사님도 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었다. 북에서 결혼을 하셨는데, 자식도 있었다. 딸도 있고 뱃속 아이도 있고. 근데 전쟁이 나고 남편이 인민군에게 죽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라도 살아야 된다고 내려가라고 해서 교동으로 오셨다.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에 계신 시부모님은 들어오라고 재촉을 했다더라. 왜 그러냐면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으니, 그러니까 피붙이가 있어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계신 또 다른 권사님은 넌 가면 죽는다. 절대 가지 마라 붙잡아서 결국은 여기에서 눌러사시게 되었다.

그때부터 뱃속의 아이도 혼자 낳아서 키우고 그분의 이야기를 구술로 풀었으면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데리고 나왔던 그 딸이

물강이라고, 옛날에는 논에 물 대는 작은 연못 같은 것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놀다가 빠져 죽었다. 유일하게 뱃속에 아이 하나만 키우게 됐는데 그러시다가 이제 몇 년 전에 99세에 돌아가셨다.

교동에 '여기에서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그분들의 무덤이 있다.'라는 표지판이 하나 세워진 곳이 있긴 하다. 그게 유일한 흔적이다.

근데 그것도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일부러 가지 않는 이상은 찾기도 힘들고 찾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기억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추모의 공간과 기념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일을 주체적으로 하실 분들(민간인 희생자 후손들)이 나서야 교회도 도울 수 있을 텐데 그럴 만한 분들이 안 계셔서 그게 조금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다.





산마을고등학교

자연, 평화, 상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인가형 대안학교로 3년 동안 배움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성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https://sanmaeul.icehs.kr/main.do

호건: 산마을고등학교 학생 호건이라고 한다. 오늘 학교 소개를 맡았다. 학생들이 생활 수업하는 공간을 소개하려 한다. 학생들이 즐겁게 데크에서 놀거나 쉴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다. 학년 교실을 두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오늘은 3학년 교실을 구경하려고 한다.

여기가 교실이고 학교 건물 전반적으로 순환 가능한 친환경적인 재료들로 지어져있다. 여기 있는 벽은 다 흙벽, 안에 돌이나 지푸라기를 섞어 만든 벽이다. 학교 철학이 '자연. 평화. 상생'이라서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지어진 건물이다.

난방이나 냉방도 지열 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다. 밑에 있는 지열을 끌어다 냉방을 하고 난방하는데 쓴다.

그리고 우리 학교 수업은 시간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일반적인 대한민국 학

교와 같은 일반 교과들도 있다.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것도 다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만의 특별한 수업인 대안 교과들이 몇 개 있는데, 삶과 철학 시간에는 철학에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준비한 수업을 하고, 문화 비평 때는 대중 문화나 학생 노동 인권에 대해 배운다. 창작 활동 시간에는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안학교이긴 하지만 인문계 학교들처럼 대학을 가기 때문에 대학에 관한 것이 있다. 3학년 교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자유분방하게 생각을 하기도 한다. 자유로운 활동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악기들을 사용해서 풍물을 하기도 하고, 수어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수어를 다 같이 공부하기도 한다.

학교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농사 동아리에서 활동하기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산마을고등학교 학생들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을 하기 위해서 서로 반마다 약속문이 다 따로 있고, 전체 공동체 약속문도 있다.

우리는 학생들마다 개인 텃밭이 있다. 수업으로 텃밭 활동도 하고 있다.

여기는 화장실인데, 화장실 중에서도 특별한 화장실이 있어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 바로 생태 화장실이라고, 아까 교실에서 말했듯이 자연과 평화, 자연과 순환시켜서 생활을 하는데 그 이론의 하나다. 화장실 볼일을 보고 그걸 이제 퇴비에 넣어서 같이 퇴비 작업을 한다.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해서 농사할 때 그 퇴비를 뿌리고 농작물을 키우고 하는 작업들을 한다.

사용 방법은 볼 일을 보고 그 위에 톱밥을 안 보일 정도로 덮어 주면 된다.

준혁: 우리가 생태 화장실을 쓰는 이유는 농사를 해서 퇴비를 만들려는 목적도 있지만 수세식 변기를 쓰다 보면 낭비되는 물이 너무 많다. 근데 이 화장실을 사용하면 톱밥으로 대신 덮기 때문에 나중에 발효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물 낭비를 줄이는 목적이기도 하다.

송미선: 진짜 뱀이 많은가 보다. 여기저기 '뱀 조심이' 붙어 있다. 여기 바닥도 정말 예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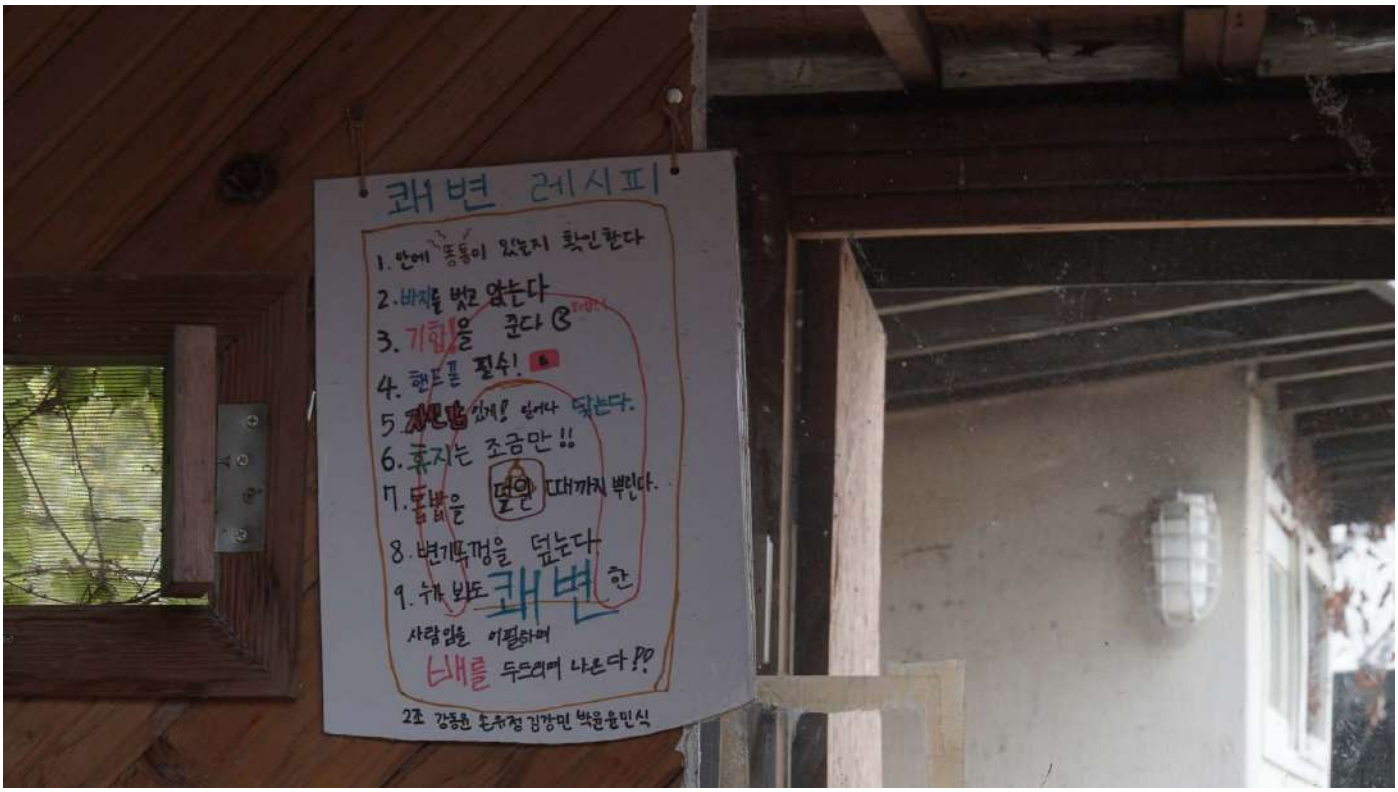
준혁: 바닥이 원래 그냥 벽돌 바닥이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새로 깔았다. 이쪽에 있는 부분이 우리 급식실이고 이따가 보겠지만 강당이 있는데 강당을 만들기 전에는 여기서 입학식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 공연도 했다.

보면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 아까 본 건 여자 생태 화장실이고, 저쪽은 남자 생태 화장실이다. 그런데 저쪽에 사건 사고가 좀 많아서 두 번 정도 새로 짓게 된 건물이다. 불이 났었다.

블루베리 나무는 다 죽었는데 오이만 살았다. 기운이 없다.

호건: 여기가 텃밭이고, 텃밭은 학년마다 나눠져 있고, 학교 공용 텃밭도 있다. 여름에는 감자, 토마토, 고추, 브로콜리 등등 작물들을 심고, 가을에는 배추, 열무, 무, 얼갈이 등 이제 김장에 필요한 채소들을 심는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공용 텃밭에서 나오는 배추로 김장을 직접 한다.

호건: 여기가 퇴비 공간이고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 잔반을 처리한다. 남은 잔반과 아까 생태 뒷간에서 나온 것들을 여기 퇴비장에 넣어서 톱밥과 함께 발효시킨다. 총 2년 동안 발효시키는 과정을 가진다.



준혁: 여기서 나온 퇴비들을 학기마다 텃밭으로 옮겨서 직접 뿌려서 사용을 하고 있고,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직접 수레를 끌고 와서 바닥에 엎기도 한다. 그다음에 누군가의 신발을 넣어서 장난치는 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그리고 원래는 퇴비만으로 영양분을 공급했는데, 밭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콩을 심었다. 콩들이 농사를 할 때 지력을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화학적인 것을 최대한 쓰지 않고 좀 더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호건: 이 닭장은 우리가 한 1~2년 동안 잘 관리를 안 하고 먹이만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동아리가 생겨서 닭 알을 부화시키거나 먹이를 주면서 계속 키우고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달걀로 우리가 직접 요리를 하거나 수업 때 쓰고 있다.

준혁: 이쪽은 생활 기술 공방이고, 뒤쪽으로는 아까 말한 학교 풍물 동아리의 악기 창고가 있다. 대장간도 있어서 철 공예 수업을 한다. 원래는 수업이 쭉 있었는데 5, 6년 동안 선생님이 없으셔서 가동을 못하다가 이번에 새롭게 선생님을 찾아서 다시 수업을 하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 직접 농사지어서 얻은 쌀을 저장해 놓은 쌀 창고도 있다. 도정기라고 쌀 겉에 있는 껍데기 껍질을 까는 기계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쌀을 깐다. 그걸로 밥도 해먹고 철새들 오면 철새들 밥도 준다.

호건: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자는 공간, 기숙사다. 총 5개의 동으로 나눠져 있고 2개는 여자 기숙사로 사용하고 3개는 남자 기숙사로 사용한다.
동에는 각각 이름이 있다. 별동, 삼동, 강동, 해동, 동 동. 그리고 여기도 건물이 흙과 황토와 나무로 지어서 벌레들과 함께 살고 있다.

호건: 우리는 샤워 용품이나 빨래 같은 경우는 최대한 화학 물품이 안 들어간 제품을 쓰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직접 만들어 쓴다. 비누도 학교 수업으로 만들고 빨래할 때 쓰는 세제도 우리가 최대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준혁: 기숙사가 맨바닥에 자다 보니까 직접 매트리스를 들고 와야 되는데, 온돌 난방을 하고 있다 보니,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덥다. 거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기숙사가 대체적으로 따뜻하다. 벽돌집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더 핫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

호건: 그리고 산마을에는 기숙사 청소 끝난 뒤에 한 40분 정도 선배들 아니면 친구들하고 산책하는 문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친목도 다지고 재미있게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속마음도 꺼내고 하는 시간을 가진다.



호건: 이 건물을 산마루간이라고 부르고 2층에는 큰 강당이 있다. 그리고 옆에 3~4개씩 교실 공간이 있는데 이제 공부하는 공간과 요리하는 공간 그리고 옷 만드는 공간이 있다. 과학실, 목공실도 있다.

안나: 여기서 친구들과 굉장히 자유롭고 즐거운 일이 많다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 대학에서나 사회에 나가서 하고 싶은 활동이 있는지 궁금하다.

준혁: 이제 졸업을 하는데 3학년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활동은 굉장히 적을 것 같다. 다른 곳에서도 분명 이런 활동들을 하는 공동체와 공간이 있겠지만 이런 걸 한 공간에서 3년 동안 함께 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친구들과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건 풍물패 활동과 옷 만들기 시간에 같이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 밖에 나가서도 다른 분들과도 즐기고 싶고, 기존에 있는 친구들과도 함께 하고 싶다.

박지선: 지금 소멸 관련 리서치를 하고 있다. 사라지는 것, 그래서 사라진다라는 건 뭘지 그리고 또 강화에서 사라지지 말았으면하는 게 있는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좋다.

준혁: 우선 먼저 대답을 하면 사라지고 있다는 게, 우리 학교를 예시로 들면, 세대가 내려갈 수록 학교의 가치 지향에 대한 인식을 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줄어드는 것 같다. 그런 것도 변화니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해하고 들어왔던 학교와 지금의 학교가 괴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사라지고 있는 게 안타까운 것 같다.
그 다음에 강화에서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건, 자연이다. 나는 초등학생 때 강화에 왔는데 그때와 주변 자연이 많이 달라졌다. 강화도가 전반적으로 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도 많고, 람사르 협약으로 생태 보호되고 있는 습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이제 오염이 되고, 갯벌도 계속 파손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운 것 같다. 물론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강화도는 인천에 얼마 없는 천혜의 자연 중에 하나라서 그걸 좀 지키고 싶다.

호건: 소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이 학교 오기 전에 학교를 다녔던 선배를 알고 있었다. 근데 그 선배한테 들었던 분위기와 내가 들어와서 직접 겪은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
느껴본 경험으로 세대별로 분위기가 달라서 문화나 이 학교에서 배우는 가치가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좀 소멸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 강화도에서 이어갔으면 하는 문화는 사실 마을 공동체가 계속 앞으로도 잘 이어가면 좋겠다.

지오바니: 만약 마법봉이 있어서 강화도에서 딱 하나를 없앨 수 있다면 어떤 걸 없애고 싶은지.

호건: 뭐든지 없앨 수 있는 마법봉이 있다면 이 건물(산마루간)을 없애면 어떨까 싶다. 왜냐하면 신축이다 보니까 저 건물만 다른 분위기를 내고 있기 때문에.

준혁: 아까 말했던 람사르 협약으로 보호되고 있는 매화마름이라는 멸종위기 식물이 자라고 있는 습지가 있는데, 거기에 옆에 사유지가 붙어 있다. 거기서 사용하는 오수를 매화마름 쪽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사유재산이지만 환경을 위해서 그 컨테이너를 좀 치워버리고 싶다.



진동 파머컬쳐

진강산마을협동조합으로 2016년 양도면의 네 학교(양도초, 조산초, 동광중, 산마을고) 학부모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상용 님은 16년 전, 폐교 위기에 처했던 양도초등학교에 두 아들을 전학시키며 강화와의 인연을 시작했다. 당시 전교생이 21명뿐이던 작은 학교는 “아름다운 작은 학교”를 꿈꾸던 한 교장 선생님의 헌신과 학부모들의 열정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상용 님은 학부모 대표로서 이주해 오는 가족들의 집을 구해주러 동네방네 발품을 팔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부모 연합체인 지금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현재 양도면에는 초·중·고 4개의 학교와 20여 개의 크고 작은 단체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단순히 교육에만 머물지 않고, 무너져 가는 지역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두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세시풍속’을 만들어가고 있다. 2월 대보름 놀이부터 4월 모종 장터, 6월 시마켓, 12월 송년 음악회까지, 이 축제들은 행정이 만들어준 틀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일궈낸 삶의 리듬이다.

공동체가 운영하는 거점 공간에는 무인 가게와 카페, 공방, 밴드 연습실이 있다. 특히 입금 확인조차 하지 않는 무인 가게와 한 달에 한 번 누구에게나 무료

로 따뜻한 밥을 대접하는 '청개구리 장터'는, 효율성보다 '신뢰와 연결'을 우선시하는 이들의 문화를 잘 보여준다.



상용 님이 생각하는 소멸은 행정 구역으로서의 마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주민이 늘어나도 서로가 서로를 '마을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도시의 삶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생기는 '관계의 소멸'이다. 사람들이 마트가 아닌 장터로 모여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팔기 위함이 아니라,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삶을 꾸려가는 '마을의 힘'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지오바니의 '마법봉' 질문에 상용 님은 이런 답변을 내놓았다.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소유에 대한 착각'을 지우고 싶다는 것이다. 내 핸드폰, 내 가족, 내 물건이라는 집착이 강할수록 인간관계는 닫히고 불행해진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무소유 공동체에서 살았던 경험은 그에게 '내 것'을 쥐고 있는 손을 느슨하게 만들고, 관계를 더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지혜를 주었다.

최근 공동체의 거점 공간이 매물로 나오면서 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상용 님은 의연하다. "형태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바뀌고 사라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상황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며 단체를 일구어 온 경험은 그에게 단단한 근육이 되었다.

그는 아이들이 느끼는 가치의 변화에 대해서도 “표면적인 트렌드일 뿐, 아이들 마음 깊은 곳의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며 세대 간의 이해를 강조했다. 무언가 사라진다고 해서 낙심하기보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양도면에서 10년을 버텨 온 공동체의 힘이자 상용 님이 견지하는 삶의 태도이다.



바람언덕 공동체 자람도서관

바람언덕 공동체는 열두 가구가 함께 사는 공동체 마을로, 마을 입구에 '자람도서관'이 있으며, 마을 사람들의 커뮤니티 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instagram.com/jaramlib_moya/

강화도 양도면의 '두 개의 심장'이자 아이디어 뱅크, 자람도서관의 전민성 님이 전하는 '환대와 연결' 그리고 '관찰의 힘'에 대한 기록이다. 결핍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마을 전체를 하나의 도서관으로 일궈낸 에너지가 담겨 있다.

강연의 시작을 알리는 신나는 파도타기 한 판으로 분위기가 달궈졌다. 전민성 님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즐기는 마음과 유머"라며, 정부 지원 없이 오직 가치에 동의하는 이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소란스러운 도서관'의 문을 열었다.

18년 전, 네 아이를 데리고 강화에 들어왔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낯선 이방인에 대한 텃세와 아무것도 없는 시골의 적막함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단절은 오히려 '더 깊이 들여다보고 애정을 가질 기회'였고, 결핍은 '우리 손으로 무언가 만들고 싶어지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PC방 대신 편의점이 유일한 낙이었던 아이들을 위해,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2012년 자람도서관을 세웠고, 이

는 곧 진강산 마을 보육 공동체의 뿌리가 되었다.

그녀가 정의하는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곳이 아닌 '환대의 공간'이다. 성별, 나이, 재력을 떠나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엄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사람과 마음, 꿈과 미래, 그리고 '사람 노릇'까지 이 모든 것들이 도서관 안에서 촘촘하게 연결될 때 비로소 재미난 마을이 만들어진다.

그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실패조차 그녀에게는 소중한 자산이다. 그녀는 "실패했더라도 함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마침표를 찍고 나면 그 실패는 상처가 아니라 "그때 우리 망했었지"라며 웃으며 추억할 수 있는 공동의 서사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철학은 2018년 시작된 공동체 주택 '바람언덕'으로 이어졌다. 도서관을 품은 마을, 마을을 품은 도서관을 지향하며 담장을 허물고 모든 이에게 공간을 개방한 결과, 재작년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그녀가 상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서로를 '봐주는 마음'이다.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상대의 빛나는 순간과 부족한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며 가장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마을의 진짜 힘이기 때문이다.

소멸에 대해 묻는 말에 그녀는 뜻밖의 대답을 들려주었다. "진정한 소멸은 제 할 바를 다하고 가장 빛나는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라며 소멸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만큼은 형태를 바꾸어(건축, 음식, 공연 등) 영원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마법봉이 있다면 무엇을 없애고 싶냐는 질문에 그녀는 "마법봉 그 자체를 없애고 싶다"고 답했다. 노력과 과정 없이 뚝딱 생겨나는 결과물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통찰이다. 실패하고 똥밭에 구르더라도 한 발 한 발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과정이 진짜 마법이라는 것이다.

마을의 아이들은 발달 단계에 따라 마을과 호흡한다. 유년기에는 엄마들이 선생님이 되어 공동 육아로 자연에서 놀고, 초등학생 때는 함께 노는 마음을, 중학생 때는 자신과 타인을 보는 마음을, 고등학생 때는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운다. 마을 어른들 또한 각자의 재능(영어, 우쿨렐레, 수채화 등)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된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는 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답게 즐기며 놀겠다는 그녀의 다짐은 빗소리를 뚫고 청중들에게 따뜻한 영감을 남겼다.



산들 갯들 '갯벌 탐방'

자연의 언어를 사람의 말로 강화 청년이 전하는 자연이야기

instagram.com/sangetdeul/

갯벌 해설 전문가인 나리 & 도라지와 함께 갯벌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였다.

나리: 갯벌이 축축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모래도 있고 갈대도 있고 자갈이 있고 바위가 있다. 이 서식지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보물찾기처럼 찾아보도록 하겠다. 갯벌 식물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작다.

대형저서동물은 몇미리 이상일까? 1mm, 1cm, 10cm? 1mm부터가 대형저서동물이다. 우리가 오늘 보는 생물들이 대형저서동물로 눈에 보이는 생물들을 다섯 개의 조로로 나누어서 탐험해보겠다. 먼저 모래 구슬의 여러개 있는 흔적 부터 찾아보도록 하겠다.

이후 큰 바위, 작은 바위, 모래, 갯벌 곳곳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을 직접 관찰하고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발이 푹푹 빠지는 공포 체험도 하면서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였다.



주문도 - 갯벌체험

바다해설사: 주문도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여기 지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썰물일때는 5km까지 물이 빠지고 물이 들어오면 갑자기 들어와서 안전을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갯벌 안에 들고, 여기가 세계

에서 다섯 번째로 큰 갯벌이다. 2021년도에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이곳에만 몇 만 종의 바다 생물이 살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이곳이 조상들의 먹거리를 책임졌다. 오늘도 갯벌 체험할 때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 자손을 위해 물려준다는 마음으로 잡아주기를 바란다. 이곳에 백합과 동죽이 있는데, 우리는 백합을 캘 예정이다. 동죽은 하얗게 생겼는데, 그건 잡지 마시고 까맣고 납작한한 조개를 잡으시면 된다. 그리고 조개만 잡지 마시고 바닥에 무슨 생물이 살고 있는지도 살펴보셔라. 이곳에는 앞으로 가는 개가 있는데, 밤톨만 해서 밤게하고 부른다.

이후 조개를 캐는 호미와 끄레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

이후 1시간 반 정도 팀을 짜서 백합을 열심히 채취하였고, 갯벌을 떠나하는 것을 아쉬워하였다.



참여 예술가 내용

앤드씨어터 (전윤환)

해무

강화도에서 해무를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해무가 짙게 깔린 날이면 코앞의 세상도 안보이게 된다.

어둠이 아닌 상태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

있지만 지워진 상태.

지워지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상태.

리서치 시간이 흐르고,

그 때를 생각하며,

글을 써 보려고 한다.

현재는 없지만 있었고,

있었지만 없는.

나는 그런 시간들을 좋아한다.

지나야 알게 된다.

리서치 기간에도

리서치가 끝난 이후에도

해무를 만나지는 못했다.

A.N.D.Theatre (Jeon Yunhwan)

#Sea Fog

It is not hard to come across sea fog on Ganghwa Island.

On days when the sea fog lies thick, even the world right in front of you becomes invisible.

It's not covered in darkness, yet it remains unseen.

It is there, yet feels as if it has been wiped away.

Nothing is erased, yet nothing is seen.

As the research time flowed by,

I try to put my thoughts into words,

reflecting on those moments.

What is gone now but once existed

What existed then but is gone now.

I am fond of such times.

You only realize it after it has passed.

During the research period,

And even after the research ended,

I did not come across sea fog.

지역 소멸



뉴스1

강화군 지난해 인구 6만9005명,10...

인천시 강화군 인구가 10년 만에 감소하면서 지역소멸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3일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는 총 6만9005명 ...



경인일보

입학생 0명 초교 4곳 무더기... 강화군 '인구 소멸위기' 경고등

北 소음공격 피해 송해면 송해초 작년 하반기 4명 입학 수요 파악 주민거주 여건 악화 등 영향인 듯 내년 내후년도 비슷한 상황 우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강화...

기억과 망각

기록과 침묵

가해와 피해



"무기도 처음 본 예쁠이 중공군 기습, 그땐 그랬어요"

Spark946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철간조선

강화특공대는 6·25 당시 중공군이 쳐들어오던 무렵 만들어졌다(1950년 12월 18일 창설). 강화특공대에 대한 내용은 강화문화원이 발간한 향토사료집(鄕土史料集) <강화사(江華史)>에 잘 나와있다. <강화사>는 몇 차례의 수정판(1976·1988·1994·2003)이 나왔다. 강화특공대의 공적(功績)사항은 1994년도 수정판까지만 나와있다.

그런데 2003년판 <新編 강화사>에는 정반대의 내용이 들어있다. '강화특공대의 활약상'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강화특공대의 민간인 집단 학살'이 들어간 것이다. 문헌상 '학살(虐殺)'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2003년판 <新編 강화사>가 처음이다. 아직 개정판이 나오지 않아 이 책이 현재 최종판이다.

지역N문화
Nculture Updated 04-10-2025 @ 12:23 GMT+09:00

강화사

민간인 학살



한국 숨통은 세월의 두께만큼 - 팩스24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 팩스24

[진실 그리고 화해 시즌2] 전쟁 속 잔혹한 희생 - 강화 교...
YouTube Updated 04-10-2025 @ 11:51 GMT+09:00

LeeSaWoo.net

한국전쟁과 민간인 연구자료 2006/01/08 1238

한국전쟁 이전의 강화도 좌우익에 대한 약사 1. 좌익에 대한 이해 1) 박길양(1894-1928) (1)약력 관청리 출생 독립운동가 고려공산청년회 결성 기담(조선공산당산하, 1925,4,18)-...

	Column 1	Column 2	Column 3	Column 4
1	시기	출처 / 자료	직접 발화(인용)	차기저자의 정격
2	1949~1950년대 활동 회고	지역 전자 간행물 (강화특공대 관련 기록)	"그때 강화도 특공대 대장이었던 최종식이 우리를 모아 특공대를 조직했다. 우리는 강화도를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자기 정당화** — 국가 방위, 지역 방어를 위한 애국적 임무로 서술
3	천우회 관련물 (24인 결사대 회고록, 코리아뉴스 브로 인용)	"우리가 맹인 일들이 처금한 죄로 남았다. 하지만 당시에는 국가를 위한 의무라고만 생각했다."	**양가적 서사** — 후회와 죄책 고백이 있으면서도 국가를 위한 의무라는 정당화 유지	
4	2000년대 이후 출판 노인 증언 (가담자 고백)	"내가 직접 사람들을 잡고 갔어. 그때는 명령이었고, 거역할 수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너무 후회가 돼.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었겠나."	**고백과 후회** — 개인적 죄책감, 명령 체계에 의한 강제성 강조	
5	2010년대 천우회 항변 (언론 기고)	"우리는 공산군의 침투를 막기 위해 싸움을 뿐이다. 양민학살이라니, 우리는 억울하다."	**부정과 항변** — 학살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군사적 필요'로 정당화	

강화도 토속 신앙

강도의 민담과 전설 (江都의 民譚과 傳說)

지역 문회

지역N문화보탈

지역N문화

지방문화원이 생산,발굴한 독특하고 고유한
지역문화 콘텐츠 및 소장자료를 모든 국민이
향유할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역문화 대표 포털

금화당 (만신 김금화, 전통 무속 연구소)

bl 강화도 구석구석 문화유산답사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 · Updated 04-10-2025 @ 12:31 GMT+09:00

강화도 외포리 곶창굿

bl 강화바다정원편선 : 네이버 블로그
Naver · Updated 04-10-2025 @ 12:35 GMT+09:00

갯벌과 철새

▶ 세계 5대 갯벌, 철새의 섬 강화도. 철새와 갯벌이 살아있는 강화도
- 간조시 드러나는 갯벌의 넓이가 1800만평이나 된다.
- 강화도 남단 갯벌은 서해안에 남아있는 유일한 도요, 물떼새류 도래지.
- 세계적으로 5대 갯벌 중 하나이며 현재 도요새와 물떼새가 2만마리 이상 서식 중이다.
- 강화도 남단 장화리와 여차리 갯벌에서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집단 서식지, 노랑부리 백로,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 갈매기 등 멸종위기의 희귀종들도 포착됐다.

환경아카이브 풀

Ecoarchive

환경아카이브풀숲

환경아카이브풀숲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흩어져
사라지고 있던 환경자료를 한데 모아
정리함으로써 환경보전 활동 역사의 뼈대를
세우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의미...

국민족문화대백과사
clopedia of Korean Cu

Aks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江華 갯벌 및 저어새 繁殖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습지



경기일보

[인천 깃대종, 생태계를 가다] ⑦ 매화마름...농경방식 변화...

인천 강화지역은 해마다 바람이 잠시 쉬는
4~5월에 수천, 수만개의 하얗고 작디작은 눈꽃이
논 위를 수놓는다. 마치 눈송이가 쌓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이 눈꽃들...

테아트린게스타치오네 (안나, 지오바니)

Good Mourning (좋은 애도)

사라짐

탐구 주제인 사라짐 - 과연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 나타남의 반대 의미로서의 사라짐
- 보이지 않게 되는 것,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
- 자취를 감추는 것, 소식을 끊는 것
- 망각 속으로 사라지는 것, 쓰임새가 없어지는 것,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
-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죽는 것.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단어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사라짐을 반드시 상실, 비극, 혹은 실패라 여기는 판단을 유보할 때, 우리는 감정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사라짐을 보다 명료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그 역학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무언가가 사라질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가? 어떤 흔적이 남는가? 무엇보다도, 그로 인해 생겨난 빈자리에는 무엇이 나타나는가?

강화도의 경우, 사라지는 것은 대부분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며, 이들과 함께 사라져 가는 이들의 문화는 결코 되돌아올 수 없는 세계와 맞닿아 있다.

우리가 사라짐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그 두려움은 우리 존재에 각인된, 선천적 기질인지도 모른다. 인간이라는 종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저항해 왔기 때문이다. 앞선 세대는 모두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일부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위해 싸워왔다. 그들이 전하려 했던 것은 유전자만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 서사까지도 후대에 닿기를 바랐다.인류는 유전적 유산을 통한 진화에서 문화적 유산을 통한 진화로 넘어가는 급진적 도박을 하였다. 바로 그 점이 세계 곳곳에서 고유한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었던 이유이며,

몸짓 하나, 단어 하나, 의례 하나에도 수천 년의 무게가 실려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진화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부적절한 체계나 적응에 실패한 생명체, 그리고 동시대와 공명하지 못하는 문화처럼 실효성을 잃은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거나 소멸한다. 이는 부당함이 아니라 필연이다. 사라짐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삶의 한 과정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문화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몸짓, 단어 등, 무언가에 흡수되어 형태가 바뀐 기술 등으로 항상 남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아남은 모든 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무엇이 남는가? 무엇이 변형되는가? 그리고 그 대신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리서치 그룹의 예술가 중 한 명인 쇼(Shaw)는 "공룡들은 자신들이 마지막으로 남은 개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종말을 인식하는 생명체로서 우리 인간은 특별하지만 또한 고뇌한다. 우리는 그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라져 간다.

부재의 풍경

리서치 그룹 내 또 다른 예술가 행(Heng)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종말의 유령은 항상 우리 곁을 맴돌고 있으며(haunt) 또한 우리를 쫓고(hunt) 있다. 이러한 감각은 강화의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다.





강화도 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를 타고 수 킬로미터를 달리는 동안,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마주치지 못했다.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오로지 논뿐이었고, 사람의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 넓게 펼쳐진 농촌의 모습이 나타난다. 들판에서 일하는 이도 거의 없으며, 많은 땅이 방치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하게 된다.

눈앞에는 공상과학 영화 속 외계 행성을 떠올리게 하는 풍경이 펼쳐진다. 마치 인간이 외계인으로 여겨지는, 우주의 끝자락에 자리한 어떤 '행성' 위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다. 도시는 자연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공해로부터 피신하는 제한 구역으로 제공한다. 자연은 삶을 위한 공간이기 보다는 감상을 위해 보호 또는 보존되는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 곳 강화도에서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진다. 길들여졌다고는 하지만, 드넓은 전원과 갯벌이 펼쳐진다. 인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듯한 이 풍경 속에서 우리는 침입자다.

우리가 갯벌에 머무는 동안, 게(crab)들은 우리를 지켜보았다. 우리는 그들의 영역을 침범해 지나간 자리에 거친 흔적을 남긴다. 우리는 어떤 체계라도 들어서는 순간 그것을 변화시킨다. 모든 접촉은 그 자체로 오염이자 침해다. 하지만 우리는 갯벌이 결국 우리의 발자국을 다시 흡수하고, 충격을 삼켜, 표면에

서 우리의 흔적을 지울 것임을 알고 있다. 발이 닿으면 질퍽한 표면 아래로 가라앉아 사라지며 다른 무언가의 일부가 된다.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일시적으로 남긴 상처를 갯벌은 다시 아물게 한다. 우리는 지나가지만, 갯벌은 남는다. 우리의 흔적은 이미 유령 되었다.



왈순아지매와의 만남

왈순아지매와 만나 함께 김치전을 부치며 대화를 나누고 나는 유한함을 느꼈다. 그는 애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순하고 명료하게, 생존과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을 찾고자 열망하는 그는 어느 때보다 더 생기가 넘쳐 보였다. 그는 땅과 연결되어 있었고, 땅은 그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다. 어둠이 밀려드는 가운데, 우리라면 불안해했을 상황에서도, 그가 혼자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고요해 보였다. 땅은 그를 부르며 반갑게 다시 맞아들였다.

사람이 기뻐하며 종말을 고할 수 있을까?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올 빛을 믿으며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태양은 사라지지만, 그것은 단지 다음 날이 도래하도록 자리를 내어주기 위함일 뿐이다. 따듯하거나 춥거나, 더 힘들거나 더 가벼울 수도 있는, 새로운 날들을 마주할 때마다, 생각은 지나가버린 날로 향한다.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존재하기 위해 죽는다. 나는 커피를 탄다.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이라도 하듯이 바깥 풍경을 힐끗 바라본다. 나는 멈춰선다. 잠시 동안 기억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 전에 작게 속삭인다.

굿모닝(Good mourning.)



부재의 공동체

여러 차례의 만남과 인터뷰를 거치며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에 놀라게 되었는데, 우리가 만난 이들 중 누구도 공동의 의례나 전통 축제, 함께 나누는 기념 행사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화를 하면서 공동체의 기억으로 이어지는 노래나 춤, 혹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엮어주는 상징적 장치에 대한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예외가 있다면, 자연 환경 속 위치한 대안학교의 학생들이 들려준 전통 음악 수업 이야기뿐이었다.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는지 물었을 때, 돌아오는 답은 생존의 압박이 너무 크고 땅을 일구는 노동이 너무 고되어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럼에도 이러한 전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음력 8월 보름에 지내는 추석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로, 가족이 모여 차례를 올리고 조상의 산소를 찾아 성묘하는 날이다. 또한 우리는 농악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북과 춤, 노래가 어우러진 전통 농민 음악으로, 유네스코가 인정한 문화유산이며 역사적으로 농사일을 함께하면서 공동체의 유대를 굳게 해온 전통이다.

경기도에 위치한 강화는 '웃다리농악'이 전승되는 지역 중 하나다.

하지만 강화도에서 보낸 2주 동안, 이러한 전통은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것을 현재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것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공동체적 상징성을 고양하는 의례가 없는 공동체란 무엇일까? 집단적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신화나 서사가 더 이상 없다면, 공동체는 어떻게 결속을 유지할 수 있을까? 상징적 지평이 없는 공동체는 그들의 경험을 해석할 공통의 언어의 부재로 인해 고립된 개인들로 분열된다.

에르네스토 데 마르티노(Ernesto De Martino)는 이탈리아 남부에서 마술의 세계와 애도의 의례에 대해 연구했는데, 그의 연구는 의례가 단순히 고대의 잔재가 아닌 현존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임을 보여준다. 위기의 순간, 의미가 붕괴될 위협 속에서 존재를 재구성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의례는 세계의 연속성을 회복시키고, 개인을 무정형의 혼돈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준다.
한병철은 바로 이러한 기능이 현대성 속에서 상실되었다 말한다. <피로사회>와 <리추얼의 종말>에서 그는 수행성과 투명성의 논리가 일상의 리듬과 공통된 시간 감각을 어떻게 해체했는지 논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의례는 단순한 과거의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가 지속성, 역치, 그리고 사이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간적 질서였다. 의례의 소멸은 공동체가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잃는 순간이자, 모두가 자기노출에 갇혀 살아가는 생산적 고독이 도래했음을 뜻한다.

데 마르티노가 논한 위험이 현존의 위기라면, 한병철이 말하는 의례의 상실은 관계의 위기다. 서로와 공명하게 해주던 형식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하는 방식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아름다운 풍경과 훌륭한 음식이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누군가에게 한 곳에 머무르라고 설득할 수 없다. 조르조 아감벤이 말하는, "벌거벗은 생명," 즉 단순한 생물학적 생존으로 축소된 존재만으로는 충분치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 점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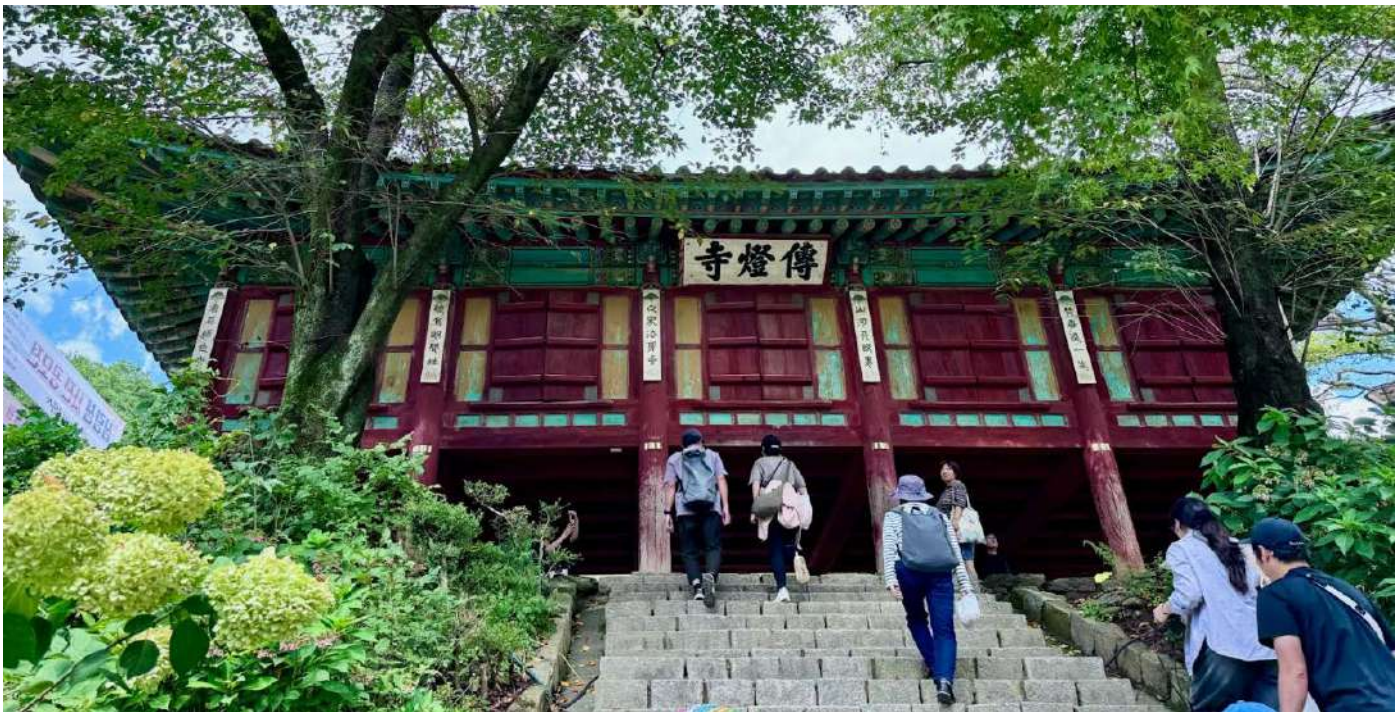
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존재에 의미가 부여되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례와 상징적 세계가 필요하다. 상징적 지평이 없다면 인간의 삶은 짐승의 삶의 수준으로 격하될 위험에 처한다. 의례는 사치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 속에서 단순한 생존의 차원을 넘어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의례없는 애도

이 사유의 중심에는 애도가 있다. 우리가 만난 할머니는 개인적이고 내적인 애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화도 또한 애도를 하고 있었다. 떠나는 이들을 위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세상을 위해. 무형의 집단적 애도가 옅게 번져 나간다.

데 마르티노는 의례화된 애도는 집단적 의미 정립 과정이 된다고 말해준다. 장례는 단지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상징적 질서를 복원하고, 끊어진 의미의 연결 고리들을 다시 잇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의례화된 통곡은 회생의 순간이 된다. 새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갓난아이의 울음처럼, 고통의 울부짖음과 상실의 눈물은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연다. 공동체는 함께 우는 행위를 통해 위기를 넘기고, 그 집단적 울음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재확인한다. 죽음을 내재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된다.

그렇다면 의례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애도가 사적이고 조용하며,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경험으로 변하면 무슨일이 생길까?





대안학교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우리의 주의를 끈 발견점이 하나 있었다. 학생들 중 한 명이 1학년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 다음 세대의 학생들은 우리와 가치관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학생이 말하는 것은 수십 년에 걸친 세대 차이가 아니다. 그는 불과 몇 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 아이들을 두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문화가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같은 학교 내에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또래 집단 간에도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강화도가 봉착한 본질적 딜레마다. 공동체로서 살아남기 위해 강화도는 새로운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색다른 가치관, 열망, 삶의 형태 등 다른 문화를 함께 가지고 온다. 이들은 강화의 전통적인 농촌 문화를 보존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온다. 이들의 존재는 섬을 인구 소멸로부터 구할 수 있을지만, 그 대가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문화가 급진적으로 변하거나 심지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데 마르티노에게 세계의 종말은 꼭 물리적 차원의 존재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의미 지평이 해체되는 것을 뜻한다. 한 공동체가 스스로의

존재를 해석해 온 다층적 구조가 그 기능을 멈출 때, 의례의 효력이 사라질 때, 익숙했던 세계를 더 이상 알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말한다. 강화의 농민들에게 도시적, 기술적, 세계화된 가치관을 지닌 새로운 인구의 유입은 이러한 종말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물리적 소멸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세계의 끝'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신규 인구 유입을 막아 전통적 문화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염과 변형을, 어쩌면 강화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뜻이다.

이 딜레마에서 간단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어떤 선택이든 일종의 사라짐을 동반한다. 물리적 공동체가 사라질 수도 있고, 이어져 내려온 문화적 세계가 사라질 수도 있다. 어쩌면 대답해야 할 질문은 단 하나일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 사라지는 것을 더 받아들일 만한가? 그리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남부 이탈리아와 비교

이탈리아 남부에서 가장 쇠락한 지역들은 강화와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의 문제가 유한성과 죽음의 감각과 맞물려 있는데,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지역들에서 오히려 반작용처럼 집단적 활동과 의례적 축제가 매우 활발하며, 공동체의 삶 전반에 깊숙이 스며 있다.

강화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공동체적 축제나 의례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 마치 이 공동체는 어떤 부재 또는 공허의 감각을 공유함으로써 결속된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블랑쇼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사라진 것에 대한 기억뿐이라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결속되는 것이다.

이곳은 부재의 무게감을 공유하지만 더 이상 '우리'라는 말을 쓸 수 없게된 생존자들의 공동체다.

"공동체는 말할 수 없는 것, 사라진 것이 끊임없이 되돌아 올 때만 성립된다."

"부재의 공동체"란 맺어진 관계가 없는 관계적 사유이며, 거리가 바로 유대의 조건이 되는 공동체다.

가능성으로서의 공허

그러나 바로 이 공허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부재 위에 세워진 공동체는 아이러니하게도 해방된 공동체다. 보존해야 한다는 짐, 생명력을 잃은 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의무, 과거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다.

블랑쇼에 따르면, 목적을 잃은 공동체, 즉 지켜야 할 것도, 보존해야 할 '우리'도 없는 공동체는 오래된 틀에 따라 무언가를 실현하려는 의도가 없기에 오히려 무엇이든지 상상할 수 있다. 존중해야 할 의례도, 물려줄 전통도, 지켜야 할 정체성도 없다. 남아 있는 것은 오직 공허뿐이다. 그리고 그 공허 속에서 모든 가능성이 열린다.

이곳에서는 상상력의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하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왜냐하면 더 잃을 것이 없고, 공동체가 이미 사라진 상황에서, 공동체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데 무엇이 걸림돌이 되겠는가? 무엇이 과거의 형태를 되풀이할 것을 강요하는가?

공허는 부재일 뿐 아니라 공간이기도 하다. 아직 사유되지 않은 것들, 명명되지 않은 삶의 양식들, 오래된 규범을 따르지 않는 유대감들이 자리할 공간이다. 그러므로 사라짐은 단지 종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쩌면 사라짐은 가능성을 위한 조건이다.

어쩌면 우리가 마주한 실질적 도전 과제는,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자리잡고 살아가기 위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기 위해,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허 속 새로운 탄생을 구상하기 위해, 일과 생존이 요구하는 효율성에 맞서 관계가 맺어지는 공간을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예술의 역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예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예술은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 다른 문화를 지닌 채 이곳을 떠나는 사람들인가? 사라져버릴 지식을 지키고 있는, 이곳에 남은 노년층인가? 도시에서는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찾으며 도착하는 사람들일까?

이것은 수사적 질문이 아니다. 예술이 오직 과거만을 향한다면, 향수나 박물관화

가 될 위험에 빠지게 된다. 반대로 미래만을 향한다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들을 폭력적으로 지워버리게 된다.

어쩌면 애초에 질문 방식이 틀렸는지도 모른다. 예술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예술은 인구 감소를 멈출 수도, 젊은이들을 다시 데려올 수도, 전통을 되살릴 수도 없다. 예술은 구축하지 않는다. 예술은 울림을 만든다. 예술은 종종 실현 불가능한 것을 상상한다. 어떤 의미에서 예술은 작동하지 않는 행위다. 실현을 강요당하지 않는 사유, 유예, 가능성의 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본적 한계가 있다. 예술은 제시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 사람들에게 예술을 원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관심 없는 사람은 그저 관심이 없을 뿐이다. 예술에는 관심이나 참여를 강요할 힘이 없으며, 그런 힘이 있어서도 안 된다.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계기와 틈을 만들어두고, 누가 그 안으로 들어오는지 기다리는 일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강화에서 예술의 역할은 해결이 아니라 가시화일수도 있다. 새로운 의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원한다면, 그때 새로운 상징적 형식들이 생겨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허로부터 무엇이 태어날지 상상하는 것이다.

향후 리서치 아이디어

추석 그리고 조상과의 연결

강화에서 추석을 어떻게 지내는지 연구하면, 차례를 통해 산 자와 조상을 잇는 이 명절을 오늘날 강화의 사람들은 어떻게 경험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구 감소와 문화적 변화라는 맥락에서 조상과 기억이라는 주제는 특히 유의미해 보인다.

장례와 묘지

현대의 장례 의례와 공동체가 묘지와 맺는 관계를 심층적으로 살피면, 강화가 집

단적 애도를 어떻게(혹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지) 다루는지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다.

오늘날 강화의 공동체가 장례 및 묘지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강화도에서 사람들이 애도를 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혹은 거치지 않는지)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관습이 살아남았나? 묘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가족이 흩어지면 누가 그것들을 돌보는가?

섬 전역에 걸친 인터뷰

섬 내의 농촌 지역과 도시화된 지역 모두에서 폭넓게 인터뷰를 진행하면, 더 다양한 관점을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중심 질문을 통해 인터뷰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오늘날 강화 사람들은 장례를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이해하는가?

본인의 장례가 어떻게 치러지길 바라는가?

강화로 이주한 사람들은 어떤 동기로 이주를 했나? 무엇이 강화도에 거주하는 것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나?

Teatringestazione (Anna, Giovanni)

Good Mourning

Disappearing

Disappearing is the question. But what does disappearing mean?

To disappear, the opposite of to appear

To become invisible, to withdraw from sight

To lose track of oneself, to give no news of oneself

To fall into oblivion, to fall into disuse, to lose importance

To cease to exist, to die

The first step is to avoid giving this word a negative connotation. Suspending judgment — not considering disappearance as necessarily a loss, a tragedy, a failure — allows us to observe it more lucidly, to understand its dynamics without the weight of emotionality. Only then can we ask: what actually happens when something disappears? What forces are at work? What traces remain? And above all: what emerges in the void that is created?
In the case of Ganghwa, those disappearing would be the inhabitants of the most rural areas, who would therefore take with them a cultural baggage linked to a world that was, a world clearly destined not to return.

But why are we so afraid of disappearing? Perhaps because this fear is congenital, inscribed in our very existence. We are here — we, the human species — precisely because all our ancestors resisted disappearing. Every generation that preceded us fought to persist,

to transmit something of itself. Not only genes, but also knowledge, techniques, narratives. Human evolution made a radical bet: to overcome genetic inheritance through cultural inheritance. This is why the world's cultures have such deep roots, why every gesture, every word, every ritual carries with it the weight of millennia.

Yet evolution offers no discounts. This is the other face of the coin: what doesn't work disappears. Inadequate systems, forms of life that can no longer adapt, cultures that lose resonance with the present — everything is destined to become extinct. There is no injustice in this, but necessity. Disappearance is not an anomaly: it is part of life's process itself.

But can a culture really disappear completely without leaving a trace? Probably not. Something always remains — a gesture, a word, a technique incorporated into other forms. But this doesn't mean that everything survives unchanged. And so the question becomes: what remains? What transforms? And what, instead, is lost forever?

As Shaw, one of the artists in the research group, reflects: "The dinosaurs didn't know they were the last ones." The awareness of the end is perhaps what distinguishes us — and what torments us. We don't just disappear: we know we are disappearing.

The Landscape of Absence

As Heng, another artist in the group, observes, we are haunted by the ghost of the end and hunted by the ghost of the end. It is this sensation that permeates everything in Ganghwa.

For kilometres by car, go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we are alone. Rice plantations as far as the eye can see, and only rarely a human being. Ganghwa Island reveals itself as an enormous expanse of

sparsely populated countryside. Few people work the fields, which are predominantly deserted.

Where are the people?

This is the first question that comes to mind.

The image of an alien island appears before me like in a science fiction film; it feels like being on a planet at the edges of the cosmos, a planet where the human being is an alien. Unlike cities, where nature is sacrificed or offered as a refuge from smog in confined places, reserves are conserved and protected to be admired more than lived in. Here, we are in the opposite situation: from the expanses of countryside, though domesticated, to the mudflat, we are intruders in the landscape, as if the landscape did not contemplate us.

During our visit to the mudflat, the crabs watch us. We are invading their territory, leaving crude traces of our passage. We cannot enter a system without altering it: every contact is in itself a contamination, a violation. Yet we know that the mud will reabsorb our footprints, absorbing the trauma, erasing our passage from the surface. A foot lands and sinks, disappearing for an instant in the viscous matter, becoming part of something else. Then it reappears, leaving behind a temporary wound that the mud will close. We pass, but the mudflat remains. Our traces are already ghosts.

The Encounter with the Grandmother

The encounter with the grandmother and the conversation we had while cooking kimchi left me with a sense of finitude. She was in mourning. But in her clarity and simplicity, in her desire to reinvent other ways to survive, other paths to realize her desires, she appeared more alive than before. She had a connection with the land; it was the land that kept her alive. Letting her go into the encroaching darkness

that would have agitated any of us, we saw her serene as she returned alone to her land. The land called her and welcomed her back.

Can one end, then, with joy? Enter the darkness trusting in the light that will return, sooner or later, always. The sun disappears, but only to make room: another day is born, different. Warmer or colder. Harder, or perhaps lighter. Facing each day that comes, the thought goes to the day that has gone. One dies so the other can exist. I make coffee. I cast a glance at the landscape, as if to make sure it's still there. I pause. I remember, for a moment. Then, before starting again, I whisper to myself: Good mourning.

The Community of Absence

During the various encounters and interviews, a fact emerges that strikes us: none of the people we met spoke to us about collective rituals, traditional festivals, or shared celebrations. In our conversations, we found no trace of songs or dances that belonged to shared memory, nor of other symbolic devices capable of weaving bonds between people, except for the students at the alternative school in nature, who told us about their traditional music classes. When we ask about occasions for community gathering, we are told that the need to survive is so pressing and the work of the land is so hard that there is no time for anything else.

Yet we know they exist. Chuseok, the harvest festival celebrated on the fifteenth day of the eighth lunar month, is one of Korea's most important holidays, a time when families reunite to honour their ancestors through charye rituals and visits to ancestral graves. And we also know of Nongak, the traditional farmers' music that includes drumming, dancing, and singing a UNESCO-recognised tradition

that historically accompanied fieldwork and strengthened community bonds. Ganghwa,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is part of the area where Utdari Nongak is practised.

But during our two weeks on the island, these traditions did not spontaneously emerge in conversations. No one mentioned them as a living part of the present.

What is a community without a ritual that nourishes a shared symbology? How can communities hold together when they no longer have a common mythology, a narrative capable of giving meaning to collective presence in the world? Without a symbolic horizon, the community fragments into isolated individuals, lacking a common language to process their experiences.

Ernesto De Martino, in his studies on the magical world and mourning rituals in Southern Italy, shows how ritual is not a mere archaic survival, but a device for saving presence: a way to reshape existence in moments of crisis, when meaning threatens to dissolve. Ritual restores continuity to the world and protects the individual from the risk of losing themselves in the formless.

It is precisely this function that, according to Byung-Chul Han, modernity has lost. In The Burnout Society and The Disappearance of Rituals, Han describes how the logic of performance and transparency has dissolved everyday rhythms and the sense of shared time. Rituals, he says, were not just gestures of the past: they constituted a temporal order that allowed the community to experience duration, threshold, and interval. Their disappearance marks the end of community as a symbolic space and the advent of productive solitude, where everyone is imprisoned in their own self-exposure.

While for De Martino the risk is the crisis of presence, for Han the loss of rituals becomes a crisis of relation: we no longer know how to be

together, because we lack the forms that allowed us to resonate with one another.

The landscape and food, however precious, are not enough to convince a person to remain in a place. Giorgio Agamben helps us understand why this is crucial: "Bare life"—existence reduced to mere biological survival—is not sufficient. A ritual and symbolic world is needed around which to elaborate existence, so that existence acquires meaning and further dimensions. Without this symbolic horizon, human life risks being reduced to that of beasts. Rituals are not a luxury: they are what allow us to inhabit the world, not just survive in it.

Mourning Without Ritual

Mourning is at the centre of this reflection. The grandmother we met was in mourning — a personal, intimate mourning. But Ganghwa itself is in mourning: for the people leaving, for a world that will not return. It is a collective, diffuse, formless mourning.

De Martino teaches us that mourning, when ritualised, becomes a process of communal elaboration: the funeral rite serves not only to separate the living from the dead, but to reconstruct the symbolic order of the community, to mend the tear in the fabric of meaning. Ritual weeping thus becomes a moment of regeneration. Like the cry of a newborn announcing the arrival of new life, so the scream of pain and the weeping of loss open the possibility of a new beginning. The community crosses the crisis by weeping together, and in that collective weeping reaffirms its own existence: the "we" endures precisely because it has been able to process what has died.

But what happens when the ritual disappears? When mourning becomes a private, silent, almost invisible experience?

The Dilemma of Survival

Speaking with the students at the alternative school in nature, an observation emerges that strikes us. One of them, referring to the younger students — those in their first year — says: "The new generations have different values from ours." He's not talking about a generational leap of decades. He's talking about young people just a few years apart. The speed of cultural change is such that even within the same school, between very close generations, values transform rapidly.

This places Ganghwa before a fundamental dilemma. To survive as a community, the island must attract new people. But these new people will inevitably bring with them a different culture: other values, other aspirations, other ways of living. They won't arrive to preserve Ganghwa's traditional rural world, but to build something new. Their presence could save the island from depopulation, but at the price of radically transforming — perhaps causing to disappear — the culture that has inhabited it for generations.

For De Martino, the end of the world is not necessarily the physical end of existence, but the dissolution of a shared horizon of meaning. It is when the categories through which a people interprets its existence cease to function, when rituals lose efficacy, when the world as one knows it stops being recognizable. For the farmers of Ganghwa, the arrival of new inhabitants with urban, technological, globalized values could represent exactly this end: not a physical disappearance, but the end of their world.

Yet what alternative exists? Preserving traditional cultural identity by refusing the arrival of new inhabitants means accepting disappearance through depopulation. Opening up to change means accepting contamination, transformation, perhaps the loss of what

made Ganghwa what it was.

There is no clean way out of this dilemma. Every choice involves a form of disappearance: either of the physical community, or of the cultural world that inhabited it. Perhaps the only real question is: which disappearance is more acceptable? And who has the right to decide?

The Comparison with Southern Italy

In our experience in the most depressed areas of southern Italy, those where the problem of depopulation, like in Ganghwa, coincides with a sense of finitude and death, in those areas, by reaction, collective activities and ritual celebrations are very present and permeate all of community life.

In Ganghwa, our interviews did not reveal the presence of collective celebrations and rituals. It almost seems that the community is united by sharing an absence, a sense of void. As Blanchot would say, by the awareness that nothing holds us together anymore except the memory of what has disappeared.

It is a community of survivors, of those who can no longer say "we" but feel the weight of the common in lack.

"Community is given only as the incessant return of what cannot be said, of what has disappeared."

The "community of absence" is a relational thought without relation, where distance is the very condition of the bond.

The Void as Possibility

Yet it is precisely here, in this void, that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A community founded on absence is, paradoxically, a liberated community. Liberated from the weight of having to preserve, from the duty to keep alive what no longer works, from obligation to the past.

According to Blanchot, a community without purpose — a community that has nothing left to defend, no "we" to preserve — is a community that can imagine everything, precisely because there is no real intention to realize anything according to old schemes. There are no more rituals to respect, traditions to pass down, identities to protect. There is only the void. And in the void, everything becomes possible.

Here one can truly put imagination in power. Be realistic and demand the impossible. Because when you have nothing left to lose, when the community has already disappeared, what prevents you from reinventing it completely? What obliges you to repeat the forms of the past?

The void is not only absence — it is also space. Space for what has not yet been thought, for forms of life that do not yet have a name, for bonds that do not follow the old codes. Disappearance, then, is not only an end. It is also, perhaps, a condition of possibility.

Perhaps the real challenge is this: to go against the efficiency dictated by work and survival to build the place of relation. Not to survive, but to inhabit. Not to resist, but to imagine. Not to preserve the past, but to invent what can be born from the void.

The Role of Art

But what role can art play in a situation like this? To whom should it be addressed itself? To those leaving with a different culture? To the elderly who remain, custodians of knowledge destined to disappear? To those arriving, seeking something the city no longer offers?

This is not a rhetorical question. If art addresses only the past, it risks becoming nostalgia, museification. If it addresses only the future, it violently erases what has not yet entirely disappeared.

But perhaps the question itself is wrongly posed. Art cannot position

itself as a solution to social problems. It cannot stop depopulation, cannot bring young people back, and cannot revive traditions. Art does not build: it evokes. It imagines, very often, the unrealizable. It is, in a certain sense, an inoperative action — it creates spaces of contemplation, suspension, possibility that do not necessarily have the obligation to be realised.

And then there is another fundamental limit: art can be offered, but cannot be imposed. People cannot be obliged to want art. If some people are not interested, they simply are not interested. Art does not have — nor should it have — the power to force attention or participation. It can only create occasions, openings, and wait to see who, eventually, passes through them.

Perhaps, then, the role of art in Ganghwa is not to resolve, but to make visible. Not to offer new rituals, but to create the space where new symbolic forms could emerge — if and when the community itself desires them. Not to preserve the past, but to imagine what could be born from the void.

Ideas for Further Research

Chuseok and the Connection with Ancestors

Research on Chuseok celebrations in Ganghwa would help us understand how this festival, which unites the living with their ancestors through charye rituals, is experienced on the island today. The theme of ancestry and memory seems particularly relevant in the context of depopulation and cultural transformation.

Funeral Rituals and Cemeteries

An in-depth study of contemporary funeral rituals and the community's relationship with its cemeteries could reveal much about how Ganghwa processes (or does not process) collective mourning. What practices survive? How are graves maintained? Who takes care of them when families disperse?

Interviews Across the Territory

A broader series of interviews, conducted in both rural and more urbanized areas of the island, would allow us to gather a more diverse range of perspectives. Some central questions could guide these conversations:

How are funerals lived and thought about in Ganghwa today?
How would you like your funeral to be?
What motivations could drive a person to move to Ganghwa? What would make the island desirable for new inhabitants?

Ideas for a 2026 Art Project

At this moment, we feel it would be premature to propose a specific performative action or artistic intervention for Ganghwa. The 15 days of residency have generated a wealth of observations, questions, and reflections that require time to settle and mature.
We need more time to study, to let these reflections sediment, to understand more deeply the context we encountered.
For now, we prefer to remain in a space of listening and reflection, allowing the questions to remain open. At least until the next video call in November.



드라마박스 (헝루운)

강화프로젝트에 대한 생각

영어 단어 ‘haunt’는 말레이어의 ‘hantu’(유령)와 ‘tuhan’(신)을 이루는 동일한 알파벳들로 구성된다. ‘Haunt’는 반복적으로 드나드는 장소라는 의미도 갖는다.

마크 테(Mark The), 연출가 겸 큐레이터, 파이브 아츠 센터(Five Arts Centre), 말레이시아

‘haunt’라는 단어는 ‘숲’을 뜻하는 말레이어 ‘hutan’과도 같은 알파벳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HAUNT는 장소, 그곳을 방문하거나 머무는 사람, 유령과 영적 존재, 그리고 자연까지 여러 의미를 구성한다.

강화도에서 보낸 2주 동안 나는 내내 이 생각을 했다.

장소, 영적 세계, 자연, 인간에 대한 생각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정리해 본다.



Haunt와 Haunting

처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북한과 매우 가까운 섬” 이라고 들었다. 그 말은DMZ를 떠올리게 한다.

연미정에 갔던 날, 세 갈래의 강물이 만나고 남북을 가르는 물길이 내려다 보이는 그 곳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사람도, 배도 보이지 않았다. 으스스할 정도로 고요했다. 안나의 말을 빌리자면, 그곳에는 소리 없는 불안정함이 감돌았다.

제비들만이 있었다.

당나라 시대의 쓰인 한 시에 제비는 고향으로 돌아와 옛 둥지를 찾는다고 나온다.

리서치 과정에서 누군가가 예전에 북한에 있던 집터에 나무를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나무는 보이지만, 집은 아직 남아 있을까? 그래도 그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직 집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우며 깊게 깔린 그리움 속에 지나간 세월의 영혼과 유령이 맴돌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

교동도의 평화교육원으로 가는 길에, 그곳의 집들이 잘 관리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지난 3년간 작업해 온 우빈섬의 마을 사람들이 생각났다.

인구가 줄어드는 섬에서 언제 떠나라는 말을 듣게 될 지 몰라 늘 불안감을 느끼던 주민들은 오래된 집을 크게 수리하지 않고 두기로 했다. 결국 많은 집들이 낡고 허름한 상태로 방치되었다. 이 섬의 주민들에게 어떤 미래가 있는 것일까?

교동도에 정착한 북한 출신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미래가 열릴 수 있다고 상상할까? 그들은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까? 지금 사는 집은 임시 거처일 뿐이며 미래는 바다 건너 맞은편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제비정에서 보이는 그 나무 옆에 자신의 옛집이 여전히 있다고 상상해볼 수도 있다. 어쩌면 미래란, 여전히 현재라고 상상하는 과거인지도 모른다.

이 섬의 미래는 무엇일까? 그 외에 가능한 또 다른 미래도 있을까?

집이 없어져도, 그곳은 여전히 북한 사람들에게 고향일까?

인간, 나무들, 동물들,영혼들, 그리고 신들.

"한국에는 곳곳에 갯벌이 있다. 한국의 여러 지역에 갯벌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강화의 갯벌은 어떤 점에서 특별한가?"

파도, 강화유니버스

강화 유니버스의 친구들은 강화의 특별함은 장소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있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그들의 이름이 참 좋다. 강화 유니버스. 그들은 연결, 별자리, 관계의 우주를 만들고 있다.

남북 분단 이전부터 이곳에 살아온 한국인들

평화를 찾아 이곳으로 건너온 북한 사람들

기회를 찾을 수 없어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섬을 떠나는 강화의 젊은이들 농사를 지으며 이 섬에서 계속 살아가는 강화주민들 자신을 위해, 그리고 강화를 위해 이곳에 와서 작업하는 예술가들 서울 같은 도시 속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원해 이곳에 온 사람들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 이곳에 온 사람들

농업과 대안적 미래에 대해 배우기 위해 대안학교에 공부하러 온 청소년들

지금 살아 있는 이들 외에,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도 있다.

청동기 시대에 고인돌을 세운 사람들

섬으로 피난 온 왕들,

유배된 선비들과 무장들

프랑스인들

미국인들

천주교 선교사들

일본인 침략자들

강화 학살의 희생자들

인간들 외에도 이 우주를 구성하는 존재들이 있다.

단군 (신)

곰

호랑이

검은 얼굴 저어새

지오반니 게

조개

검은 얼굴 저어새

전등사에 있는 500년 된 은행나무

코스모스로 가득 찬 가을 들판

바람

논

(그리고 많은 다른 존재들)



이 모든 존재들이 강화에 자리한다. 그 누구도 자신이 곧 강화라고 말할 수 없다. 강화는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다.

사라짐

“죽음 (그리고 사라짐)은 필연적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괴로워할까? 왜 막으려 할까?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지오반니 (힝 옮김)

우리는 왜 상실과 슬픔을 감당하지 못할까?

강화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무엇이 사라질 수 있고, 무엇이 사라지게 될까?

무엇이 남고 또 남아서 지속될까? 물리적 형체가 없더라도 기억 속에서 혹은 영적 형태로 남게 될까?

섬 곳곳에 있는 무덤들의 존재, 부재의 존재. 달리 말하면, 부재로 더 크게 드러나는 존재.

[무덤 앞에 놓인 혼유석, 영혼을 불러내어 함께 놀기를 청하는 석상.]





딥타임

"나는 기후변화 문제를 딥타임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위안을 얻는다."

-쇼 엔(Shaw En)

강화의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졌다. 그 유물은 마치 시간을 뛰어넘는 관문처럼, 과거의 영혼과 이야기를 품고 있다.

고인돌은 강화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하고 변모하면서 지속될지를 보여준다.

잠시섬 축제 기간 동안 반복해서 계속 들리는 표현이 있었다. "잠시만요," 잠깐 기다려 달라는 말이다.

그런데 중국어 사용자인 나에게 "잠시(暂时) 와 천천히(慢)", 즉 천천히 속도를 늦추는 순간이라고 들린다.

강화는 마치 시간을 뛰어 넘는 관문 같다. 이곳에서 나는 시간의 향 있어서, 잠시 속도를 늦추고 그 향을 맡고, 보고, 듣고 싶어 진다.

내가 "잠시만"이라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우빈섬과 매우 비슷하다.

이런 느림과 교통수단의 부재 및 거리라는 불편함이 우리가 서두르는 것을 멈춘다.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우리를 지나가도록 둔다.

자신을 위한 시간이 더 많고, 그 느림 속에서 타인을 위한 시간도 더 많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확장된 시간 속에서 새로운 관계들이 싹트기 시작할 것이다.



미래 우주

그렇다면 강화의 미래는 어떠할까?

"문화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면,
예술은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습이다."
- 지오반니

이 예술프로젝트는 강화와 강화 주민들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혼톨로지(hauntology)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들, 선택되지 않은 길들 등의 잃어버린 미래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 마크 테, 연출가 겸 큐레이터, 파이브 아츠 센터, 말레이시아

어쩌면 강화 역시 잃어버린 미래들, 즉 현재의 주변을 맴도는 또 다른 실현가능한 세계들을 품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의 모습이 될 수도 있었던 과거의 잔상이 여전히 지금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미래 옆에 희미하게 드리운다.
그리고 이러한 머무름 속에 상실 뿐만 아니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주를 상상할 수 있을까?



Drama Box (Heng Leun)

Thoughts on Ganghwa Project

"The word "haunt": in English contains the same letters which make up the Malay words "hantu" (ghosts) and "tuhan" (god). "Haunt" also refers to a place that one revists frequently."

Mark Teh, Theatre Director, Curator, Five Arts Centre, Malaysia

The word "haunt" also make up the Malay word "hutan" which means "forest."

So, HAUNT embodies a number of things: the place, the human who visits or are in the place, the ghosts and spirts, and of course nature .

In my two weeks stay in Ganghwa Island I kept thinking about it.

My notes will be organized around these thoughts of Place, Spirituality, Nature, and Human



Haunt and Haunting

When I was first told about this project, the place was described as “the island so near to North Korea”. One thinks about the DMZ.

On the day when we were at the Swallow Pavillion, overseeing the strai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ere 3 river meets, yet there were deep silences there. Not a human or boat in sight. It was hauntingly quiet. There was a silent precarity in that place (to borrow from Anna).

Only swallows. And in one Chinese poetry written in the Tang Dynasty, (归燕识故巢的), the swallows returns to their homeland, searching for their old nest.

In one sharing during the research, we heard about how one was able to see the tree where the old house was at North Korea. But while the tree could be seen, would the house still be there? But by looking in that direction, one could still think about the house being there. There was this deep sense of longing, the the past looming over, the spirit and ghost of past still haunting the place, still in the memory of the people.

On the trip to Peace Centre at Gyodong Island, we noticed how the houses there were not too well-maintained. This somehow remind me of the villagers in Pulau Ubin, the island I have been working in the last three years. The villagers on the island felt a great sense of tentativeness, not knowing when they would be asked to leave the island that is facing depopulation, and hence decided not to do any major repair to their old houses. In the end, many of the houses looked shabby and badly maintained. What kind of future is there for the villagers on the island?

For the north Koreans who live on Gyodong, what kind of future do they imagine they can have? Will they return to their homeland? The present house is perhaps only temporary and the future is in the opposite coast. One could image his/her old house is still beside that tree that one could see from the Swallow Pavillion. Perhaps the future is a past that is imagined to be still present.

What is the future of this island? What other kind of future can there be?

When the house is gone, is it still home to the North Koreans?

The Human, the Trees, the animals, the spirits and Gods.

"There are mudflats in many parts of Korea. So what makes the mudflat in Ganghwa so unique? "

Pado, Ganghwa Universe

Our friends in Ganghwa Universe talked about how it is not just about the place, but the people of Ganghwa that make Ganghwa special.

I like their name: Ganghwa Universe – they are building a universe of connection, of constellation, of relationship.

The Koreans who lived here before the North-South Divide

The North Koreans who came over in search for peace

The young Ganghwa who leaves the island to seek other possibilities as they see no opportunities

The Ganghwa residents who continue to farm, to live on this island

The artists who came here to make work - for themselves and for Ganghwa

The people who came here because they wanted a different life from cities like Seoul

People who came here to build their own utopia –

The young who came here to study in alternate school to learn about agriculture, to learn about alternative futures

Beside those who are still alive, there were

The people who built the Dolmen during the bronze age

The exiled kings

The exiled scholars and generals

The French

The Americans

The Catholic Missionaries

The Japanese who invaded

The victims of Ganghwa Massacre

Beside the human, there are also other things that forms part of this universe

Dangun (GOD)

The bear

The tiger

The Black-faced spoonbill

The Giovanni Crab

The Clams

The black-faced spoonbill

500 years old Ginkgo Tree at Jeondeungsa Temple

In the Autumn Field, Full of Cosmo Flowers

The Wind

The Rice Field

(And many many more)

All of them have a place in Ganghwa. No one can claim to be Ganghwa. Ganghwa as a heterotopia.

Disappearance

"Death (and disappearance is inevitable). So why are we so upset with it? Why are we stopping it? Why are we not accepting?"

Giovanni (paraphrase by HL)

Why are we not able to deal with loss and grief?

What to keep, what to hold on in Ganghwa?

What can disappear, what will disappear?

What remains and continue to remain? If not in physical form, in memory, in spiritual form?

The presence of graves around the island: In the presence of Absence. Or in other word, the loud presence of the absence.

[The stone table in front of the grave mound: Honyuseok : to invite the soul to come out and play.]





Deep Time

"I take solace in appreciating the climate change issue through thinking about deep time."
Shaw En

Dolmen are built during Bronze Age. An artefact that seemed like a time portal, hosting spirits and stories of the past. It reminds me of how long the history of Ganghwa has been. It has been around since ages and will continue to be around, except that it changes with different outlook as time goes.
One word that I keep hearing, because of the Momentary Festival is this: Jamsilman-yo, which means Wait A Moment. But when it is heard with my Chinese ears, Wait A Moment sounds like： A moment(Jamsil 暂时) to slow down (man 慢).

Ganghwa's is like a time portal. There is a scent of the time here, where you are tempted to just slow down to smell to witness to listen. Much like Pulau Ubin where I can just Jamsilman.

And it is through these slowness, through the inconvenience of lack of transport, you do not rush to places, but you let time takes its lead. There is more time for yourself, and then also more time for others, and hopefully, you start to build relation.

And what of Ganghwa's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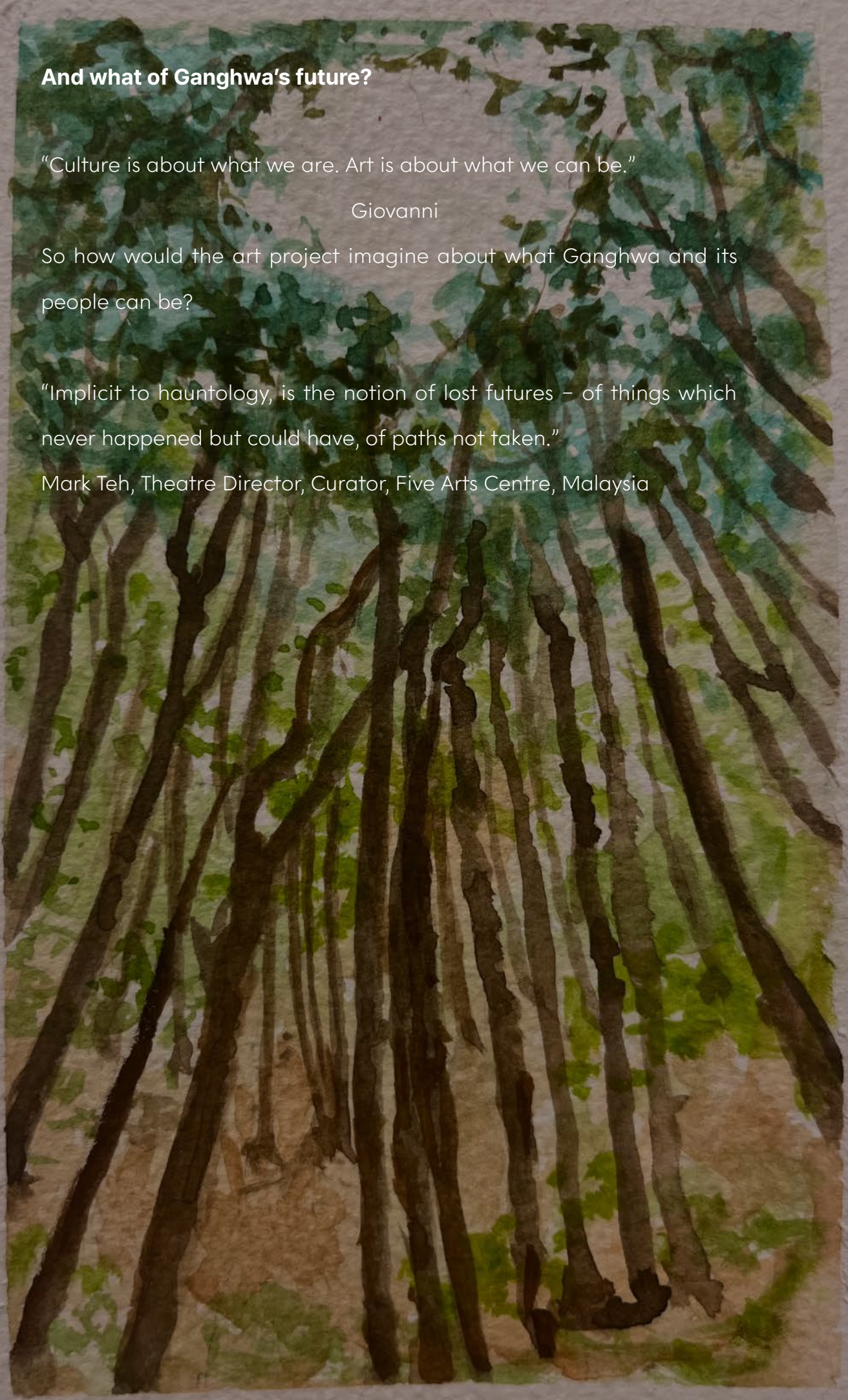
"Culture is about what we are. Art is about what we can be."

Giovanni

So how would the art project imagine about what Ganghwa and its people can be?

"Implicit to hauntology, is the notion of lost futures – of things which never happened but could have, of paths not taken."

Mark Teh, Theatre Director, Curator, Five Arts Centre, Malaysia



츄 쇼 엔

사라짐에 대하여

어느날 저녁, 강화의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바닷가 전망대에 모여 석양을 감상한다. 모두가 지평선을 향해 서서 불타는 태양이 내려앉고 기울어 마침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본다.

물론 태양은 밤 동안만 사라질 뿐이며, 우리는 하늘을 온갖 색으로 물들이는 그 장관을 즐기고, 내일 다시 떠오른다는 것을 알기에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젠가 태양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인간에게 '사라짐'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종으로서 지속되고자 하는 본능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처럼, 소중한 것이 사라지는 것 또한 애도한다.

이 주제를 딥타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간의 시간이 사라지며 수백만·수십억 년 앞에서 그 존재감은 미미해진다. 역사는 멸종이 진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천천히 그리고 주기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 이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지구는 다섯 번의 대멸종을 겪었지만 생명은 계속 이어져 왔다. 인류와 우리의 세계가 그 모습을 유지하며 먼 미래까지 지구 상에 살아 남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극심한 전 지구적 위기의 시대를 거치면서도 생명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이어져 왔다는 역사적 사실은 나에게 위안이 된다.

사라짐은 내게 있어 자연스러운 일이며, 마치 일몰과 같은 하나의 과정이다. 사라짐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거나 숨겨진 것에 대한 기발한 생각과 호기심도 불러일으킨다. 언젠가 필연적으로 인간이 소멸하게 된다면, 인간이 이를 어떻게 마주하게 될지도 흥미롭다. 우리는 사라짐을 어떻게 해석하며, 잃어버린 것과 잃어버리고 있는 중인 것을 어떻게 애도하고 있나에도 관심이 있다. 사라짐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준비를 하게 하고 어떻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지에도 관심이 있다.

마음에 남는 궁금점들

질문

강화도 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작품을 만들면서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강화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서로에 대해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까?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픽션과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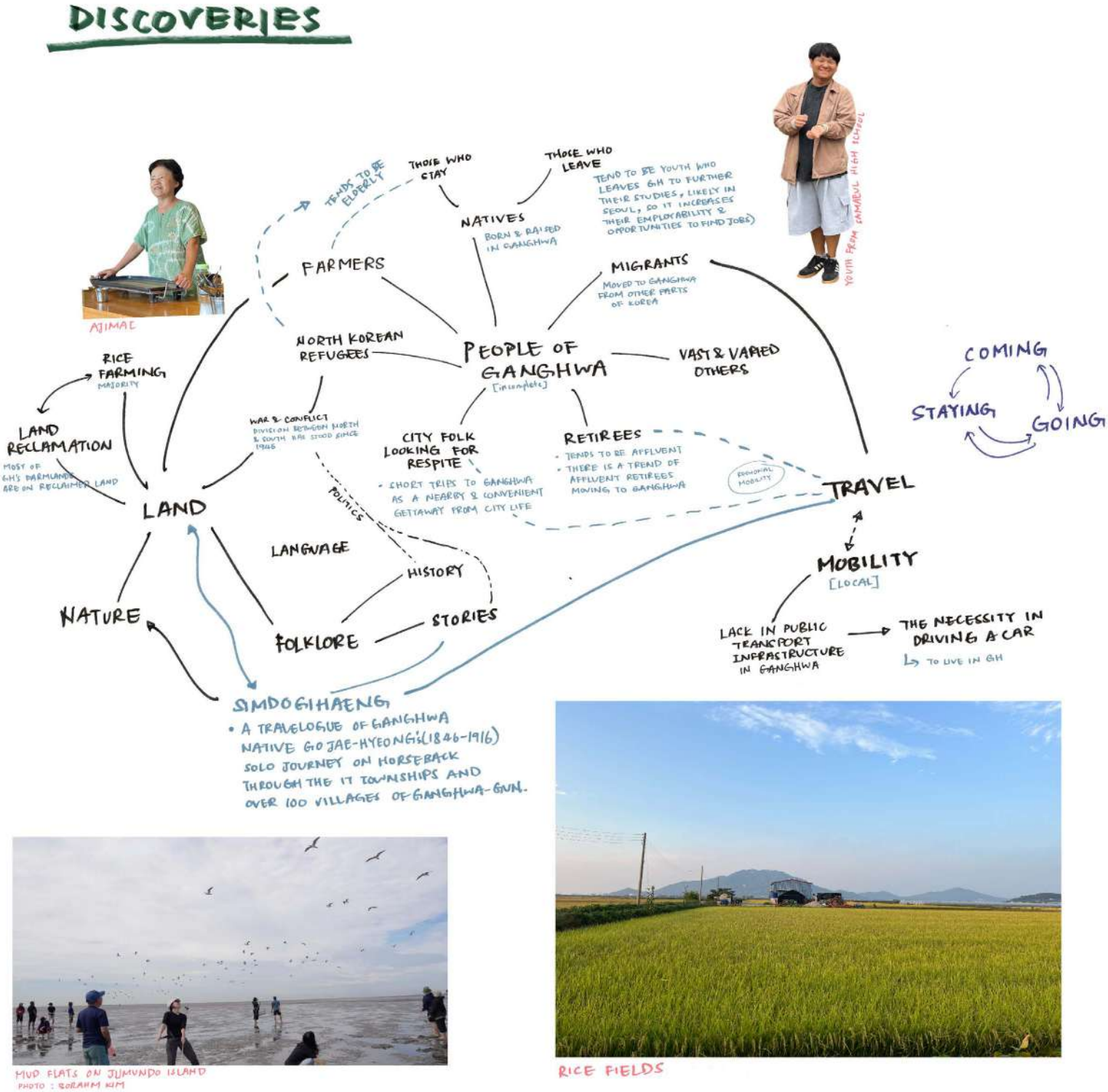
픽션과 보이지 않는 것들

강화를 자기 집이라 여기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 이번 방문 리서치는 내가 외부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했으며, 강화 안팎에서 작용하는 여러 현실과 힘이 나에게는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강화 사람들이 만든, 혹은 이 지역에서 나온, 이야기나 창작물 같은 매체나 매개를 통하면 이 심리에 더 잘 접근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심도기행>과 <강화 구전문학>은 내가 계속 탐구하고 싶은 책 두 권이다. 전자는 강화 출신 저자가 섬과 그 풍경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아 쓴 시적 기행문이고, 후자는 강화에서 구전으로 이어져 온 노래와 이야기들의 집성록이다. 이 두 책에 담긴 기록에서 역사적으로나마 지역민들이 익숙하게 느꼈던 문화와 전통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지역민들이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어떤 분위기와 어조를 사용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나 픽션이 복잡한 현대 사회 속 삶의 여러 측면을 사람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거의 유물들이 지금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오늘날 강화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노래와 연결되어 있을까, 아니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이제는 낯

설고 이질적이며, 더는 자신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맞닿아 있지 않다고 느낄까?



MUD FLATS ON JUMUNDO ISLAND
PHOTO : SORAHM KIM

RICE FIELDS

Kite Song (working title)

a proposal

Chew Shaw En

The song Mountain Fire is found in Ganghwa Oral Literature (pg 519-520). / Fiction or song as a vessel or container within which we can create a space of collective imagination. / There are repeated observations of people coming, going and staying – a phenomenon attached with its unique permutations and specificities from person to person. Why do people come or go or stay? This question seems pertinent to the people who live on Ganghwa island and relevant to the topic of Disappearance.

Mountain Fire (song of the funeral procession)

first paragraph translation:

"When the people receiving the 'sangyosori' (song of the funeral procession) said it was difficult and it didn't feel real because they were all in one place, they said they should stop so i finished 'sangyosori'. After a short break, i went into 'sangyeombul' (salt fire). This is the song that is sung from the moment on when the mountainside where the bier will be lowered comes into view."

Kite Song Proposal:

phase 1 (led by artists based in ganghwa):

- dolmen/letterbox making workshops with locals (intimate/ potential for 1-on-1 setting)
- recording interviews and stories from locals about the phenomenon of 'coming, going and staying'
- collaboration between international and local korean artists on

planning and structuring of workshops

phase 2 (when everyone reconvenes in ganghwa in 2026):

- a 3-day workshop with locals who will be making the kites in large groups participating in the activation alongside us

- kite making + rehearsal of performance-gathering

- singaporeans to being sapu lidi and source other local materials to make kites with the locals

Description of the Performance-Gathering

In an open field where wind blows strongly and steadily, personalised and handmade dolmen shrines by Ganghwa locals dot the area. Each dolmen shrine holds and tells a story. One only has to be near it and dwell for a time to hear its story. You can write responses or messages on these shrines. Over time, kites with text/drawings/designs/messages on them ascend to the sky, the wind carrying aloft their message, and dispersing them far and wide. Below the sky-tapestry of kites and messages, wind catchers in the hands of those who wish to run, dance, and catch the wind, ribbon and spiral around and through the dolmen shrines and the attending bodies of the participating locals, their friends and family, artists, and our audiences.

Elements of the work

1. kite flying

2. dolmens of different heights placed around an area with speakers built within them playing music and/or interviews/stories by the locals about 'coming, going and staying'

3. music track inspired by the funeral song Wild Fire played through the speakers originating from the dolmens

4. locals involved in the creation and activation of the work

감수성, 소멸 감수성, OO 감수성...

감수성은 단순히 '민감함'이 아니라,
세계와 나 사이에 놓여 있는 얇고 투명한 막이다.
그 막은 아주 미세하고, 연약하고, 조금은 불안하다.
빛의 떨림과 공기의 흐름, 다른 존재의 고통과 기쁨까지 스며들게 한다.
삶의 생애주기에서도, 예술에서도, 놀이에서도,
그 막을 흔들어 우리를 깨어 있게 만들고, 그 흔들림을 받아들이게 한다.

감수성은 그저 무언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동하며 새로운 파장을 만들어내는 순간,
그리고 나와 그 무언가의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힘이기도 하다.
논리나 체계로 담아낼 수 없는 여백, 흔적, 결들을 어떻게 허용할지 고민하는 태도다.

리서치 과정을 통해 재구성한 단어, '소멸 감수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모든 존재가 언젠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무수한 진동 안에서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이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눈앞에 꺼져가는 것, 흩어지는 것, 사라지는 순간에 가치를 두는 시선일 수도 있겠다.
'소멸'이란 것을 단순히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순환의 일부로 이해하면서 내가 아닌 타자, 자연, 시공간과 연결된 나를 발견하며 성찰하고 싶다.



소멸-기록-기억-관계에 대해서

대모산 꼭대기에 원기가 쌓여서,

여러 봉우리 늘어선 모습 자손인 듯 하여라.

태평한 시절에는 초경 봉화 올렸으니,

옥등잔 불빛이 대궐문을 밝혔었네.

«심도기행_고재형»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흔적을 남기려고 한다.

우리는 매 순간 사라지는 시간의 파편들 속에서,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 기록한다.

그러나 기록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잔향을 남기고 사라짐 속에서 타자와 연결하는 토대가 된다.

여기서 타자라면,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 동물과 식물, 광물, 장소 그리고 현상 그 어떤 것이든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타자를 장소에 빗댄다.
내가 본 것, 들은 것, 감각한 것을 남긴다는 것은 그것을 누군가와 공유하고자 하는 욕망이자 또 다른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행위다.

기록은 기억 이전에 관계의 언어이며, 관계 이후에 남겨진 흔적이다.

내가 사는 동네 뒷산, 대모산 봉수대는 사라지고 삼각점만이 남아있다.
100년 전의 기록을 더듬어 지금 마주한 장소의 흔적을 기록한다.
나의 기록은 사라짐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맺기의 시작이다.
사라진 장소는 나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된다.

Heewarae (Kim Narae, Lee Gunhee)

Sensitivity, sensitivity to disappearing, sensitivity to OO...

Sensitivity is not simply “being sensitive.”
It is a thin, transparent membrane stretched between the world and myself.
That membrane is delicate, fragile, and slightly unstable.
It allows the trembling of light, the movement of air, and even the pain and joy of other beings to seep through.
In the cycles of life, in art, and even in child’s play,
this membrane is shaken, keeping us awake and asking us to receive its vibrations.

Sensitivity is not merely about “noticing” something.
It is the moment when something vibrates within me and creates a new wave,
as well as the capacity to embrace the incompleteness of both myself

and that something.

It is an approach that asks how we might allow the blank spaces, traces, and textures that cannot be contained by logic or systems.

I reflect on the phrase "sensitivity to disappearing," a set of words reconstructed through the research process. Perhaps it is an attitude that faces the fact that everything will one day disappear and feels it sensorially through endless vibrations. Or it may be a perspective that finds value in the moments when things fade, disperse, and vanish right before our eyes.

Rather than accepting "disappearance" only as something to fear, I want to understand it as part of relationship and circulation, and through it discover and reflect on myself as connected to others, nature, and time and space.

On disappearing, record, memory, and relationship

At Daemosan's crest, currents of energy build up,
The row of numerous peaks resemble a line of descendants.
In times of great peace, the first beacon flames were kindled,
And the light of the jade lamp brightened the palace gate.
— Simdogihaeng (Ganghwa-do Travelogue) by Go Jae-hyeong

Human life is, in essence, an attempt to leave traces.

Within fragments of time that disappear at every moment, we record in order to hold on to something.

But recording is not simply the storage of the past.

It leaves the aftersound of relationships and becomes a ground that connects us with others within disappearance.

Here, “others” does not refer only to humans, but to all beings on Earth — animals and plants, minerals, places, and even phenomena.

Here, we liken the other to a place.

To leave behind what I have seen, heard, and sensed is both a desire to share it with someone and an act that opens the possibility of another relationship.

Recording is the language of relationship before memory, and the trace that remains after relationship.

On the mountain behind where I live, the Daemosan beacon towers have disappeared, leaving only triangulation points.
Tracing back records from a century ago, I document the traces of the place I stand before today.
My recording is not a resistance against disappearance, but the beginning of forming new relationships.
A disappeared place comes back to life again through me.

연리목

1. (인구)소멸

작년에 서울 사당역 근처에 점심 약속이 있어 나간 적이 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근처 카페에서 차 한 잔 하려—했는데, 역 근처에 즐비한 대형 카페들 중에 빈 테이블이 없었다. 평일 오후에, 들어서는 카페마다 그득한 사람들의 모습이, 한적한 강화에 사는 나에게는 놀라운 광경이었다. 동행한 지인이 설명해주었다. 사당역은 교통이 편리해 시니어들의 만남의 장소라서 늘 북적북적하다고. 그러고보니 카페 손님 대부분이 노년층이었다. 지하철역에서, 버스에서도 계속 나이 드신 분들이 쏟아져나왔다. 아이는 없었다. 오로지 노인만 가득한 도시였다. 인구 소멸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자주 언급된 지도 한참이고, 국가에서 인구소멸지역이라고 지정한 지역에서 십년째 살고 있지만, 나는 그 날 그 단어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느꼈다.

그러므로 '소멸'에 대해 이야기 하자고 했을 때 당연하게도 인구 소멸을 떠올렸다. 그 이외의 소멸이란 생각해본 적도 없는 것처럼 그 단어는 '인구'와 짝꿍이 되어 있었다. (인구가) 소멸되어가고 있는 지역에 사는 나는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감각하고 있는가. 이 리서치에 참여하며 처음 떠올린 주제였다.

2. 우리 동네

우리집 왼편 옆집 할머니는 내가 이사 오기 1년전에 사별하고 혼자되셨다. 그 후 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씩씩하게 혼자 농사 일구며 사신다. 우리집 오른편 옆집 할머니는 치매인 할아버지를 돌보며 농사 지으시다가 재작년에 사별하고 혼자 되셨다. 늘 하던 대로 농사 지으며 사신다. 우리집 뒷편의 정미소 아저씨는 지난 여름에 돌아가셨다. 우리집 앞집의 노부부는 줄곧 셋집에 사시다가 재작년에 새 집을 지으셨는데, 그 해에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가셨고, 이듬해엔 할머니도 요양원에 가셔서 지금 그 집은 비어 있다. 그 빈 집의 앞 집은 십 년이 넘도록 비어 폐허가 된 채 고양이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담쟁이에 덮이거나 지붕이 무너진 집들이 여럿 있다. 이렇게 서서히 바래고 낡아 시간 속에 흩어

져 소멸되는 건가 싶은 풍경이다.

그러나 마을 외곽에는 논이나 밭을 메워 지은 집들이 꾸준히 생겨난다. 우리집 앞집에 살던 노부부 대신 들어온 사람들은 외지인이다. (10년을 살았지만 나도 외지인이다.) 몇 년 전 그 앞의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집에도 사람이 들어와 산다. 고양이들의 아지트도 얼마전에 새주인을 맞아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옆 동네엔 마을 한가운데 집들 사이에 펜션이 생겼다. 촌캉스가 유행이란다. 대체적으로는 아주 고요하고, 무척 성글게 구성된 마을이지만 아직까지는 살아 있다. 그러나 이제 여든을 넘긴 우리집 양 옆집 할머니들이 떠나는 때가 오면, 구성원 대부분이 비슷한 연령대인 이 마을이 어떻게 될지 짐작하기 어렵다.

3. 소멸의 한가운데

예술가들이 강화에 도착하고 리서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소멸' 앞의 '인구'는 금방 떼어졌다. 무엇이 소멸되는가 보다는 소멸 그 자체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강화. 강화의 풍경, 강화의 음식, 강화의 역사, 강화의 사람들, 강화의 문화, 모든 일정의 중심에 강화가 있었다. 강화에 살고 있는 나는, 강화가 무척 특별한 곳이라고 설명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어쩐지 낯간지러웠다. 내겐 그저 삶의 터전인 곳이라 그리 특별하게 돌아본 적이 없었다. 함께한 동료들은 강화의 풍경에 탄성을 지르고, 역사에 몰입하고, 더 알고 싶어했다. 강화에서 사람을 만나기가 왜이리 힘든지, 모두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기도 했다. 나도 동료들과 함께 이 곳을 바라보며 소멸에 대한 생각을 이어갔다. 그럴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꽤나 미묘한 것이었다. 이 곳을 찾아온 이들에게는 특별한 장소이지만, 나에게는 그냥 오늘을 사는 곳. 내 일상이 낯설게 설명되고 있을 때의 어색함. 사라지고 있는 것들 가까이에서 느끼는 무력감. 그렇지만 소멸을 목격하면서도 살아가야 하는 이중적인 포지션에 내가 있었다. 말하자면 소멸의 안쪽에 있는자의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소멸에 대한 담론을 몸으로 살고 있었다.

4. 소멸 - disappearance

리서치의 주제가 '소멸'이었으므로 우리 - 각국의 예술가들과 기획자들 - 는 이 주제에 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대화가 이어지면서 나는 우리가 서로 다른 뜻을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disappearance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지만, 내가 생각한 disappearance - 소멸 - 은 무언가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점차 옅어지고 희미해지며 시간 속에서 흩어지는 감각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disappearance는 보다 사건 중심적으로, 무언가가 '보이지 않게 되는 일'에 가까워 좀 더 명료한 느낌이 들었다. 속도와 온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했다.

Giovanni가 강화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던졌던 '마법지팡이 질문' - 당신에게 마법지팡이가 있어서, 강화에 있는 어느 것이든 한가지를 없앨 수 있다면 무엇을 없애겠습니까? - 은 나의 의문을 선명하게 해주었다. 저 것이 disappearance 구나. 한 번의 움직임으로 어떤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한 순간의 변화, 즉 사건으로서의 사라짐 이었다. 내가 떠올려온 '소멸'에는 그런 즉각적인 이미지가 없었다. 내게 소멸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다.

나는 우리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서 각자 다른 속도와 질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리서치를 진행하며 자연스레 스며나왔고, 이를 관찰하는 일 또한 흥미로운 지점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리서치가 이어진다면, 이 차이 - '소멸'과 'disappearance'의 간극 - 을 인지하고, 서로의 언어와 감각이 맞닿는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Population Decline) Disappearing

Last year, I went to Sadang Station in Seoul to meet someone for lunch. After eating, we wanted to grab a cup of tea at a nearby cafe, but even with so many big cafes around the station, there wasn't a single empty table. For someone like me, who lives in a place as quiet as Ganghwa, the sight of every cafe packed with people on a weekday afternoon was truly surprising. The person I was with explained it to me: 'Sadang is a huge meeting spot for seniors because the transportation is so convenient, so it's always buzzing.' After hearing that, I noticed that almost everyone in the cafes was elderly. Older people kept pouring out of the subways and buses. There were no children. It was a city occupied only by the elderly. The term 'population decline' has been in the news for a long time, and I've actually been living in an area officially designated as such by the government for ten years now. But that day, the reality of that word hit me harder than ever before.

So, when the topic of "disappearing" came up, I naturally thought of population decline. It was as if the word was permanently paired with "population decline," as if I had never imagined any other kind of disappearing. Living in an area where the population is declining, how do I actually perceive this development? That was the very first question I had when I started this research.

2. My Neighborhood

The grandmother living to the left of my house lost her husband a year before I moved in. Ten years later, she still continues to farm on her own with a resilient spirit. The grandmother to the right of my house

used to farm while taking care of her husband, who had dementia. She lost him the year before last, and now she lives alone. She still farms just like she always has. The man who ran the rice mill behind my house passed away last summer. Then there's the elderly couple across from me. They had lived in a rented house for a long time and finally built a brand-new home the year before last. But that same year, the husband was admitted to a nursing hospital, and the following year, the wife moved into a care facility. Now, that new house sits empty. The house right in front of that empty one has been abandoned for over ten years, becoming a ruin and a hangout for stray cats. There are several houses that have been abandoned for so long they are covered in ivy or have collapsing roofs. Looking at this scenery, I wonder if everything is just slowly fading, wearing out, and scattering through time until it eventually disappears.

Yet, on the outskirts of the village, new houses are constantly popping up where farms used to be. The people who moved in across from me, replacing the elderly couple, are outsiders. (I've lived here for ten years, but I'm still an outsider, too.) A few years ago, someone also moved into the house that was converted from a warehouse across the way. Even the ruin that used to be a cat haven recently got a new owner and is being remodeled. In the next village over, a vacation rental opened right in the middle of the local houses. Apparently, 'Chonkang-seu' (vacationing in rural areas) is a trend now. Overall, the village is very quiet and the community is quite sparse, but it's still alive for now. However, I know the time will come when the grandmothers on both sides of my house—who are now in their eighties—will pass away. Since most of the residents here are around the same age, it's hard to imagine what will happen to this village once they are gone.

3. In the Middle of Disappearing

Artists arrived in Ganghwa, and our group research began. The phrase "population decline" was quickly detached from "disappearing." Instead of focusing on what was disappearing, we spent our time focusing on disappearing itself. And then, there was Ganghwa. Ganghwa's scenery, food, history, people, and culture—Ganghwa was at the center of everything. As a resident of Ganghwa, I felt a bit embarrassed whenever a program tried to describe this place as something incredibly special. To me, it's just where I live, so I never really thought of it as anything extraordinary. My colleagues, however, marveled at the views, got lost in the history, and were excited to learn about it more. They wondered why it was so hard to find people here and where everyone had gone. Watching the island alongside them, I continued my thoughts on disappearing. The emotions I felt were quite subtle. For those visiting, it's a special place, but for me, it's just where I live my day-to-day life. It felt strange listening to my daily life being described in such unfamiliar ways. There was also a feeling of helplessness that came from being so close to things that are slowly disappearing. I was standing in the middle of duality: witnessing disappearance while having to keep living. In a way, I was experiencing the senses of someone in the midst of disappearing. I was living the discourse of disappearance with my own body.

4. Disappearing

Since the theme of our research was "disappearing," we—the artists and producers from different countries—spent a lot of time talking about it.

But as our conversations went on, I started to wonder if we were actually using the same word to mean different things. We were all

using the word disappearing, but when I thought of the Korean word somyeol—one translation of "disappearing" in Korean—it wasn't a complete disappearance that came to mind. Instead, it carried the feeling of things gradually fading, blurring, and scattering through time. By contrast, the English word "disappearing" felt more event-driven, like the clear-cut act of something "ceasing to be seen," which gave it a much more definitive feel. I felt there was a difference in both speed and temperature between the two.

The 'Magic Wand question' Giovanni asked the people he met in Ganghwa—'If you had a magic wand and could get rid of just one thing in Ganghwa, what would it be?'—made the answer to my question so clear. I thought, 'Ah, so that is what disappearing is.' It was something vanishing completely with a single movement. A momentary change— disappearing as an 'event.' The 'somyeol' I had in mind didn't have that kind of instant image. To me, it wasn't a result; it was a process.

I began to sense that even though we were exploring the same theme, we each carried our own distinct speeds and textures.
These differences naturally seeped out as the research progressed, and observing them was another fascinating part of the journey. However, if this research continues, I believe it's essential to recognize this difference—the gap between "somyeol" and "disappearing." From there, we need to go through a process of discovering a common ground where our respective languages and perceptions can resonate.

소멸

Disappearance



우리가 나눈 대화들

리서치 기간 중 걷고, 만나고,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저녁마다 나누었다. 많은 이야기와 생각들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키며 우리의 '소멸'에 대한 생각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뻗어나가기도, 그러다 다시 돌아와 제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도 했다. 이곳에 수없이 쏟아진 생각의 일부를 정리해 공유한다.

리서치 내용 및 방법론 공유 회의 / 9.16일(화)

박지선: 오늘부터 본격적인 리서치를 시작한다. 일정은 이미 공유되었지만, 왜 그렇게 구성했는지, 우리가 이번 리서치를 통해 무엇을 하려는지를 함께 정리하고자 한다. 또 각자가 관심 있는 지점과 집중하고 싶은 주제, 그리고 리서치에서 생성될 재료들이 어떻게 이후에 활용될 수 있을지를 함께 이야기하려 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가제는 〈⬡⬡의 섬〉이다. 현재는 임시로 '육각형'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소멸(Disappearance)에 대한 각자의 관점을 담는 하나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소멸'이라는 개념은 감정적·정치적·상징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작용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상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변형이나 순환일 수 있다. 즉,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섬은 모든 것의 섬이자, 모두의 섬이 될 수 있다. 소멸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모여 새로운 세계를 구성하는 가능성에 주목하려 한다. 육각형은 벌집의 형태이기도 하다. 이 형태가 서로 쌓이고 이어지며 만들어내는 구조는, 곧 우리가 함께 창조하려는 새로운 장소성과 관계의 상징이다. 각자의 점이 만나 '우리'가 되고, 그 만남으로 새로운 세계와 감각의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번 리서치는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1. 강화의 사람들(Community)

강화 유니버스의 마담과 파도가 커뮤니티와 맺어온 관계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 대화,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 자연(Nature)

산·들·바다·갯벌이 공존하는 강화의 자연적 특성을 탐구하며,
섬의 지형과 기후, 생태적 조건이 사람들의 삶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관찰한다.

3. 주제적 접근(Thematic Research)

강화의 지리적·정치적·환경적 맥락을 중심으로 소멸 담론을 확장한다.

-기후위기: 해수면 상승 등 강화가 실제적으로 직면한 생태적 위협.

-평화와 경계: DMZ와 맞닿은 강화의 특수한 지리성, 남북의 경계,
그리고 전쟁이 남긴 소멸의 기억.

이 리서치는 단순히 주제를 나열하기보다, 이 모든 층위가 얽히는 교차점을 함께 사유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2주는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짧은 시간이다. 따라서 모든 주제를 깊게 다루기는 어렵지만, 각자가 더 주목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탐구하거나, 혹은 전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방식으로 접근해도 좋다.
리서치 기간 동안 강화에 거주 중인 참여 예술가들은 주민들과 생활을 공유하며 그들의 시선으로 강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각자 강화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인식, 그리고 이곳에서의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나누고 기록할 예정이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리서치 방향을 공유하고, 이후 읍내에서 점심 후 강화 유니버스 주재의 커뮤니티 방문이 이어진다.

리서치 결과는 모아 웹사이트 형태의 기록물로 구축할 예정이다. 우리가 바라본 강화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맵핑하는 것이다. 또한 텍스트,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기록이 함께 진행되며, 구지민 작가가 웹사이트에 삽입될 일러스트 작업을 맡는다. 각자는 리서치 과정에서 자유로운 방식으로 기록하면 좋다. 텍스트, 사진, 영상 등 어떤 형식도 가능하며, 그때그때의 감정과 관찰, 사유를 남겨주길 바란다.

올해의 큰 주제는 '소멸에 대한 담론을 모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게 던질 공통의 질문을 하나 설정하려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지금, 무엇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와 같은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은유적인 표현도 가능하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소멸의 감각'을 수집하고자 한다.

연리목: 소멸이라는 주제를 생각했을 때 계속 드는 질문은 "소멸이 나쁜 것인가?"이다.

전윤환: 이어서 떠오르는 건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인가?"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예술가들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즉, '사라짐' 그 자체가 무엇인지 묻게 된다.

박지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소멸을 늘 나쁘게 보는데, 그 관점을 벗어나는 이야기인 것 같다. 나도 마찬가지다.

헝루운: 무엇이 지금 '사라지기를 거부'하고 있는가가 떠오른다.

박지선: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헝루운: 싱가포르 전통 가운데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더는 그 전통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어떤 전통은 동시대

에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아서 사라질 수도 있지만, 어떤 전통은 형식이 변하더라도 계속 존재하기도 한다. 어떤 전통이 사라지고, 어떤 전통이 남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요소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오바니: '소멸'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그것이 세상의 끝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소멸을 '인간의 소멸', 곧 죽음과 연결해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번영 같은 개념도 떠오른다. 그래서 첫 질문은 "왜 우리는 소멸을 두려워하는가?"이다.

이탈리아 인류학자 에르네스토 데 마르티노가 쓴『세상의 끝(The End of the World)』이라는 책이 있다. 그는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가를 연구했다. 이런 현상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누군가 그에게 "세상의 끝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세계'가 끝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나의 세계가 끝나면 그 이면에 또 다른 세계가 등장한다는 뜻이 아닐까.

안나: 아주 짧게 떠오르는 생각은,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 존재를 '보고 있었다'는 의미라는 점이다. 보고 있던 것이 사라졌음을 의식하려면, 먼저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인류세 관점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만약 모든 인간이 사라진다면 그 공간과 장소에는 무엇이 벌어질까? 또한 '사라짐'이라는 말을 들으면 '변화'라는 개념도 떠오른다. 사라짐은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일까?

쇼: 흥미로운 지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마법' 같은 감각이다. 장난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무언가가 사라진다면, 의도적이지 않는 한 그 사라짐은 영속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다시 말해, 누군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삭제되지 않는 한 흔적이 남는다. 그래서 그 흔적에 관심이 간다.

둘째는 그 흔적과 연결된 유적들이다. 오는 길에 성터를 봤는데, 성은 사라지고 흔적만 남아 있었다.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 그 흔적과 연결해 강화에 살았던 사람들—100년 전, 500년 전의 사람들—을 상상해본다. 오늘날 그들이 살아 있

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묻게 된다.

박지선: 소멸을 이야기할 때 두 갈래로 생각하게 된다. 하나는 자연스러운 소멸, 다른 하나는 인간에 의해 소멸되어선 안 될 것들이 소멸되는 경우다. 전자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나 존재가 사라지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세계 속에 원자 단위로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가 이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에는 물질적 관점에서 세계를 인지하다 보니 '모두가 사라지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는 생각이 위로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소멸과 달리, 지금은 사라지지 말아야 할 것들이 사라지고, 그 사라짐을 앞당기는 요인들이 있다는 점을 자주 떠올리게 된다.

전윤환: 그렇다면 자연스럽지 않은 소멸은 인간이 만들고 있는 것이니, 소멸을 늦출 수 있는 감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지오바니: 자연은 스스로에게 소멸을 질문하지 않는 것 같다. 소멸을 생각하는 존재는 인간뿐이고, 그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본다. 공룡들도 자신들이 마지막 세대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살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을 뿐이다.

이렇게 보면 인간도 불가역적 자연의 일부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연에 개입한다. 과연 우리는 자연의 일부인가, 아니면 분리된 인공적 존재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된다.

이건희(토토): 자연스러운 생과 사의 소멸에서 인간은 흔적을 남기려는 본능이 있는 듯하다. 일기, 비석, 가족사진, 족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흔적을 남겨왔다. 반면 인간의 개입으로 생긴 인위적 소멸도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 파괴,

그리고 한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 같은 역사적 사건들. 인간이 만들어 낸 소멸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흔적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우리는 기록의 관점을 가져야 하고, 잊히는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자 역할이 있을 것이고, 창작자로서는 잊혀져가는 것들을 어떻게 드러낼지 고민해야 한다. 자연스러운 소멸과 인위적 소멸은 분리되지 않고 얽혀 있으니 다각도로 봐야 한다.

박지선: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한국 정부—특히 지자체—는 '소멸'에 관심이 많다. 인구 감소 때문일 것이다. 서울 인구도 줄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접근은 결국 토목 공사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더 지으면 사람이 모일 거라는, 지역을 '작은 서울'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우리 창작자들이 하는 일은 그런 토목형 접근이 아니다. 예술가·문화기획자로서 다른 방식으로 소멸을 마주하며 새로운 일을 만들어간다. 국가적 시각과는 다르게, 우리는 소멸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작은 섬을 방문했을 때 인구 감소를 이유로 "무언가를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문화부 장관이 대통령과 대화 중 "왜 지역에 관광객이 없나?"라는 질문에 "공항이 없어서"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는 전형적인 토목 발상이다. 좁은 땅에 공항을 더 짓는다고 인구 소멸 문제가 해결될까? 오히려 생태를 훼손하고 특성 없는 세계를 만들 뿐이다.

우리 리서치가 우리 담론을 넘어, 소멸을 필연으로만 보지 않고 예술가·기획자로서 새로운 제안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전윤환: 비슷한 맥락에서, 강원도에서 대통령과 문화부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한 시민이 "강원도는 공격받아야 할 곳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곳의 강점은 다양성인데, 획일화된 개발은 그 다양성을 파괴해 결국 이곳을 사라지게 한다는 취지였다.

김나래: '소멸'이라는 주제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다. 인간의 소멸을 '막아야만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소멸을 그 순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받아들이는 연

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리서치를 하면서도, 결국 어떤 일을 해도 쌓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0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소멸의 의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긍정적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건희: 이제 막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소멸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불교적 관점이나 자연스러운 생성·순환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인간의 잘못으로 생긴 위기—예를 들어 해수면 상승—로 인해 소멸해가는 것들에 대한 관점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니, 리서치 과정에서 이런 시선들을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다.

헝루운: 두 가지가 든다. 첫째, 우리는 인간이라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싱가포르 신화에 "인간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신이 비웃는다"는 말이 있다. 인간의 욕구와 두려움은 늘 맞부딪힌다. 무언가를 짓고 만들려는 행위는 '내가 바꿀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예술가도 마찬가지다. 기존과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창작을 이끈다.

지오바니: 우리는 사라짐을 생각하면 수용하려 한다. 그런데 수용하고 나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지구를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인간은 죽음을 알기에 유산을 생각한다. 공룡은 자신들이 죽는다는 걸 몰랐기에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우리는 다르다.

앨런 바이스먼의 『인간 없는 세상(The World Without Us)』이 떠오른다. 인간 멸종 후 행성의 미래와 인간 유적의 소멸 과정을 보여준다.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흔적도 있다. 예를 들어 라디오·TV 전파처럼 우주로 퍼져나가는 것들. 그런데 그렇게 남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의도한 유산일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헝루운: 그 이야기를 들으니 물질적 사라짐과 비물질적 사라짐이 떠오른다. 싱가포르 원주민 공동체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 과거의 큰 사건을 마치 어제 일

처럼 말한다. 그들에게 시간은 길어졌다가 짧아지고, 멀어졌다가 가까워진다.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다. 동시대의 우리에게는 먼 과거 같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다. 그래서 비물질적 사라짐이 실제로 가능한가를 다시 묻게 된다.

박지선: 같은 시간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삶의 연속성에 따라 과거를 인지하는 방식이 다르다. 비연속적 시간 속에서만 존재한다면 소멸을 짧은 개인의 시간으로만 사고할 수 있다. 반대로 연속적 삶 속에 있다면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사라지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기록하고 남겨야 하는지'에 대한 사고가 달라질 수 있다. 원주민의 삶과 동시대 싱가포르의 삶이 얼마나 다르기에 시간 감각이 그렇게 다른지 질문하게 된다.

헝루운: 동시대 사람들은 시공간을 선형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시공간이 원형에 가깝다고 본다. 방문했던 마을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고된 삶을 살고, 어업을 하거나 흑마술을 하기도 한다. 그들의 일상은 손의 노동, 시각, 숲과 정글, 삶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의 시간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흐르는 듯하다.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공간에 빨려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김나래: 지금 강화의 작은 섬 '아차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0가구 정도가 사는데, 그분들은 자연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연속성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간다. 대부분 60대 후반부터 90대의 어르신들인데, 갯벌의 길을 몸의 감각으로 안다. 어두운 새벽에 조개를 캐러 나갈 때도 방향과 길을 정확히 짚는다. 예술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분들은 삶으로 이미 하고 계신다.

다음 주 월요일(23일)에 인천에서 주민들과 함께 한 프로젝트를 전시한다. 90대의, 평생 농사와 어업을 하신 할머니가 그림을 한 번 배우시더니 자연을 받아들이듯 수련하듯 작업하신다. 작가인 나보다 드로잉과 스케치를 더 많이, 삶의 일부로 하신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박지선: 앞으로 2주 동안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자의 질문과 그 질문에서 파생되는 질문들, 그리고 강화와의 연결이 만들어질 것 같다. 외부 리서치

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리서치다.

공통 질문을 하나로 모으기는 어렵겠지만, 결국 “소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라짐이란 무엇인가?”로 수렴될 것이다.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두렵지 않다면 왜 그런가?” 같은 구체적인 질문들로 확장하며 만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리서치를 진행하면 좋겠다.

피드백 대화 / 9.17일(수)

박지선: 오늘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강화를 다니며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이를 한꺼번에 공유하면 너무 많은 생각이 한 번에 쌓일 것이라고 판단해 중간중간 생각을 나누는 피드백 대화 시간을 가지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미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른 사람도 있고, 더 많은 질문이 생긴 사람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도 좋은 시간이라고 본다.

오늘 우리는 ‘평화’를 주제로 한국 현대사의 한 단면을 들었다.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자주 배우는 내용이지만, 처음 온 분들에게는 쉽게, 빠르게 소화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하여 더 알고 싶은 점이나,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알기로 전윤환 연출은 <강화도산책: 평화도큐먼트>(앤드씨어터, 2023)작업도 했고, 목사님도 이전에 한 번 뵌 적이 있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알고 있다.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제안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점이나 새로 생긴 질문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전윤환: 우리가 처음 리서치를 하러 왔을 때 만났던 여러 할머니 중 많은 분이 이미 돌아가신 상태이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99세가 넘으셨던 최○○ 할머니가 우리가 만났던 분 중 한 분이었다. 그분의 이야기를 구전으로 전하는 연극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여러 할머니 중 한 분이었다.

이처럼 계속 돌아가시는 상황 속에서 기록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은 이야기가 예술가를 통해서든, 예술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남고 기억될 수 있을지 다시 고민하

게 된 것이다.
또 하나는 최근 앤드씨어터와 박지선 PD님과 함께 아시아 리서치를 하며 여러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지금 강화에 와 계신 분들이 사는 나라에도 민간인 학살, 정치적 이념 갈등으로 인한 전쟁, 식민주의 같은 아픈 역사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다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박지선: 이 이야기뿐 아니라, 이틀 동안의 경험 속에서 받은 느낌을 편하게 이야기해주셔도 좋다고 생각한다.

지오바니: 나는 경계와 버려지는 장소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전방에 서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물러나거나 내려놓는다. 이 모습은 마치 벌레가 죽으면 뒤집어지는 것처럼, 인간이 문화적으로 어떤 것을 포기하는 듯한 감각을 주었다.
어제 김치전을 먹으면서 만난 왈순아지매께 "젊었을 때 미래에 대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가"를 여쭈어보았다. 사람은 어떤 것을 내려놓는 순간, 미래의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한 작가이자 영화감독은 젊은이들은 남은 미래가 많아 오히려 좌절, 불안, 의지의 혼란을 크게 느끼며,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나이가 든 사람은 남은 미래가 적어 오히려 걱정이 줄어든다고도 말했다.그런데 어제 만난 그분은 미래를 말할 때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에서 어떤 애도 같은 감정을 느꼈던 것이다.

송미선: 나는 애도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것이 아직 많으신 상태로 느껴졌다는 것이다. 커뮤니티를 만들고 연결을 확장하고 싶다고도 하셨고, 해변에서 뛰고 싶다고도 하셨다.그래서 편안하지 않아 보였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여건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지오바니가 애도처럼 느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오바니: 되돌아보니, 어제 만난 그분의 미래는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펼쳐지는 미래로 그려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어떤 사람은 1년의 시간에 10가지를 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의 시간에 1가지를 하고 싶어하는 식으로 미래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법이다. 그분은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남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른다. 아마 그래서 내가 애도처럼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헝루운: 오늘 만난 목사님과 어제 만난 여성분의 대비가 인상적이었다. 여성분에게서는 불안감이, 목사님에게서는 "어쩔 수 없다"는 감각이 느껴졌다. 흥미롭게도 여성분은 강화에 남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목사님은 가능하면 떠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같은 공간 안에 두 개의 다른 서사가 공존하는 느낌이었다.
두 분 모두 변화한 커뮤니티가 잃어버린 것들—에너지, 사람, 정신—에 대해 애도하고 계신 것으로 느껴졌다.
다만 여성분은 계속 행동하는 쪽에 가까웠고, 목사님은 한 발 물러선 상태로 보였다. 철책을 없애려다 물러서고, 책 아카이브도 시도하다 멈추고, 기념비에 관한 행동도 멈춘 듯한 인상이었다. 물론 오늘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인상이다. 행동과 물러섬의 대조가 강하게 느껴졌다.

박지선: 두 분을 이렇게 대비적으로 바라보니 더 많은 생각이 들었다. 어제 만난 왈순아지매는 오랫동안 커뮤니티를 만들고, 타인을 돌보며 세계를 구축해 오신 분으로 느껴졌다. 그런데 60세가 된 지금, 자신의 행복과 타인을 돌보는 일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내 행복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쓰는 에너지가 나에게 돌아오지 못할 때 고민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목사님 역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복잡하고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발언의 위험을 크게 느끼셨으리라 본다. 그럼에도 의미가 있어 계속해오셨지만, 지금은 주저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두 분 모두 지속가능성을 지탱할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로 보인다. 그 에너지는 원래 있었지만 사라진 것인지, 없던 것을 애써 만들어온 것인지, 혹은 공동체가 개인에게 그 에너지를 환류해주지 못한 것인지 질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방

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사실 이는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어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왜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들 수 있다.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 지속되는지, 무엇이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 것이다.

지오바니: 유토피아란 무엇인지 묻게 된다. 유토피아를 욕망으로 보기도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장소라고도 생각한다. 지평선처럼 다가가면 멀어지는 개념이다. 완전히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옳다고 믿기에 계속하는 것이다. 밤에 양심을 돌아볼 때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마음으로 잠들고 싶기 때문이다. 결국 유토피아, 에너지, 정치적 몸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안나: 시골에서는 사람들이 자연과 융합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느낀다. 오늘 강화의 역사를 배우며 "이곳에는 과거와 미래가 없고, 현재만 연속되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사람들에게 재산이나 소유에 대한 감각이 희박해 보였고, 이곳의 많은 것들이 매우 임시적인 성격을 띠는 듯했다.

내가 말하는 역사는 책에 적힌 기록이 아니라, 공기 속에 녹아 있는 역사라고 생각한다. 이곳은 누구도 완전히 속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누구나 속할 수 있는 장소처럼 느껴지는 곳이었다. 우리가 오늘 방문한 장소들은 외부인을 특별히 환대하지도, 배척하지도 않는 묘한 분위기를 주었고, 경계의 '안'과 '밖'이 흐릿하게 존재하는 듯한 감각을 주었다.
이탈리아의 사진작가 루이지 길리가 떠올랐다. 그는 외로움과 버려진 장소를 찍지만, 그 사진에는 늘 삶의 기척이 있다. 오늘 평화학교를 방문했을 때, 공간을 옮길 때마다 "여기 앉으세요"라고 안내받았는데, 그 자리의 의자가 원래부터 있던 것인지 문득 궁금해졌다.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시간에 대한 일종의 환영 같은 감각이었다.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길가에는 일상의 물건들이 밖에 놓여 있었다.마치 "원하면 가져다 쓰라"라고 말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길리의 사진에 자주 등장하는 의자처럼, 누군가를 기다리는 물체 혹은 누군가 남기고 간 흔적처럼 느껴졌다. 지오바니가 말한 것처럼, 현미경 아래 박테리아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삶과 가깝지만 동시에 분리된—멀고도 가까운 감각이

들었다.

쇼: 어제 연미정에 올라 북한을 바라보며 매우 시적인 감각을 느꼈다.비극적인 트라우마가 각인된 장소에서 거대한 힘이 평범한 삶에 미친 영향이 선명하게 보였다. 북한 마을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을 보았고, 북한에서도 이쪽의 불빛이 보인다고 들었다. 사물이 보인다는 것은 빛이 물체에 닿아 반사되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 생각을 하니, 빛이 북한을 터치하고, 다시 남한의 우리를 터치한 셈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실용적으로는 남북이 오갈 수 없지만, 그런 은유적인 접촉에서 작은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비극에서 출발한 로맨틱한 발상일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에는 의미 있게 느껴졌다.

또 한국 동료들이 이런 감각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궁금하다. 그리고 강화에 사는 분들은 친구가 "강화로 이사 가도 괜찮을까?"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지, 외부인이 강화에서 잘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이건희: 안나가 이야기한 장소적 감각에 공감한다. 목사님을 함께 뵙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우리(희와래)는 서울에서 강화로 이주한 지 6년이 되었다. 이런 형태의 이주민이 강화에 많아졌고, 외지인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지역이다. 내가 사는 마을도 원주민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외지인이다. 최근 강화에서는 개발이 많아졌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건축이 급증했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전국 건축률 1~2위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그래서 안나가 느낀 '임시성과 낯섦'은 이런 빠른 개발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럽에는 오래된 집이 많이 보존되어 있지만, 한국은 외부인이 많이 오는 지역일수록 새로 짓거나 외관을 크게 바꾸는 경향이 있다. 대룡시장도 외부 상인들이 주말에 들어와 장사하는 곳이 되어, 원주민은 매우 적고 대부분 외지인이 형성하고 있는 구조이다.쇼의 질문에 답하자면, 강화가 살기 좋은지는 '직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외지인 중에는 은퇴 세대가 많고, 반대로 강화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이들은 대학과 직장을 위해 대도시로 떠난다. 숫자는 일시적으로 증가해도, 젊은 층이 빠져나가면 결국 인구 절벽이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강화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누군가 강화에서 살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서 어떻게 일하고 먹고 살 것인지가 핵심이다. 직업 문제만 해결된다면 매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김나래: 안나가 말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느낌'에 깊이 공감한다. 나도 토토(이건희)와 강화로 이주했지만, 아직 강화인이라는 감각을 뚜렷하게 느끼고 있지 못하다.이유를 생각해보면, 토박이에게서 외부인에 대한 환대를 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외지인들끼리의 연대뿐 아니라 더 폭넓은 관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강화는 섬이라 폐쇄성이 있고, 동시에 강한 자부심과 끈끈함이 존재한다. 외부에서 특히 젊은 층이 창작이나 생산 활동을 하면, 응원이나 환대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나는 그 감각을 많지 않게 느꼈다. 그래서 외로움과 괴리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기에서 살아보기 위해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지오바니: 강화에 전통 음악이나 춤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하다.

강윤민지: 굿이 있다. 외포리에서 정기적으로 굿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곶창굿'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

이건희: 굿은 제의이다. (영어 good과 발음은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이다.)

헝루운: 지금까지 인터뷰한 분들이 대부분 강화 이주민이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난정평화학교에서 만난 분도 말투가 달라 어느 지역 출신인지 궁금했다. 아직 로컬 토박이 인터뷰는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이주한 사람들은 보통 그 공간에 다른 상상력을 가지고 오고, 토박이의 상상력과는 다르게 작동한다. 그 사이에 어떤 긴장과 간극이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그 답을 듣기 전에, 쇼의 질문에 답하고 싶은 분이 있는지 묻고 싶다.

강윤민지: "왜 강화에 갔느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내 SNS를 본 친구들이 "언니처럼 시골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

랐고, 6~7년 전 강화로 왔다. 아직도 강화가 너무 좋다. 서울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늘 있었다. 집에 있지 않고 계속 밖으로 돌았다.

어느 순간 "굳이 서울에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겼다. 처음에는 제주도를 생각했지만, 우연히 강화에 왔다가 "여기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이주했다. 결과적으로 나와 잘 맞는 장소였다. 내가 사는 곳은 형님네와 동생네가 함께 사는 동네인데, 이웃들이 정말 좋다. 함께 술도 마시고, 텃밭을 가꾸면 앞집 어르신들이 먼저 말을 건네주신다. 이건 나에게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주민이 많은 곳은 분위기가 또 다르다. 토박이분들은 "외지인이 벽을 세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외지인이 하수도를 이웃집 아래로 트려고 했지만 관계가 없어 허락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다. 우리가 요청했다면 관계가 있으니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다. 토박이들은 외지인이 왔다가 떠나는 일을 여러 번 겪으며 마음에 상처가 쌓인 것 같다고 생각한다. 도시는 너무 크고 넘쳐나서, 자신이 어떤 호흡으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물리적 거리가 있다 보니 자신을 알아갈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자연의 소멸'을 많이 감각한다. 도시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었는데, 텃밭을 하고 먹거리를 나누다 보면 자연의 변화와 소멸을 가까이서 느끼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친구가 없으면 외롭다. 나는 희와래, 연리목, 그리고 여기까지 와주는 친구들이 있어 살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서울로 공연을 다니는데 편도 3시간 30분 정도가 걸린다. 아직은 그 시간을 견딜 에너지가 있다. "그렇게 먼데도 강화가 좋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나는 아직 강화가 매우 좋다.

마지막으로, 어제와 오늘 리서치를 다니며 계속 맴도는 생각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싶은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말은 결국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과 같다.

나는 그 질문을 품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지선: 쇼가 말한 것처럼, 이 작업을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각이 더 많이 교류되면 좋겠다고 본다. 오늘 나온 이야기는 시작점이며, 앞으로 이 내용을 바

탕으로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자 한다.

안나: 아까 말한 내용에 오해가 있을까 하여 덧붙이고자 한다. 내가 말한 '모두가 이방인처럼 느껴졌다'는 뜻이 아니다. 사람들에게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강화라는 지역 자체가 누구도 완전히 속하지 않은 듯하면서도, 동시에 누구나 속할 수 있는 곳처럼 느껴졌다는 의미였다.

피드백 대화 / 9.19일(금)

박지선: 벌써 금요일이라 한 주가 금방 지나간 것 같다. 지난번 이야기와 꼭 이어지지 않더라도, 리서치를 하면서 느낀 점이나 서로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시간이다.

전윤환: 연리목이 지금 전시 준비로 참석을 못해서 대신 편지를 보내왔다. 대신 읽어보겠다.

연리목 (편지)

여러분 안녕. 연리목이에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강화와 가장 먼 도시인 부산에 가고 있어요. 이 곳에서 큰 영화 축제가 열리거든요. 공연과 비지니스 미팅이 오래전에 잡혀있어서 피치 못하게 참석하게 되었네요. 여러분들을 뒤로 하고 먼길 떠나려니 마음이 편치 않아요.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그 곳에서 함께 고민할 거에요..

'소멸'이라는 주제를 처음 전해들었을 때는, '소멸'는 '막아야 하는 것'이라는 인상이었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인구 소멸'이라는 주제가 워낙 대두되고 있고, 특히 제가 사는 강화 지역은 '인구 소멸지역'으로 선정되었거든요. 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어요. 이러다가는 노인만 넘쳐나는 세상이 되겠구나 라고 걱정을 하곤 해요.

하지만 제가 첫날 말씀드렸듯이, '소멸'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할 수록, 그 것이 나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점점 깊어져요. 지구를 생각하면 인간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사라지는 것이 있어야 나타

나는 것도 있는 법일테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 여러분을 만났는데,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업을 지원해주는 관공서는 각국의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인구소멸'의 해결책을 새로운 관점에서 찾아주길 기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 모여 앉아 '소멸'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너무 멋지네요.

난정평화교육원에 갔을 때는 '인간은 왜 계속 싸워야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 슬펐어요.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현재진행형이니까요. 그렇지만 황소 구출작전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인간이란 참 사랑스럽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이 세상에 소멸해야 마땅한 존재가 있을까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지오바니의 마법봉 질문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돕니다.

왈순아지매에 다녀오고서, 싱가폴에서 온 '행'이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그 곳 대표님이 피아노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저와 제 아이들, 그리고 대표님이 함께 음악을 만들어 연주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의견이었어요. 각 세대가 모여 화음을 이루는 것을 상상해보니 멋질 것 같다고 했는데, 저도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지 잘 생각해보려 해요.

월요일은 '강화에 사는 사람과 시간 보내기' 하는 날인데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곳에 가보고, 강화의 관공서를 이용해보는 프로그램을 생각해보았습니다. 함께 맛난 한정식을 먹고, 제가 강화에서 가장 애정하는 공간인 강화미술도서관에 가려고 해요. 강화미술도서관 관장님은 오랜 시간 미술계에서 활동한 큐레이터이자 기획자인데요, 그동안 수집하고 소장한 국내외 미술가의 작품, 서적, 희귀본, 작품집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작은 사설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 곳에서 쉬면서 책도 보고(영어책도 많습니다), 판매하는 예쁜 엽서에 친구에게 혹은 본인에게 편지도 써서, 강화우체국에 가서 부치고 마무리 하려 합니다.

저는 외국에 가면 그 곳 우체국에서 편지 부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럼 곧 만나요. 안녕~

전윤환: 우리가 소멸과 사라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이 자리에 직접 있는 대신 부산으로 가는 길에 보낸 메시지가 오히려 더 깊이 다가오는 것 같다. 부재한다는 것이 때로는 더 크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감각을 주는 것 같다.

박지선: 안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멸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더 바라보고 집중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소멸하는 존재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

헝루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생각나는 게 있다. 싱가포르는 정말 작은 섬인데, 개발 프로젝트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늘 누군가가 무언가를 없애기로 결정한 뒤에야 사람들의 반응이 나온다. 예를 들어 무덤이 없어지거나 숲이 없어지거나 해야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경을 안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없어지지 않으면 크게 생각을 안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없어진다는 것이 무언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어떤 외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건희: 먼저 기후 위기라던지 인구 소멸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생성되는 것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기존에 제가 바라봤던 관점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저는 돈대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는 돈대의 돌들은 석모도에서 왔다. 그렇다면 돌은 어디로 갔을까? 사람들이 집을 짓기 위해 가지고 가고, 갯벌에 사용 하는 등 돌들이 사라지고 있다. 돌들을 가지고 가서 복원이 되지 않은 곳은, 마을 경작지가 되거나, 야생 식물들판이 되어있음. 자연스러운 순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소멸과 관점에서 보면, 돈대의 사례는 소멸과 생성이 자연스럽게 시간 속

에서 사람들의 삶이 연결되는 것 같다.

송미선: 오늘 방문한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상적으로 보인다. 생각과 삶의 방식이 비슷한 사람들과 사는 것이 과연 이상적인 것일까?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런 공동체에서 살고 싶은지 궁금하다.

안나: 그런 공동체에 없는 것이 위험을 경험하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한다. 안전을 위해 무언가를 구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안전 속에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 없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그 공동체가 마치 아쿠아리움 같았다.

김나래: 안나가 하는 말에 공감이 된다. 동화책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들의 공동체는 공동 육아가 중심이 되다 보니 자식들에게 개별성이 있을까? 개별성을 부모가 인정할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패쇄적인 생각이 들었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이 보였다. 강화 안의 또다른 강화, 섬안의 섬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연결하는 그물망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오바니: '안전함'에 관한 이야기로, 커뮤니티는 무엇인가? 커뮤니티는 왜 모여서 구축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든다. 커뮤니티는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함께 있으면 안전하고, 서로의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의 경우 공동체 마을에 사셨는데 티비도 없고 자동차도 없었는데, 차가 필요한 경우 남에게 빌렸다. 이렇게 자신에게 없는 것을 서로 채워주는 개념으로 커뮤니티가 존재했고, 사회주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개인은 가난하지만 커뮤니티는 부유하다. 모두의 필요가 커뮤니티 안에서 채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쇼: 오늘 경험한 공동체의 모습은 나에게 익숙한 모습은 아니었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가 있는데, 삶의 여건이 넉넉치 않은 사람들은 때로는 모임을 통해 커뮤니티를 구성함으로써 위안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는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가 있는데, 사회적 배경이 낮은 사람들은 때로는 모임을 통해 커뮤니티를 구성함으로써 위안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배타적인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중요한 점은 왜 배타적이고, 어떤 방식으로 배타적인가에 대해 더 중요하게 다뤄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작업을 하는데, 장애와 비장애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때로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배타적인 것은 중립적이다. 왜, 어떻게 배타적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헝루운: 인생의 여정에서 나머지 반쪽은 찾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사람은 혼자 걷지 않는다라는 불교의 두가지 개념을 이야기하고 싶다. 첫번째로는 '테라바다'라는 개념으로 개인적인 성장, 내적인 축척을 의미한다. 두번째로는 '마하얀'이라는 개념으로 자신의 일이 어떻게 남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가 남을 저 안으로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가라는 개념이다. 커뮤니티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커뮤니티가 과연 각자를 위한 것인가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생태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된다. 자신의 권익이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자신의 안전만 추구하여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기회를 박탈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된다.

박지선: 오늘 커뮤니티는 무엇인가? 그리고 안전함이라는 것에 대해 중요한 키워드로 나온 것 같다. 주말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커뮤니티는 무엇인지, 그 커뮤니티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커뮤니티 안에서의 안점함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예술가로써 다른 맥락으로 안점함에 대해 고민해봐도 좋겠다.

아고라 2부 '소멸의 담론' / 9.25일(목)

아고라에서 공유한 대부분의 이야기는 기록집 다른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여기서는 2부 중 나누었던 '소멸'에 대한 현재의 생각을 간단히 정리했다.

박지선: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가진 주제 '소멸'과 강화에서의 발견을 나누려 한다. 예술가들의 작업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두 소멸과 연결되어 있다. 먼저 강화 외부에서 온 분들에게 지난 열흘간 강화에서 느낀 인상을 듣고 싶다.

지오바니: 우리 팀은 트리오 디아트린 게스타치오네로, 예술가이자 큐레이터로서 커뮤니티 기반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소멸이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 처음 든 질문은 "왜 인간은 사라지고 싶어 하지 않는가"였다.
모든 생명은 사라지지만 인간은 소멸에 저항하고, 과거를 복구하려 애쓴다. 우리가 이탈리아의 소멸 위기의 마을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에서도, 마지막 아고라에서 "사라지는 것을 받아들이자. 이 마을이 더 이상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사라져도 괜찮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인간은 진화 대신 문화를 유산으로 남긴다. 다른 문화를 수용한다는 것은 나의 문화적 DNA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일종의 죽음이다.

박지선: 지오바니가 언급한 문화적 유산의 이야기를 이어서, 싱가포르의 행에게 마이크를 넘기겠다.

헝루운: 유산에는 물질적 유산과 비물질적 유산이 있다. 강화에서 머무는 동안 두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하나는 남북이 마주 보이는 지점의 잔잔한 물이었다. 그 풍경에서 'haunt(사로잡힘)'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또 하나는 우리가 머무는 북일지의 숲이다. 매일 아침 나무들이 마치 말을 거는 듯했다.
흥미롭게도 haunt의 철자를 바꾸면 말레이어로 숲을 뜻하는 hutan, 그리고 유령을 뜻하는 hantu가 된다.
보이는 영혼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이 섬에 머물고 있는 듯했다.

박지선: 이제 한국의 예술가 이야기를 들어보자. 연리목은 "소멸이 나쁜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 생각이 지금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듣고 싶다.

연리목: 처음엔 '인구 소멸'을 막는 리서치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생각이 바뀌었다. 인간의 소멸이 오히려 지구에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술가로서 기억에 남는 작업을 남기고 싶지만, 최근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으면서 '사라짐'이 자연스러운 순환임을 깨달았다. 소멸은 슬프지만 동시에 존중해야 할 과정이다. 인간은 사라지기를 원치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힘 또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지선: 앤드씨어터의 전윤환은 소멸의 '목격자' 개념을 이야기했다. 이어서 설명해 달라.

전윤환: 리서치 중 연리목이 부재했던 시기, 대신 읽힌 편지를 통해 부재가 오히려 존재를 강하게 느끼게 했다.
소멸은 누군가가 '목격'하기 때문에 인지된다. 그 목격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정책 결정자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도시화를 추진한다면, 그 도시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소멸이 일어난다.
나는 '소멸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누가 소멸을 결정하고, 누가 그것을 목격하는가에 따라 자율성이 훼손되기도, 유지되기도 한다.

박지선: 이번에는 안나의 생각을 듣고 싶다. 강화라는 장소를 어떻게 느꼈는가?

안나: 강화에서 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이곳 사람들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한가?"
이곳은 삶의 지식을 나누는 '삶의 대학' 같았다. 여러 커뮤니티들이 자율적으로 존재하고, 각자 독립적이다.

하지만 장소 자체의 자율성이 너무 강해서 서로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듯했다.
강화라는 장소는 스스로의 존재감을 가진다. 사람보다 장소가 더 큰 존재로 느껴졌고, "사람이 장소를 만드는가, 장소가 사람을 만드는가?"라는 질문이 생겼다.

박지선: 이제 쇼에게 마이크를 넘긴다. '딥 타임(Deep Time)'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

쇼: 딥 타임은 인간의 시간 단위를 넘어, 수백만 년의 지질학적 시간을 보는 관점이다.
지구는 여러 번의 멸종을 겪었고, 생명은 그 속에서도 계속 버텨왔다. 인간은 사라지지 않으려 하지만, 지구적 관점에서 보면 소멸 또한 순환의 일부다.
이 순환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인간 역시 그 연속 속에 남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김나래: 이번 리서치를 통해 '사라짐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채워진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인위적이고 비자연적인 소멸도 존재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록할 것인가, 관찰자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박지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적 관점에서 마담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마담: 지금은 소멸이라기보다 '변화'의 시기라고 본다. AI 시대에 개인화가 심화되며 관계가 분절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오프라인의 감각,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애정의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박지선: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다.


리서치도 예술도 좋지만...일단은 먹자!!
오늘의 요리사들
강화도 x 이탈리아
봉골레 파스타
feat. 직접 캔 조개
강화도 x 싱가포르
배추두부탕
with 로컬푸드
와아아아
잘 먹겠습니다!


5분 후...
텅 텅...
잘 먹었습니다-!!!
생성하자마자
'소멸'됐어...
무서운 사람들...
소식좌
미선


아냐. 우리가 먹은 건 사라지지 않아.
우리 뱃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거야.
크하핫
대식좌
지선
척
응. 그래.

동물들은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들은 죽음을 상상한다.
따라서 유산을 생각한다.



세상에 무엇이 남기를 바라는가?



그를 위해 나는 어떻게 힘 쓸 것 인가?





소멸이 없는 세상.
그것은 불가능한 유토피아다.

비록 유토피아는 실제하진 않지만
'방향'에 관해서는 유효한 말이다.



소중한 것,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자꾸 손아귀에서 빠져 나가도



계속 붙잡음으로 방향을 찾는다.
그게 유일한 유토피아의 실체다.

유토피아를 향해 할 수 있는 걸 하며
하루를 보내고 편안하게 잠들고 싶어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강화에는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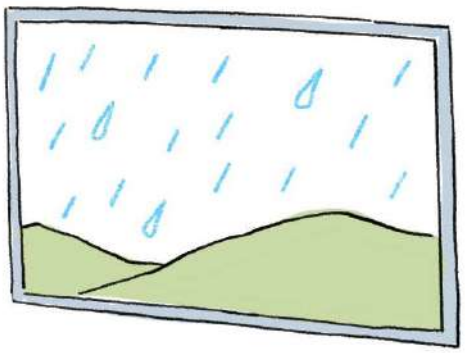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있다는 건... 허무해
휴우
결국 소멸로 가는 길목이잖아.


그렇다고 죽어버릴 순 없지뭐.
맞아!
세상엔 먹어봐야할 게
너무 많이 남았다구.
그...그래..;


휴...결국 모두가 죽을 건데,
모든 것은 무의미한 거 아냐?
왜 사니
하...
그럴지도.
MBTI
T
→
솰라 솰라
우리는 생물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 유전체 계승과
보전의 역할 외에는 우주적으로 큰 의미가 없ㄴ...


흑...
(앗차)
하... 하지만 난 이렇게 생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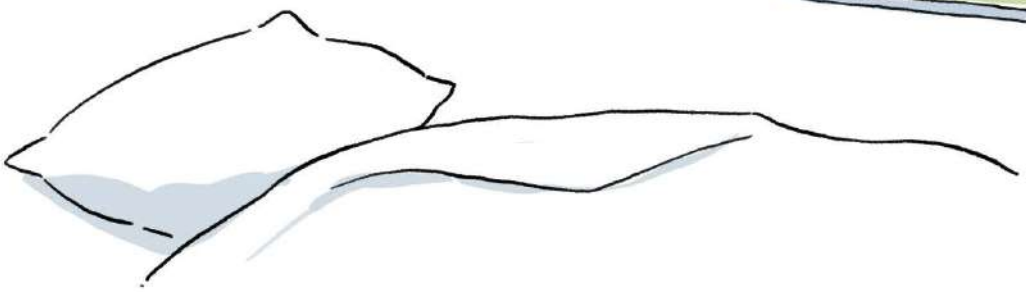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삶이란 허무하다' 라는 생각의 편리함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일 아닐까?





매일 권태로움의 폭력을 이겨내며
빛나는 걸 수집하는 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













참여가/단체 소개 Participants & Organization

강화유니버스

강화유니버스는 인천 강화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환대로 만들어가는 느슨한 커뮤니티다.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강화에서 개인들이 서로의 생업과 작업을 연결하며, 공동성을 발견하고 협력의 감각을 만들어가는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개별적인 활동을 넘어, 강화유니버스는 지역 사회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자각하고, 다른 이들과 연결되며 함께 살아가는 감각을 회복하는 공동체적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안전망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배움과 실천의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과 연결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조성한다.

프로젝트들은 특정한 목적보다는, 사람과 감각이 만나는 장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공방, 카페, 시장, 골목 등 지역의 일상 공간이 새로운 배움과 실천의 장소가 되며, 그 안에서 사람들의 연결은 더욱 유기적으로 이어진다.

Ganghwa Universe

Ganghwa Universe is a loosely connected community built around hospitality, operating in Ganghwa Island, Incheon. In Ganghwa, which is experiencing a crisis of population decline, members of Ganghwa Universe continue to connect each other's livelihoods and work, discover commonality, and create a sense of collaboration. Moving beyond individual activities, Ganghwa Universe fosters a communal movement in which people become aware of their roles within the local society, reconnect with others, and restore the feeling of living

together.

Through these movements, they are building, together with local residents, new culture and values, and a safety net through which they can support one another. Particular focus is placed on creating foundations that allow teenagers and young adults to continue living in the region.

Centered on culture and arts, they provide diverse opportunities for learning and practice, while creating an open environment that enables connection to the local regions.

Their projects are not driven by specific goals; instead, they center on moments where people and their sensibilities encounter one another. Everyday local spaces—such as workshops, cafés, markets, and alleys—become sites for new learning and practice. Within these spaces, human connections unfold in a more organic and natural way.

시부야대학

시부야대학은 일본 도쿄 시부야를 기반으로 한 열린 시민 대학으로, 누구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평생 학습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규 캠퍼스나 학위 과정 없이, 다양한 공간에서 열린 강연과 워크숍을 운영하며, 배움을 통해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

배움의 경계를 허물어서 누구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강연자가 될 수 있다.

수강생들은 특정한 조건 없이 자유롭게 강의를 들으며, 일상 속에서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찾도록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하고 ,강의 장소는 전통적인 강의실이 아닌, 카페, 공원, 갤러리, 기업 사무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열린다.

이를 통해 도시는 자연스럽게 배움의 장이 되고, 지역 사회와의 연결이 더욱 깊어진다. 특정한 커리큘럼 없이, 참가자들의 관심사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철학, 예술, 환경, 지역 문화, 비즈니스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 이를 통해 사람들과의 교류를 촉진한다.

Shibuya University

Shibuya University is an open civic university based in Shibuya, Tokyo, Japan, operating as a lifelong learning platform where anyone can both learn and teach. Without a formal campus or degree programs, it runs open lectures and workshops in various spaces, with the goal of connecting people and the local community through learning.

By breaking down the boundaries of learning, anyone can become a lecturer and share their own knowledge and experiences.

Participants can freely attend classes without any specific conditions. The platform encourages them to discover new learning opportunities in their everyday lives by connecting with the local community. Lectures are not held in traditional classrooms but take place in a wide variety of everyday spaces, such as cafés, parks, galleries, corporate offices, and more.

As a result, the city itself naturally becomes a place of learning, and connections within the local community deepen. Without a fixed curriculum, the programs are run based on the interests of participants and current social issues. They cover a wide range of topics—including philosophy, art, environment, local culture, business, and beyond—thereby promoting meaningful exchanges among people.

시민교류의 의미

단순한 국제교류를 넘어

강화유니버스와 시부야대학의 시민 교류에서 우리가 꾸준히 고민해온 질문은 “어떻게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이다. 이 물음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세계 곳곳에서도 동일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었고, 우리는 이 질문에 공감하는 해외의 친구들과 함께 삶의 방식을 실험하며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 시작점 중 하나가 바로 일본 시부야대학과의 만남이었다.

.

장소에 대한 새로운 감각의 교류

올해 2월, 강화의 친구들이 일본 시부야대학을 방문해 그들의 철학과 가치관을 직접 마주하게 되었다.

강화유니버스와 시부야대학은 장소를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 축적된 사회적 관계와 가치로 바라보는 감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공감은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했으며, 자연스러운 연결의 실험으로 이어졌다.

9월에는 시부야대학의 스탭들이 강화도를 찾았고, 11월에는 일반 시민들까지 강화로 방문하게 되었다.

중요한 점은 이 만남이 단체 간 협약이나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일상 속에서 감각과 가치관을 나누는 교류를 지향했다.

예를 들어, 문학을 좋아하는 참가자들이 양국의 문학과 서점 경험을 공유하거나, 식문화를 고민하는 친구가 일본에서 장을 담그는 선생님과 지역 제철 식재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이러한 만남은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감각과 가치, 삶의 철학이 오가는 대화였다. 이 작은 연결들이 쌓이며 다층적인 관계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장소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번 교류는 장소를 사회적 관계의 결과로 다시 읽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강화도는 섬이지만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는 쉽게 단절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진정한 연결이 감각과 가치관에서 출발한다고 믿는다.교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우리가 공유하는 감각은 일상의 우연성을 환대하고, 정해진 틀 없이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 속에서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관계는 시간과 애정을 담아야 쌓입니다

좋은 관계는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이번 인연 또한 단순한 정보 교류가 아니라, 오랜 시간 서로를 지켜보며 쌓아온 감정과 가치의 공감 위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연결은 앞으로 지역에서 새로운 활동 주체를 발굴하고, 다층적 문화 협력 네트워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단기 성과가 아닌, 함께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여정이다.

작고 섬세한 연결이 만드는 새로운 로컬

이 교류의 핵심은 사람을 살펴보는 환대, 섬세한 설명, 함께 나누는 일상의 대화와 같은 작고 부드러운 행동들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발생하는 우연성과 예상치 못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지역은 연결의 감각을 다시 회복해 간다. 시부야대학과 강화유니버스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러한 흐름은 각자의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로컬'을 상상하게 한다.

Beyond Simple International Exchange

Through the citizen exchange of Ganghwa Universe and Shibuya University, one question we have been continually exploring is "How can I live as my true self?" This question is not unique to Korea.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been wrestling with the same question. We began connecting with friends overseas who share this question, experimenting together with different ways of living.

One of the starting points for this connection was our encounter with Shibuya University in Japan.

Exchange of New Senses of Place

In February of this year, friends from Ganghwa visited Shibuya University in Japan and experienced their philosophy and values firsthand.
Ganghwa Universe and Shibuya University shared a common sensibility: seeing place not merely as physical space, but as something shaped by the social relationships and values embedded within it.
This shared understanding made deep conversations possible and naturally led to an experiment of natural connection.

In September, staff members from Shibuya University visited Ganghwa, and in November, the exchange expanded to include visits by ordinary citizens as well.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se encounters were not based on formal agreements between institutions or formal visits. Rather, they aimed to foster exchanges in which people met one another and shared their feelings and values in the course of everyday life.

For example, participants who love literature shared experiences

of literature and bookstores in both countries, or a food enthusiast spoke with a Japanese participant who makes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about local seasonal ingredients. These encounters went beyond simple cultural exchange; they became conversations in which sensations, values, and philosophies of life were exchanged. Through these small connections accumulating over time, a multi-layered network of relationships began to form.

Place Is Not Fixed

This exchange focuses on re-reading place as the result of social relationships.

Ganghwa is an island, yet it is connected to the world. In modern society, however, social relationships tend to be easily severed or disconnected.

We believe that genuine connection begins with shared sensibilities and values. It is precisely at this point that exchange becomes

meaningful. The sensibilities we share welcome the serendipity of everyday life and, through relationships in which we come to know one another without fixed frameworks, further enrich the unique identity of each place.

Relationships Are Built with Time and Affection

Good relationships cannot be built through just one visit. This connection, too, did not begin with a simple exchange of information. It grew from a foundation of emotions and shared values that had been quietly accumulated over time. We believe that such connections will, in the future, help discover new active participants in the region and lead to multi-layered networks of cultural collaboration.

This is not about short-term results. It is a journey of building a foundation where people can stay together for a long time.

Small and Delicate Connections Create a New Local

The core of this interaction lies in subtle yet thoughtful actions—attentive hospitality, detailed explanations, and the sharing of everyday life. Within the serendipities and unexpected developments of stories that emerge when people meet, a place gradually recovers its sense of connection. The evolving exchange that Shibuya University and Ganghwa Universe are creating together invites us to imagine a "living locality" that can be practiced in each of our own regions.

사진자료 강화 산마을고등학교



강화도 논길 걷기



강화 순무 만들기







선물 교환





시부야대학 프로그램



책방시점 방문



시부야 대학 참여자 후기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가치관이 같다면 국경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가치관 속에서만 살아온 저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웠는데, 특히 학교 시절에는 정신적으로 힘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 다양한 사회를 보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에너지가 넘치는 언어'라고 느꼈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일본어보다 더 생동감을 느꼈습니다.

리프레시하고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인도 한국인도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것. 한국 사람들이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의 따뜻함과 자연의 편안함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관계의 따뜻함은 개인의 용기의 기반이 됩니다. 그 따뜻함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고 나누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스스로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인이 된 이후로는 쉬는 날에도 머릿속 한켠에 늘 일이 있어서, 마음 깊이 리프레시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화도에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과의 교류에 집중하면서, 대화를 통해 내가 어떤 것에 흥미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할 때 언어라는 수단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이야기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신의 감정을 전하고자 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일본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본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경험을 계기로 예전보다 일본의 문화, 역사, 지역에

관심이 생겨 국내를 여행하며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하던 가게가 문을 닫는 등, 나에게 소중하고 언제나 있을 거라 믿었던 '내 자리'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외로움을 안고 지내왔지만, 이번 강화에서 보낸 깊고도 느린 시간은 그 복잡한 감정을 리셋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를 둘러싼 환경은 계속 변하겠지만, 길을 잃었을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이 강화도에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공동 기획: 앤드씨어터, 프로듀서그룹 도트, 강화유니버스

내용 기록: 송미선, 조냇물

사진 기록: 박지선

영상 기록: 김보람

편집 및 정리: 권근영, 나서경, 박지선, 송미선, 유명상, 조냇물

일러스트: 구지민

디자인: 오경섭

이 프로젝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5년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This project is supported by Arts Council Korea.

⬡⬡의 섬_강화도의 더 많은 자료는
hexagon-island.com 홈페이지에서 더 확인 가능합니다.